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5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 423 호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멸빈자 사면 강력 재촉구

조계종 원로회의,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조계종 원로회의가 멸빈자 사면안을 부결시킨 종회를 질타하고, 재차 이들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2 · 3면

원로회의는 21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98년 멸빈 징계자를 포함한 62년 통합종단 이후 모든 멸빈 징계자의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처럼 원로회의가 멸빈자 사면의지를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종정 법전스님과 원로회의는 올 연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면의지를 담은 교시와 유시를 내렸으나, 멸빈자 사면은 지난 4월 임시중앙종회에서 부결됐다.

원로회의는 결의문에서 "종정스님의 교시와 원로회의 유시를 비롯한 전 종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종헌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원융화합종단 구현이라는 궁극적 대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원로일동은 종단대화합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더 이상 일부의 이해에 의해 저해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결의를 통해 재차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로회의는 결의문에서 밝힌 3가지 결의 사항에서 △98년 종단사태 관련 징계자들에 대해서는 1999년 중앙종회에서 제정된 '해종행위조사특별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심사해 결정하고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징계자들에 대해서도 참회와 재발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종헌 개정을 추진하며 △총무원과 호계원 등 유관기관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조치들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총무원측은 이번 원로회의 결의문에 따른 멸빈 징계자 대상자가 98년 종단사태 징계자 정우, 현소, 원학, 현근, 성문 5인을 포함해 모두 20여명 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98년 멸빈 징계자의 특별법에 의한 심사 결정은 당시 재심사를 요청한 5명의 징계가 이미 '확정' 됐다는 시각과 '심사보류중'이라는 시각이 서로 맞서고 있는데다, '멸빈자는 사면, 복권, 경감할 수 없다' 는 종헌(제128조)과 '멸빈자에 대한 복권, 경감 권한을 갖는다' 는 특별법이 부딪히는 등 법리적 논란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완전 사면을 위해서는 중앙종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 징계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나옴으로써 중앙종회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원융종단' 대의, 일부 이해에 좌우될 수 없어 통합종단 이후 징계자도 참회 · 발심기회를"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탈진 입원 수경 스님, 다시 삼보일배 현장에

노대통령, '새만금 신구상기획단' 구성 지시

삼보일배 중 탈진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에 입원했던 수경스님이 입원 이틀 만에 다시 삼보일배에 참여했다. 수경 스님은 삼보일배 55일째인 21일 오후 과천 남태령 고개로 향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담당의사는 "단순한 탈수나 탈진 정도를 넘어선 상태여서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스님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3일 다시 삼보일배에 동참했다. 삼보일배단은 31일 광화문에서 순례를 마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신구상기획단' 구성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7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불교자율권 침해소지 없어야"

조계종, 문광부 전사법 개정안 수정 요청

조계종이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대해 종단 자율권 침해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20일 문화관광부에 전달한 종단 의견서에서 전통사찰 부동산의 대여나 담보제공 시에도 문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전통사찰 재산 수용시 문광부 장관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나 담보 제공시 문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종단 간 분쟁으로 인해 대표단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광부장관 독단이 아닌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계종의 의견서 전달은 문화관광부의 의견수렴 절차에 의한 것으로, 문화관광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춘천 · 강릉지역 스님!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춘천 6월 2일, 강릉 9일부터 시작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스님들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스님과 종무원들만으로 구성되는 특별반 체제로 운영됩니다. 교육 실시 지역의 스님과 종무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2차 춘천 및 강릉지역 교육 안내

지역	대 상	기 간	장 소
춘천	춘천 일원 스님 및 종무원	6월 2일~6월 28일(4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4시~6시	춘천우체국 정보화교육실
강릉	강릉일원 스님 및 종무원	6월 9일~6월 27일(3주)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30분~3시 30분	강릉우체국 정보화교육실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수강료: 무료(교재비 4천원 본인부담)
▦신청 접수: 불교정보화협의회 사무국장 임연태 02-722-4162, ytlim@buddhapia.com
▦신청 기간: 5월 4일까지 전화 및 전자우편
▦모집 인원: 각 지역 15명

※3차 이후 교육은 추후 공지합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 · 현대불교신문사

새기획
'그때 그사람 지금은' 4면
'茶문화' 26면

북한사찰 단청불사 지원 안료 · 재료 등 1차분 선적

북한사찰 단청불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법타 · 학담)는 북한에 보낼 단청안료와 재료 및 도구 1차분 선적식을 27일 오전 11시 인천항 영진창고에서 갖는다.

조선불교도연맹측에 전달되는 1차분 지원 재료는 단청안료 및 재료 15톤 분량과 가설비계 및 합판, 화필 등 단청도구 일체(총 6천5백만원 상당)다.

추진위는 이를 계기로 시범사찰 단청불사 공동작업과 단청 주제의 학술토론회, 전시회 등 일련의 남북교류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불교 재량활동 교재 개발 종립학교 부교재로 활용

시청각 교육을 중심으로 한 불교 창의적 재량활동 교재가 개발된다. 이 교재는 종립학교 불교과목의 부교재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청소년 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교육연합회(회장 홍기삼)는 17일 충남 예산 덕산온천관광호텔에서 제 51차 정기총회를 열고, 가칭 <창의적 재량활동을 위한 인성 교육 및 전통문화 교육교재> 개발을 2003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실시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여건의 변화와 효율적인 불교교육을 위해 개발될 이번 교재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시청각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들이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 또한 전통문화, 불교문화콘텐츠 등 불교 인접 교과 관련 내용도 함께 실린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 도 권 : (02)737-0090 부 산 : (051)632-0064
대구 : (053)768-8008 광주 전남 : (062)375-9986 전북 : (063)255-2274 대전 : (042)489-9390 충북 : (043)258-3282 강릉 : (033)643-5599 동해 삼척 : (033)521-6293
영주 : (054)634-3429 경남 동부 : (055)353-1196
제천 : (043)644-4366 경남 서부 : (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달라진 시대, 달라지는 불교

최근 환경부장관 초청 종교인 오찬에 참석했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과 사회부장 미산스님은 참석자들의 불교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에서 달라지고 있는 불교의 위상을 실감했다.

7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국사 사회적 이슈는 '민주화'와 '인권'이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통해 한국사회의 중심에 섰다.

2003년 오늘, 사회는 변했고 '환경'이전 인류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도 자연히 민주화와 인권에서 환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불교가 자리 잡게 됐다.

환경문제는 민주화나 인권문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주화나 인권은 어느 한 쪽(예를 들면 국가기관)과 싸워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다르다. 상대방(국민이나 정부)을 '감동' 시켜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솔선수범해야 하고, 끊임없는 인내와 자기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의 당면 현안인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 관통도로, 천성산 · 금정산 경부고속철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교다. 생명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불교의 가치관이 환경문제해결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은 지속성이 생명이다. 한 때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불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사상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불교에 대한 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도다가 마을 촌장님은 부처님이십니다.

촌장님은 늘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있음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라.
네가 있음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라.
다른 사람의 기쁨이 네 기쁨이 되게 해라.
이렇게 실천한 후, 실천했다는 생각마저도 모두 잊어버려라.
도다가 마을 주민은 늘 촌장님 말씀을 실천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촌장님 말씀이 바로 저희 마을을 다스려가는 내규(內規)니까요.

● 제가불자 수행공동체 도다가 마을은 강화도에 조성되며, 분양을 통해 입주하게 됩니다.
● 마을 안의 절에서 예불, 참선, 경전공부,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 식사, 세탁 등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강화도 내의 병원(한방)과 결연을 맺어 검진과 상담을 늘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급자족을 위한 자체 수익 사업을 하게 되므로 노후의 삶을 안정되게 설계해 갈 수 있습니다.
● 열반시 마을 내 사찰에서 49제를 지내드립니다.



화 연 상담 및 문의 TEL 02) 704 3577, 719 4083, FAX 02) 719 408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2층
www.hwayeon.org e-mail: hwayeon@hwayeon.org

사 설

멸빈제도 다시 생각하자

조계종의 종헌에 정해진 멸빈이란 징계는 흔히 사회법의 사형제도에 비유된다. 사실상 구제의 여지가 없이 승단에서 추방되는 중징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헌의 개정 없이는 멸빈자를 구제할 길도 없고, 또 종헌개정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들게 된다. 종교인이 앞장서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마당에 종단법이 사형제도에 다름 아닌 멸빈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런 맥락에서 멸빈 조항에 대한 근원적 반조가 필요하다. 징계가 불가피 할 경우, 승단 일원으로서의 자격은 유지시키되 공직을 비롯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선에서 참회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들도 실제로는 승려의 길을 걷고 있고 종단의 자원이 아닌가. 돌이켜 보면 조계종의 멸빈제도는 정치적으로 이용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멸빈자 문제'가 늘 종단분규의 앙금으로 남는 형국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

진정한 개혁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자리에서 낡은 것을 고쳐 나가려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1일 발표된 조계종 원로회의의 결의문은 종단 어른들이 내리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다.

차제에 멸빈제도와 관련, 조계종 구성원들이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불교는 살아 있는 중생의 구제는 물론 우주 만물과 지옥중생까지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의 종교가 아닌가.

3보1배 참뜻 헤아리라

삼보일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극도의 피곤과 체력 저하로 쓰러졌던 수경스님은 몸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아스팔트로 돌아갔다.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 이희운 목사, 김경일 교무의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이다. 그러면서도 육신의 안위보다는 개발이면 무조건 좋다는 식의 세태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수행자와 성직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분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네 분의 삼보일배가 단지 새만금 간척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새만금 신구상 기획단의 구성을 촉구하는 몸짓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물론 새만금 간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바라는 바가 없지는 않다.

새만금 문제는 87년 대선을 앞두고 전북도민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출발이었다. 방조제 공사를 일시 중지해 갯벌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전북도의 발전 방안을 찾아보자는 합리적인 제안인데도 정부의 반응은 더디기만 하다.

삼보일배의 참뜻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죽임의 문화와 투쟁의 독기운' 그리고 '동체대비의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난개발과 학살만이 전지구적으로 한 몸'인 과거와 현재를 참회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 · 평화의 날을 맞이하려는 염원이다. 이 뜻을 헤아린다면, 새만금 문제는 저절로 풀어진다.

따라서 새만금 문제는 정치와 경제 또는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봄이며, 생명과 평화로 나아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유승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군종장교 종교·선발기준 모호하다

조계종 국방부에 병역법시행령 보완 의견서 제출

조계종이 지난해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의 군종장교 파송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은 군종장교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등의 조항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16일 국방부에 전달했다.

조계종이 수정보완을 요구한 것은 군종장교 파송 종교 선정기준이나 군종장교 선발 기준이 모호하고, 모호하거나 시행령에서 명시돼 있지 않은 필요한 사항들을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해놓은 점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계종이 지적한 사항은 모두 네 가지다. 우선 군종장교 병적편입대상종교(군종장교 파송종교) 선정기준에서 종교의 교리나 군내 신자수, 군내 여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이다. 조계종은 이같은 명시가 없을 경우 군내 군종활동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파송종단 선정시 기존 파송종단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또 군내 신자수나 종교의식, 행사 수행여건 등 군종장교 운용에 필요한 규모를 수치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군종장교 파송종단 선정시 이를 심의하는 국방부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 3분의2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군종장교를 파송할 수 있는 '종단'과 '학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병적편입대상 종교로 지정된 종단에서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학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토록 하고 그 기준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즉, 국방부가 군종장교를 파견할 수 있는 학교(대학)를 일방적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군종장교운영심사위 구성에 있어서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서 추천하는 각각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선정토록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교리·군 신자수·여건 등 불명확
운영심사위 의결 정족수 출석 2/3로
위원 불교·개신교·천주교 1인이상 선정
종단지정학교 출신 군승 선발·파견을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학 결집대회 신청자 쇄도

마감 10일 앞둔 현재 200명 넘어

1년 가까이 남은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범)가 벌써부터 화제다. 신청 마감(30일)을 10일 가량 앞두고 논문 발표 신청이 200명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신청자의 20%가 외국학자로 나타나 '국제학술대회로의 위상 격상'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오고 있다.

2회 결집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해주)는 20일로 논문 발표 신청자가 200명을 넘어서 201명이 발표 신청서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교수 82명, 박사학위를 가진 강사 78명, 박사과정에 있거나 수료한 사람 41명이 신청서를 내 전체의 80%가 박사학위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집대회는 석사학위 소지자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회 대회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일은 외국학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신청자 201명(21일 현재) 중 외국학자는 41명. 지난해 1차 대회 때 2명에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41명 가운데는 26명이 교수이고, 세계적 유식학자인 슈미트하우젠 교수(독일 함부르크대학)를 비롯해 세계 불교학계의 원로급 학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라별로는 일본 28명, 중국 9명, 미국 · 폴란드 · 벨기에가 각각 1명이다. 조직위는 신청 마감인 30일까지는 '적어도 5~6명의 외국학자가 더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위원장 해주 스님은 "세계 불교학계에서 한국불교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해외 불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직접 접함으로써 국내의 젊은 연구자들에게도 자극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책 과제 설문조사

총무원, 6월초 결과발표

조계종 총무원이 제31대 집행부가 추진할 종책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앙종회의원, 불교계 언론사, 각 신도단체, 사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설문은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제시했던 공약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면 복권과 관련한 문제 △종무체계 및 중앙종무기관 개편 △중앙종무기관의 예산과 분담금 △총무원의 종무 행정 지침 시달과 본말사 협조 관계 등에 대한 질문 29가지를 담고 있다.

총무원은 6월초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종교유적지 대화 순례

KCRP, 28일~30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2003년 종교유적지 대화 순례'를 진행한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각 종교 성지를 돌며 종교간 연대와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하동 쌍계사(불교), 성공회 대성당(개신교), 해미읍성(천주교), 익산 원불교총부(원불교), 전주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관(천도교), 지리산 청학동(민족종교), 청주향교(유교) 등을 순례한다.

남동우 기자

국보 불상 강탈사건

용의자 2명 검거

국립공주박물관 국보 강탈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공주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2일 유력한 용의자 2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하는 한편 강탈한 불상 등 국보급 문화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금동불상 등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국보 회수에는 난항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내년 불교문화재 보수예산 사찰·각 시도 917억원 요청

5월말

불교문화재 보수와 관련 사찰과 각 시도가 문화재청에 신청한 예산이 15일 현재 347건에 9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섭 문화재 청장은 20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불교문화재 보수 요구액 917억원은 전체 5,354억원(1,462건)의 17.1%로,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917억원(347건) △문화재청 직영보수사업 42억원(5건)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8억원(1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법장스님은 "매년 전체의 16~17%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불교문화재 관리가 어렵고, 전체 문화재 중 불교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예산을 더 배려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노 청장은 "올해 불교문화재 관리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법장스님은 "현행의 시설적 보조(예산을 정부가 운영하는 것)는 문화재 소유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심 민 섭



소년 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도봉산 도봉사 산사 음악회



사 회 : 배유정
출연진 : 뮤지꾜레, 안치환과 자유, 신형원
임지훈, 소리새, 손병휘, 남 진, 장미화
문희옥, 문영미, 이진희(소프라노)
일 시 : 2003년 6월 1일 일요일 오후 5시 30분
장 소 :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 內
도봉사 대웅전 앞 특설 무대

교통편 : 시내버스 19번, 좌석버스 2번종점
지하철 1,7호선 도봉산역 하차
※버스종점에 대형주차장 완비

후원:한신공영(주), 조흥은행, 골든에셋플래닝(주) 협찬:도봉구청, 도봉경찰서 공연문의:대한불교조계종 도봉사(02)954-1112



◇조계종 원로회의는 21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멸빈자 사면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98 징계자 특별법 법리적 논란 일듯

원로회의 '멸빈자 사면 재촉결의문' 배경

종회 계파 대립 · 종헌개정 부결 질책

원로회의 · 종회 대립경우 부작용 클듯

●결의문 배경

멸빈자 사면을 재촉구한 원로회의의 결의문 내용을 보면 중앙종회의 사면 부결을 종정스님과 원로회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뉘앙스가 짙게 배여 있다.

특히 결의문 내용 가운데 '종단화합의 중차대한 과제가 일부의 이해에 의해 저해될 수 없다'는 대목에서 '일부'는 멸빈자 사면을 부결시킨 종회의 특정 계파를 지칭하고 있어 사실상 결의문 전체가 종회에 대한 강한 '질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실 원로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종회의 멸빈자 사면 부결에 대해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 등 집행부가 상당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유시'가 아닌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지난번의 유시가 아직도 유효하고, 그 유시의 이행을 촉구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형식상으로 보면 결의문이 유시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은 오히려 유시보다 몇 배 이상 강한 어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별법 · 종헌 개정 문제없나

결의문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98년 종단사태 관련 멸빈 징계자의 사면, 복권, 경감을 결정하는 처리 방법이다. 원로회의가 99년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이들의 징계를 다시 심사하라고 요구한 것은 일단 지난 4월 종회에서 종헌 개정을 통한 사면이 무산됨에 따라 다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호계원은 특별법에 따르는 특별심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재심사는 호계원의 결정사안이며, 재심사를 통해 멸빈 징계가 제적이하의 징계로 경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멸빈자 사면안이 종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98년 멸빈자 징계는 확정됐다"며 특별법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해온 총무원 집행부와 호계원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한 문제해결에서 서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종헌과 특별법의 해석 차이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사면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종헌 개정이 최적의 방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법리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의해 심사를 받는 98년 종단사태 관련 징계자 범위에 대해 원로회의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총무원에서는 정우, 현소, 원학, 현근, 성문 등 특별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던 5인이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가 이뤄진다 해도 98년 당시 이들과 함께 멸빈 징계를 당한 월탄, 남현, 윤성, 정영 등 4인은 재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 징계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종회 각 계파가 이 문제에 대해 이해득실을 달리하고 있고, 지난 4월 종회 때 계파간의 합의가 깨짐으로써 상호간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멸빈 징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일 경우 총무원 집행부와 종회간, 종회 각 계파들 간의 첨예한 대립 가능성도 있어 종헌개정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교계 일각에서는 세속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멸빈' 징계가 불교의 자비정신에 맞지 않고, 종헌 개정을 통한 멸빈자 사면 자체도 종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어 아예 '멸빈 징계' 자체를 없애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전망

만약 원로회의의 이번 사면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로회의-총무원 집행부-종회-호계원 등 종단 각 권력기구 간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원로회의와 종회가 대립할 경우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종단대화합이라는 명제 이전에 '막강 권한'을 휘두르는 중앙종회에 대한 원로회의의 '어른'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계 자율 · 재산권 보호 초점

조계종, '전사법 개정안' 교계 입장 제시

전통사찰재산 수용때 종단 동의받게

부동산 대여 · 담보제공 허가 규정 수정도

문화관광부 전사법 개정안에 대한 조계종의 기본 입장은 문광부의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춘다는 취지는 인정하되 불교의 재산권 및 자율권을 보장하고,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행위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것과, 부산 선암사 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계종의 이같은 요구는 불교계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불교관계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전사법이 불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 보존'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사찰 자연환경과 재산권이 침해받아온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조계종이 우선 요구한 것은 국가기관의 전통사찰 재산 수용 등의 행위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와 '협의'하도록 규정된 것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광부 개정안대로 '협의'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전통사찰 소속대표단체 대표자 동의 없이도 국가기관의 수용이 가능하며, 결국 불교계의 자율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종단 간 분쟁으로 소속대표단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문광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을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동의를 받도록 고쳐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바로 불교계의 자율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조계종은 설명했다. 한마디로 불교 재산관리를 문광부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문광부장관에 의해 재산관리인이 임명됐다 하더라도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재산관리인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재산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와 담보제공 허가를 시 · 도지사에 이양하는 규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권한을 시 · 도지사에 이양한다 하더라도 이들 사항은 부동산의 양도와 같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문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이다.

조계종은 특히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폐지의 행위와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법에 관련된 행위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규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행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기준과 원칙 등의 방안이 마련된 후 검토될 사안이라며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선암사가 '국가가 절터 일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강제 수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사건을 개정안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돼 있다.

한명우 기자

조계-태고종 분규 해결 '물꼬?'

법장 · 운산 두 총무원장 40여분 은밀회동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16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배석자 없이 40여 분간 대화를 나눠 조계종과 태고종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있던 분규해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법장스님 취임 이후 관례적인 인사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분규사찰 문제를 비롯해 종단협의회 운영문제, 양 종단 간 현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총무원장이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회동을 가진 점과 "운산스님이 이날 만남에 대해 매우 만족해했다"는 태고종 관계자의 전언은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실제로 조계종은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불교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태고종도 종단 개혁과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어, 양 종단간의 해묵은 분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양 종단의 총무원장이 바뀔 때마다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지만 이후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 종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16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화합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오랜 분규가 원만히 해결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종단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조계종단 대화합을 위한

팔공산 동화사 결집 대법회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때, 불법의 전승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사부대중 여러분! 법체 청안하십니까? 최근 종단화합을 위한 사면이 단행된 것은 종정예하를 비롯한 원로 · 중진스님들의 화합중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과 자비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 9교구 동화사에서는 아직도 미진한 사면문제에 대한 교구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종단 화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팔공산 결집 대법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종단내 사면/화합문제는 동화사 교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어서 각계각층의 견해를 듣고자 팔공산 결집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야사비구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비사리에 700 비구가 모인 가운데 장로들의 대론과 대중의 승인으로 해결된 결과가 불교 교단사상 너무도 유명한 제 2결집이라는 것을 모르는 불자는 없을 줄 것입니다.

이번 팔공산 동화사 결집 대법회의 사면논의를 계기로 조계종단 대화합과 석존이래 전승되어 오고있는 법통을 공고히 하는 전기가 마련되었고, 나아가 국민통합의 불교적 이념이 태동하는 대법회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하는 바 입니다.

불기 2547년 5월

동화사주지 지성 합장

결집대법회행사 일정 및 주제발표 안내

■ 일 시 : 2003. 6. 6 (금) 10 : 00~18 : 20 ■ 장 소 : 제 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설법전

▷ 초청인사 : 지성 큰스님(동화사 주지)
▷ 법 어 : 인환 큰스님(전 동국대교수)
▷ 증 명 : 지관 큰스님(전 동국대 총장)
▷ 사 회 : 오 흥선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주제 1. 僧伽에 있어서 制裁問題에 대한 硏究
- 승갈마의 절차와 죄의 확정을 중심으로-
□발 표 : 白 道守(동국대 강사)
□논 평 : 신 성현(동국대 교수), 대성스님(은하사 주지)

주제 2. 滅諍度를 통해서 본 승단의 쟁사해결의 방법
- 빠알리율 멸쟁건도를 중심으로-
□발 표 : 李 慈郎(동국대 강사)
□논 평 : 혜능스님(해인사 율원장), 혜원스님(동국대 교수)

주제 3. 종단개혁과정과 사면 · 복권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발 표 : 김 응철 교수팀 (중앙승가대학교)
□논 평 : 차차석(현대불교신문사 논설위원), 태원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

주제 4. 宗憲 · 宗法上의 戒律에 비추어 본 赦免/和合과 그 문제점
□발 표 : 덕산 (한국불교교단문제연구소)
□논 평 : 박 연철(대한변협전인권위원장),김 민남(경북대 교수)

주제 5. 近 · 現代佛敎와 僧侶大會
□발 표 : 김광식 (부천대 교수)
□논 평 : 공종원(불교언론인회 회장)

주제 6. 종교단체내부분쟁과 사법심사의 적부
□발 표 : 박 연철(대한변협 전 인권위원장)
□논 평 : 주호영(변호사)

◎종합토론 및 논평 사회
태원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성우스님(파계사주지), 목 정배(서울불교대학원대학 총장), 법타스님 (은해사주지), 해주 스님(동국대교수),여익구(민족문화정책연구소)



노인전문시설과 자매결연

종상 불국사 교구자원봉사단장은 16일 회원 300여명과 안산 연꽃마을 노인전문시설 감로당을 방문해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일주문



열린 음악회 · 장학금 전달

원허 부산 혜원정사 주지는 28일 경내에서 제2회 소년소녀가장 돕기 열린 음악회와 고산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진다.



지역 청소년 농구대회 개최

정여 부산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장은 24일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제18회 청소년 농구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신문사 주필에 임명

법인 전 해남 대흥사 수련원장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으로부터 불교신문사 주필로 임명됐다.



한국참전 용사 위령제

황도 제천 무암사 주지는 6월 7일 강원도 양구 21사단 법당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 위령제를 개최한다.



총무원장 사서특보 임명

지만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전 강화 보문사 주지)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으로부터 사서특보로 임명됐다.



경산분교 개원법회 봉행

우학 대구 영남불교대학장은 16일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옥산동에서 경산분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제2기 범음 · 범패 과정 졸업식

일초 한국불교 종합예술대학장은 28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서울전수관에서 1년 과정의 제2기 범음 · 범패 과정 졸업식을 거행한다.



호국영령 천도대법회

춘광 서울 관문사 주지는 6월 1일 오전 11시 경내 4층 옥불보전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정토행자 통일교육기행

유수 정토회 대표는 회원들과 함께 24일부터 25일까지 천안 · 파주 등으로 '2003 정토행자 통일교육기행'을 다녀왔다.



홍윤식 교수 초청 6월 특강

정태혁 동방불교대학장은 6월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홍윤식 교수(동국대) 등을 초청해 6월 특강을 실시한다.

그때 그사람 지금은 — 전각가 최규일씨

투병후 건강회복, 반야심경 등 작업에 몰두

인생의 절반을 돌과 칼을 벗삼아 살아온 전각가 현로 최규일(玄老 崔圭一, 64) 씨. 뼈를 깎는 노력끝에 한번 칼 댄 자리는 두번 대지 않고 글을 새기는 '일도일각(一刀一刻)'이라는 전각의 기법을 터득한 그는, 전각가 20명이 최소한 20여년은 걸려야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조형미와 작품성을 갖춘 방대한 작품들을 쏟아내왔다.

이런 그가 본지(207호 '산문밖의 선')와 인터뷰를 한 99년 이후부터 세간에서 모습을 감췄다. 이유는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적인 성인병. 급기야 2년전에는 두 번이나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건강이 없으면 작품도 없다'는 사실을 실감한 최씨는 이때부터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산기슭에 작업실(寶經院)을 마련, 몸 만들기에 나섰다. 현재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최씨는 174편까지 작업하다 건강악화로 그만둔 법구경에 이어 금강경, 반야심경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죽다 살아났으니, 이제 돌에다 생명을 불어넣어야죠."

김재경 기자





◇전시회에서 현성 스님(사진 왼쪽)과 김광삼 본지 사장(가운데)이 정석규 교수(오른쪽)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캐릭터산업 질·양적 성장 계기"

본사주관 '불화와 캐릭터 디자인 만남展'
캐릭터 100여점·자수 등 불교응용상품

'불화와 캐릭터디자인의 만남' 전이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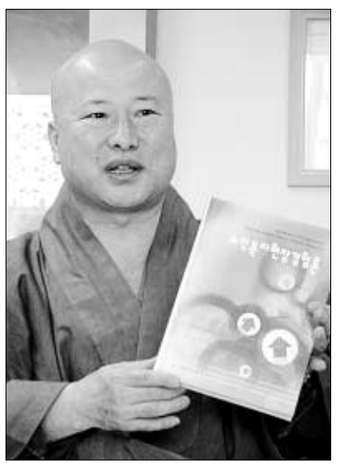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가 주관하고 불교정보화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호남대 인터넷미디어학부 정석규 교수와 산업디자이너 반수진 씨가 지난 1년간 개발한 캐릭터 100점과 캐릭터 소개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자수 발, 티셔츠 등 캐릭터를 응용한 불교문화상품들이 선보였다.

개막식에서 불교정보화협의회 회장 현성 스님은 "오늘 전시를 계기로 불교계 캐릭터 산업과 문화상품의 질적, 양적 성장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 문화원형은 우리 불자들의 손으로 이미지화 될 때 가장 값지고 뜻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복지현장 참고서 됐으면 …"

<노인복지현장 경험론> 펴낸 성운 스님



"집필만 1년, 교정은 수십 번 넘게 봤습니다. 참신한 복지 마인드를 일궈낼 수 있도록 현장사례 중심으로 묶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경험론이 노인복지현장에서 유익한 임상사례집으로 쓰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평가까지 개발과정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노인복지현장체험론>은 종합상담을 비롯해 △재가노인복지 △노인사회교육 △경로당활성화사업 △생산복지 △노인이동목욕사업 △의료보건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개발 관리 △노인복리후생 등 총 9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설립신고, 시설 위탁과 운영, 재위탁에 관한 각종 자료가 CD로 담겨져 있다.

위탁사업·자체운영시설 건립추진

"단순한 보고서 개념의 책이 아닙니다. 그간 현장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여과 없이 집대성한 노인복지현장 체험론입니다. 앞으로 이 책이 사회복지실무자는 물론, 관계공무원,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참고서로 활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19일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설립 10주년을 맞아 <노인복지현장경험론>을 발간한 이사장 성운 스님(사진)은 자신의 저서를 이렇게 설명했다.

스님은 또 "향후 시설 위탁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운영과 함께 자체 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발전계획도 밝혔다. 스님은 이를 위해 5년 내 1,800개 병상을 갖춘 '치매 · 중풍요양원'을 서울 삼천사 부지 2천여 평에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지난 23일 서울 소송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김철우 기자

대구에 범음범패 교육원 개원



대구 불교의식 범음 · 범패 교육원(원장 동현)은 22일 대구 신암3동 교육관에서 개원법회를 갖고 전통 불교의식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 법회에서 동현스님은 "올바른 불교의식의 봉행은 불자들의 신심증득과 신행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의 (053)955-7725

신수회 철야정진 법회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수상자들의 모임인 신수회(회장 이남숙)가 17일부터 18일까지 대구 용연사에서 철야정진 법회를 가졌다. 매년 한차례 사찰순례를 겸해 열리는 신수회 철야정진법회에서 이남숙 회장은 "신수회를 포교와 수행을 겸비한 신행단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문광부 장관 초청 지도자 간담회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초청으로 불교계 지도자 오찬이 22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윤청하 종무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봉 활안 한정섭 대종사 총재 취임 및 혜원 강청작 이사장 취임법회 축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 제2대 총재 취임 및 제4대 이사장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뜻 깊은 자리에 두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는 글

귀의삼보 하옵고,

신록의 계절에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는 제1대 총재님이신 안덕암 대종사님에 이어 평생을 전법과 대중포교에 전심 전력하시는 활안 한정섭 대종사님을 제2대 총재로, 혜원 강청작 법사님을 제 4대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취임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봉행위원장 호 암 합장

1. 일 시 : 불기 2547년 6월8일 (일) 12시
2. 장 소 : 신진주웨딩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3번 출구 세무서 방향 / 전화 959-9779)

■ 초 청 인 사 : 수산 큰스님, 월주 큰스님, 해강 큰스님, 혜초 큰스님
■ 고 문 : 경우 스님, 청암 스님, 초암 스님, 수진 스님, 도원스님, 김의택, 김병희, 심월산, 전용만, 이무선
■ 봉행 위원장 : 호암 스님
■ 자 문 위 원 : 진각 스님, 원호 스님, 창인 스님, 지성 스님, 구본하, 박기동, 정의백, 이광세
■ 위 원 : 진하 스님, 도화 스님, 천도행 스님, 해강 스님, 지광 스님, 혜성 스님, 두현 스님, 임법성 스님, 보문 스님, 혜각 스님, 대명 스님, 정은 스님, 장법장 스님, 현각 스님, 김진궐, 김익순, 이지행, 서무선, 보 현, 김부권, 허기림, 전 란, 권용득, 최유수, 강화순, 황영도, 김기훈, 박영자, 이원득, 김영숙, 김승익, 이홍표, 정미경, 한수갑, 이정자, 이종업, 임병윤, 최창환, 서공선, 최우범, 윤창남, 정지수, 이동옥, 이기원, 유권규, 한연선, 한동국 (무순)
■ 후 원 : 불교진흥원, 현대불교, 대한불교, 계간 세계불교, 여주불교대학, (주)대길포장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전화 02) 969-4981, 969-2410 팩스 02)964-2433

인도 부처님 오신날에 한국전통 욕불·수기식

16일 인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도JTS는 1,000명의 마을주민과 학생들을 초청해 불기 2547년 봉축법회를 거행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의 지도로 거행된 봉축행사는 전통적인 힌두교도로 살아오던 둥게스와리 지역의 불가촉천민들에게 부처님 탄생설화와 그 의미를 설명하고, 1,000여명의 참가자 전원이 생애 처음으로 욕불의식을 해보고 수기를 받는 의식이 진행됐다.

봉축법회가 끝난 후 인도 JTS 주변 자그디스푸르, 두르가푸르의 주민 천여명에게 옷을 나눠주는 행사도 열렸다. 한국 JTS는 인도 불가촉천민들을 돕기 위해 한국의 기증자들로부터 중고의류를 기부받아 그 중 5만벌을 금년 초에 인도로 이송했으며,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전정각산 주위 16개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의류지원을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 앞에서는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봉축등을 들고 2시간 동안 보드가야 국제사원구역의 주요도로를 행진하는 제등행렬이 펼쳐졌다.

인도=김동훈 통신원

성보박물관 방범시설 안심못한다

본사, 15곳 조사 "유사시 효과적 기능 장담못해"

박물관·전시관 따라 시스템 큰 편차
시설노후 오작동도… "지속 점검 필요"

국립공주박물관에 강도가 들어 10분 만에 국보를 강탈해간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불자들의 시선이 성보박물관에 모아지고 있다.

본지가 현재 개관 중인 성보박물관과 유물전시관(총 15곳)을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일단 방범시설 설치는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지만, '유사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다.

시설설비 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방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화상감시시설(CCTV)과 자동경보시스템(SECOM, CAPS 등)은 거의 모든 성보박물관과 유물전시관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합격점을 받았다. 화상시설과 짝을 이루는 감지시설(열감지기, 적외선감지기 등)의 경우에도 개관한 지 오래 된 S사찰, P사찰 등 2~3곳을 빼곤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월정사, 직지사, 통도사처럼 '경비 초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찰도 있고 모든 사찰이 야간 경비조를 편성, 사내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유사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만큼의 상태인지를 따져볼 때는 '안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한정호 학예연구사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따라 시설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P사찰이나 B사찰의 경우처럼 설치된지 5년이 넘을 정도로 시설이 낙후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설치 후 지속적인 점검 시스템이라는 지적도 있다. 승원스님(월정사 성보박물관)은 "시설이 노후 되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아예 작동이 안 될 경우도 많다"며 "지속적으로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보박물관 관계자는 "공주박물관의 경우처럼 설치돼 있어도 꺼놓을 때가 많거나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해당 박물관 종사자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종단 내 성보박물관의 장비와 시설, 인력,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광주사암련, '5 · 18' 23돌 민주영령 위로 천도재

광주사암연합회(회장 현지, 원효사 주지)는 5.18 광주민주항쟁 23주기를 맞아 17일 광주 망월동 국립 5.18 묘역에서 민주영령 추모 천도재를 봉행했다.

영산재 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광주사암연합회 회장 현지스님, 월인(법륜사), 태현(대원사), 지각(동원사), 명신(연화사)스님과 신도 5백여명이 동참했다.

현지스님은 추모식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민주영령들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지리산 천일기도 회향사업 가시화

범종교계 100일 기도 등

지리산의 뭇 생명과 좌우익 희생자를 위해 시작된 '생명평화 · 민족화해 · 평화통일을 위한 지리산 천일기도' 회향일이 6개월 정도 앞둔 가운데 회향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리산생명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실상사, 한생명 등은 15일 생명평화의 등 밝히기를 시작으로 850일째인 6월 15일 평화의 돌탑쌓기 천인위원회 발족, 900일인 8월 4일 생명평화를 여는 기도의 밤, 901일째인 8월 5일부터 범종교계 100일기도, 국민동참 100일 기도 릴레이, 11월 11일 천일기도 회향 전야제, 11월 12일 회향식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김태복 장군 사건' 담당 군사법원장 변호사로부터 향응접대 혐의 피소

김태복 장군의 부당한 재판을 주도한 군사법원장이 사건 관련 변호사로부터 향응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태복 장군은 19일 "7일자로 군사법원장 박 모 대령을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및 향응성 접대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장군은 고발장에서 "박 모 대령은 2002년 12월 후배 군 판사 4명과 함께 c모 변호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I호텔에서 식사를 대접 받은 뒤 인근 역삼동의 한 룸살롱에서 수백만원대의 뇌물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군은 같은 날 여단장 재직 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물 심의 담당장교였던 군보심의장교 최 모 소령도 '위증' 혐의로 국방부 검찰에 고소했다. 김 장군은 "재판과정에서 위증,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을 저지른 나머지 3명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준비된 결혼으로 행복가정 꾸리기

불교여성개발원 강좌

'가정의 위기'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결혼 현실과 이혼 원인을 진단하고 준비된 결혼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한 강좌가 마련된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 이하 개발원)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과 7월 3일, 10일에 혼인준비교실 '준비하는 결혼 행복한 가정'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경전에 나타난 결혼관과 생명의 존엄성, 아름답고 건강한 성문화, 결혼생활에 대한 전망과 설계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동국대 가정교육학과 백경임 교수와 성균관대 철학과 이영호 교수, 이윤정 불교여성개발원 상임위원 등이 맡는다. 개발원은 오는 10월 부산에서도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02)722-2101

여수령 기자

"북 개성공단 유적파괴 우려"

유호수 문화재위원, 신도시건설 유의 필요"

남북 합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성 공단' 조성 사업이 유적 파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박물관이 22일 개최한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 학술 세미나에서 장호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은 "북한의 공식 발표로는 개성 지역의 유물 · 유적이 절터 40여 곳 등 148곳이지만 문헌 기록에 따르면 개경 일대에는 절만 70여 곳이 있었고 왕릉도 29기가 있어야 한다"며 "확인된 유적이 개성과 서쪽의 개풍군에 몰려있는 이유는 나머지 지역이 군사 접경 지역이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성지역의 문화유산 현황과 보존방안'을 발표한 장 위원은 "공단 지역은 이제까지 확인된 문화유산이 많지 않으나 조사에 따라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공단 주변의 신도시 건설의 경우 아직 문화유산 분포 현황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결정할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제1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
이인영 민주당 구로갑위원장

'제1회 고 박종철인권상'에 이인영 민주당 구로갑 지구당 위원장이 선정됐다.

고 박종철인권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지하)는 23일 △1987년 당시 전대협을 이끌고 민주화 운동의 승리를 얻어내는 데 크게 공헌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을 수상자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6월 10일 오후 5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생명 살리는 한길로

천미희 (부산주재 기자)

경부고속철도는 천성산과 금정산을 뚫고 지나가게 될 것인가? 시민종교대책위원회와 정부, 건교부가 합의한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재검토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르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은 6월 30일 제출될 1차 조사 보고서에서 듣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일 열린 '생명의 대안은 없다'라는 주제로 열린 경부고속철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한 전국 생명연대 토론회에서 "6월 30일까지는 사실상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성산보존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녹색평론, 통도사환경위원회, 습지보전연대를 비롯 50여 개의 전국 환경 시민단체가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선재검토위원회 합의서에 기존 노선 백지화 원칙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문제제기 당사자인 내원사를 제외시킨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시민종교대책위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활동을 펼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금정산과 천성산을 지키려는 노력은 시민종교대책위와 천성산보존대책위가 나름의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재검토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즈음이면, 지율스님과 윤희동 신부 등은 천성산과 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길거리 특강, 천성산 물 마셔보기 체험 등으로 다시 거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내분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환경운동의 힘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할 뿐이다. 이제 누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 누가 옳으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금정산과 천성산을 지켜내어 생명의 대안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정신과 육체 두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비의 요가
자격증 획득을 위한 특별 강좌





요가의 효능 및 방법
바른자세와 호흡을 통하여 폐와 내장기관을 청소한 뒤 해맞이 운동 12가지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개강일시 및 장소
▶ 서울 : 6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6개월 간)
▶ 기흥 : 6월 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6개월 간)

① 물구나무서기(Sirshasan)
기억력, 사고력, 집중력이 강화되고 시력, 청력이 좋와지며 신경이 튼튼해진다.

② 척추곧세우기(Sarangasan)
갑상선, 심장혈압, 비만에 좋고 목과 가슴부위가 튼튼해지고 불면증, 우울증이 치료된다.

③ 쟁기포즈(Halasan)
등, 어깨, 팔, 근육이 강화되고 소화가 잘 되며 변비, 불면증이 없어진다.

④ 물고기자세(Matsyasan)
혈액순환이 잘 되고 폐활량이 늘어나고 굽은 어깨가 펴지고 중추신경이 발달하여 충치가 예방된다.

⑤ 앞으로 굽히기(Paschimothanasan)
비만을 치료하고 소화력을 높이고 뼈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당뇨병을 치료한다.

⑥ 코브라(Bhujangasan)
척추를 튼튼하게 하고 요통 류마치스를 치료하며 체온조절이 잘 되 자궁이 튼튼해진다.

⑦ 메뚜기운동(Salabhasan)
장, 췌장, 간장 등을 튼튼하게 하고 허리, 등, 팔을 유연하게 한다.

⑧ 활(Dhanurasan)
만성변비, 소화불량, 간무력에 좋고 굳은 뼈를 펴준다.

⑨ 척추반비틀기(Ardha · matsenbrasan)
힘줄이 펴지고 혈액공급이 원활해지며 특히 관절에 좋다.

⑩ 까마귀포즈(Kakasan)
팔과 목 어깨를 튼튼하게 하고 손가락, 팔목, 근육이 늘어나 무기력증이 없어진다.

⑪ 손과 발포즈(Padahasthasan)
허벅지 뼈가 부드러워지고 체지방이 없어지며 두뇌에 혈액공급이 잘 된다.

⑫ 삼각형(Thikonasan)
월경불순, 골절건강에 좋으며 척추신경과 내장기관이 좋아진다.



세계전통요가실천본부 · 세계젠요가학교
본 부 :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213번지 / 전화 031) 375-0778
서울교육원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한국불교금강선원 02) 969-2410



진각논문대상 발표
불교·밀교·교학 6편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제5회 진각논문대상 당선작으로 이소운 씨(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의 '돈황본 <지지의기(地持義記)>권4의 문헌학적 증명'(불교 분야) 등 6편의 논문계획서를 선정, 20일 발표했다.

불교, 밀교, 진각종 교학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당선작을 선정한 진각종 교육원은 조승미 씨(동국대 불교학 박사과정 수료)의 '불교수행에서 여성의 몸의 의미 변천에 관한 연구'와 유호선 씨(동국대 BK불교사상문화사 교육연구단 박사후과정)의 '조선후기 유학자의 불교관 고찰'도 불교 분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밀교 분야 당선작으로는 강영철 씨(동국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의 '조선후기 준제보살 연구-의식집과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남승호 씨의 '불교탄트라에서 공성요가와 신명요가의 합일', 강은애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겸임교수의 '현대 한국불교 신행에 나타난 밀교적 특성-천수경을 중심으로' 등 3편을 확정했다. 그러나 진각종 교학 분야는 1편의 논문계획서가 접수돼 당선작 선정을 보류했다.

당선자들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4~5개월의 논문작성 기간을 거쳐 11월 중순 논문발표회와 시상식을 갖는다. 이들 논문은 교육원에서 발행하는 '회당학보 9집'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개혁의 돛 올렸다"

기획종책위 첫회의, 6월9~10일 위원장 선출

차기 중앙종회서 종법령 제정…활동 뒷받침

태고종 총무원장 직속의 종책기획위원회가 종단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태고종은 19일 새로 구성된 종책기획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서울 총무원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종단의 위상 강화와 승풍 진작 등을 위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종책기획위원회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종단이 거듭나고 참신한 인재들의 지혜와 능력을 계발 · 결집시켜, 종단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종지 종풍 연구 △승려의 승풍 쇄신 △교육수행 의제의식 등 종단제도 개선 △교세진작을 위한 사회참여 △1사찰 1선행 사회복지활동 전개 △종단과 사찰간 유기적 협조관계 형성 △종도화합 방안 연구 △종단운영위원회 구성 △종단 수익사업 개발 △종단 홍보 및 외호 △종단현안의 종책 연구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종책기획위원과 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음 중앙종회에서 종법령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3~4개 분과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 전문성을 살려 나가기로 했다. 특히 건전한 여론의 수렴과 종도들의 참여 독려를 통해 지역과 세대를 넘어 모범적인 종단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책기획위원회는 6월 9~10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연수를 진행해 위원장 선출과 소위원회 구성, 종책기획위원회법 시안 마련 등 실질적인 활동에 필요한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종책기획위원회는 연령 30세 이상 50세 이하, 법랍 5년 이상의 승려 가운데 서울, 경기, 충남 등 권역별 3명씩 선발해 모두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승가의 법도를 익힌 안목과 지혜를 갖추고 종단발전을 위해 솔선해 온 종도를 중심으로 선발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종책기획위원회는 종단내 존재하는 불신과 불화를 신뢰와 화합으로 반전하고, 지역과 세대를 뛰어 넘어 종단 개혁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참신한 인재들을 종단 전면에 드러냄으로서 종단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는 건전한 세력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종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종단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회당대종사 대각지 표석 건립

진각종은 16일 종조 회당대종사가 깨달음을 얻은 대구 성서 농림촌에 표석을 세웠다. 표석은 높이 4m, 폭 2.5m 크기로 건립됐으며, 앞면에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대각지', 뒷면에는 '심인진리' 경구가 새겨져 있다. 효암 통리원장은 "회당대종사께서 생사의 번뇌를 뛰어 넘어 우주의 대진리를 깨달아 위없는 대각을 이룬 가르침을 되새겨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륵복지원 경로 위안잔치

미륵종 부설 미륵복지원은 17일 미륵복지원 경내에서 김해 진례면 일대 어르신을 초청해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법요식과 위안잔치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500여 어르신에게 동래문화원 원생들의 학춤, 사물놀이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스님은 "불교의 자비정신을 살려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을 회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관음종 총본산 서울 묘각사 준공

6월7일 낙성 · 점안

서울 숭인동 묘각사(사진)가 완공돼 관음종 총본산의 위용을 드러냈다. 지난 97년 2월 화재로 대웅전, 범종각 등이 완전 소실된 이래 관음종도와 불자들의 성금과 후원으로 복원불사를 시작한 지 6년여만의 일이다.

묘각사는 연건평 450평 지상 3층으로 세워진 대불보전이 완공됨에 따라 주법당인 대불보전과 석굴암, 관음전, 산신당, 선방, 요사 등을 갖추고, 500여 종단 소속 사찰과 1천여 교직자, 1백만 신도들의 정신적 · 신앙적 귀의처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관음종의 종지 종풍을 선양하는 법화신앙의 중심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6월 7일 묘각사 대불보전 등 경내에서 총본산의 낙성을 알리는 낙성 및 점안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9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과 16세기 조성된 청동불을 보유한 전통사찰인 묘각사는 1930년 관음종의 창종조인 태허 홍선대종사가 중창한 이래 청년불교와 대중불교의 중심도량으로 자리잡아 왔다.

박봉영 기자

종단소식

봉원사서 영산재 시현

태고종 영산재보존회(회장 인공)는 6월 4일 서울 봉원사 특설도량에서 영산재를 시현한다.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를 전승하는 단체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15회째 열리는 이날 영산재는 준보유자 구해스님을 비롯해 전수교육보조자 일운 기봉 송강스님이 직접 집전하며, 이수자, 전수생, 신도 등 3천여명이 동참해 영산 회상을 의식으로 재현한다.

선망조상 합동천도재

천태종 서울 성룡사는 6월 5~7일 선망조상 합동 천도재 및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이번 천도재는 유주무주 고혼들이 극락왕생하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죄와 업장을 소멸할 수 있도록 영산재 의식에 맞춰 진행된다. (02)323-2607

전국 보살계 수계법회

총화종은 29일 오후 1시 홍천 연화사에서 전국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전국 소속 사찰 주지 및 신도들이 참여하는 이번 수계법회는 영산재와 수계의식 등으로 진행된다. 총무원장 남정스님은 "불자들은 계를 근본으로 삼아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031)591-7710

종회의장에 지공스님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은 22일 재단 사무실에서 제17차 중앙종회를 열고, 신임 종회의장에 지공스님(양산 지원사)을 선출했다. 또 일붕존자 7주기 추모식을 6월8일 의령 일붕사에서 봉행하기로 했다.

게 시 판

행사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29일 11시 복지관내 대강당에서 독거 어르신을 위한 '장수잔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생신상 차려드리기, 축하공연,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51)628-6737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월 12일까지 제2회 결식 장애인 돕기 '2003 사랑의 쌀 모으기' 캠페인을 벌인다. (054)776-7522

▲능인선원은 6월 7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서울 강남 선원법당에서 제35회 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577-5800

모집 ▲동산반야회는 직장인을 위한 3개월 과정의 불교교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는 서울 종로구 동산법당. 개강은 6월 4일. (02)732-1206

▲서울 자양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 오후 2 · 3시에 복지관 3층 프로그램실에서 동화구연 강좌를 연다. 대상은 유아 4~5세, 6~7세로, 교육은 말하기, 듣기, 이야기 형식을 통한 상상력 표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수강료 4만5천원 (02)458-1664

▲창원 서원사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1시30분~3시 두 차례에 걸쳐 대웅전에서 '참선 · 명상' 강좌를 연다. (055)291-6413

구인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직장체험연수생을 구한다. 응시자격은 대학원, 학부, 전문대 재학생으로, 마감은 29일까지. 준비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2장, 신분증사본(학생증포함), 도장 등이며, 접수방법은 직접방문해야 가능. (02)739-9501~3

▲진각복지재단 대구 보은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간호사, 관리인 등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각 분야 경력자로,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한다. 지원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각각 1통. 접수마감은 30일까지. (02)942 - 0144

▲서울 도봉서원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셔틀버스 운전기사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접수마감은 28일까지. 구비서류는 이력서, 경력증명서 각각 1통. (02)3494-4755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月初門徒會 定期總會 召集 公告

월초대종사의 기일을 맞이하여 재사를 봉행하고 월초문도회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하오니 문도제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월초대종사 재사
일시 : 불기 2547(2003)년 5월 30일(음 4월 30일)오전 10시 30분
장소 : 봉선사 큰법당

2) 봉선문도회의
● 일시 : 불기 2547(2003)년 5월 30일(음 4월 30일)오후 1시
● 장소 : 봉선사 청풍루
● 안건 : 1) 본사주지 유고에 따른 수습 대책 건
2) 문도회 활성화 방안의 건
3) 기타의 건

3) 연락처 : 봉선사 종무소 **(031-527-5974)**

월초문도회 문장 김 월 운 합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

상황버섯



예로 부터 널리 알려진 상황버섯은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적의 버섯입니다.
현재 상황버섯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의 새로운 성분이 밝혀져 상황버섯은 건강에 가장 큰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에 힘을주는 상황버섯의 성분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건강세계를 체험해 보십시오.

자연의 기적 상황버섯은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체의 기능을 증가시키는 놀라운 성분의 버섯입니다. 상황버섯의 다당체 B-클루칸은 인터로이킨,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을 왕성하게 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상황버섯은 유전자 분석결과 Phelinus Linteus로 판명되어 안전성 및 성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공주양잠농협제품을 아껴주시는 소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공주양잠농협에서는 현미를 배지로한 상황버섯과 물 좋고 공기 좋은 고장 공주에서 유기농법으로 자란 뽕잎을 먹고 사육된 5령 3일된 누에와 엄나무, 뽕나무, 영지 등 엄선된 재료를 선정 배합하여 추출한 상황진액은 누구나 드시기 쉽게 1회용단위로 포장 하였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 사료되오니 에 추천하여 드리며 저희 농협이 품질을 보증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의 홍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좋은 품질로서 소비자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양잠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윤 장 근

공주양잠농업협동조합
판매원 cumin : 080-200-4545 (02)755-9821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23일 오전 서울 진입에 성공한 뒤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아! 새만금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삼보일배'는 수경스님을 비롯한 4명의 성직자들이 3월 28일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출발하면서 시작됐다.

번뇌의 근본 원인인 탐(貪, 탐욕) 진(瞋, 노여움) 치(癡, 어리석음) 삼독(三毒)을 참회하기 위해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는 4월 21일 홍성, 4월 25일 예산, 5월 3일 천안, 5월 7일 평택, 5월 11일 오산, 5월 16일 수원, 5월 21일 과천 등을 거쳐 23일 서울에 도착했다.

하루 8시간 씩 매일 4~5km를 나아가는 삼보일배는 총 305km 중 최종 목적지까지 15km를 남겨 둔 상태다.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을 그대로 마시며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에 오체투지를 하는 성직자들은 하루 약 2500배, 현재까지 어림잡아 130000배(쉬는 날 제외) 정도는 한 셈이다. 또 성직자들이 두겹으로 손에 끼고 있는 면장갑은 하루 평균 3번 이상 교체돼 57일 동안 1300개 정도가 사용됐다.

삼보일배가 처음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론 불가능할 것' 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뭇 생명들에게 가했던 우리들의 폭력을 참회하는 삼보일배'가 지속되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기획실장 현고스님, 사회부장 미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와 김영진 농림부 장관, 한명숙 환경부 장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인사, 이부영, 장영달, 김원웅 등 국회의원, 명계남, 장선우, 예지원 등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현장을 찾았다. 특히 서울 입성을 앞두고는 일반인들의 동참이 늘어나 새만금 살리기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됨을 증명했다.

중단돼야 하는 이유

새만금 간척사업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다음달 초까지 신구상 기획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생명평화연대측은 "신구상기획단 구성 전제는 방향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방조제 공사의 중단이 선행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시까지 총 33㎞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아 농업용지 3만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 여의도의 140배(1억 2천만평)에 달하는 이 사업은 91년 김대중-노태우 청와대 영수회담시 추경예산에 200억원이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시 "1조 4천억원이 투입됐고 73% 정도 사업이 진행됐으며 내년이면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방조제 공사 대비 진척도이며 감사원 추산 총사업비 대비 공사진척도는 23%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자인했듯 '농업용지 확보'라는 원래 목적이 상실된 만큼 방향성과 타당성을 잃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투입된 1조 4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생태경제연구회는 "현 단계에서 사업을 중지할 경우 8조 1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개발할 경우 4조1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공사를 중지할 경우 방조제 유실방지 공사비 2억7천6백만원 등이 필요하지만 갯벌유지에 따른 효과가 3조6천8백8십2억원에 달하는 등 향후 8조1천19억원의 이득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연대도 16일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즉각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수경스님을 비롯한 4명의 성직자들이 목숨을 건 고행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이 '수자타의 우유죽'이 돼야한다.

글=남동우 기자







◇삼보일배 순례단 이동경로와 일정(사진 맨위).
◇원불교 과천교당 어린이들의 응원(가운데).
◇18일 '불교 100인 삼보일배 날' 행사(아래)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고개를 넘는다. 경기도 과천과 서울의 경계인 남태령 고개를 넘는다. 수경스님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링거 주사를 맞으며 '눈물의 고개'를 넘는다. 부처님이 6년 고행 시 전정각산에 올랐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렇다면 수자타의 우유죽은 무엇일까?

삼보일배 57일째인 23일 오전. 삼보일배 도중 탈진해 응급실로 실려갔던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을 비롯한 4명의 성직자들의 삼보일배가 다시 시작됐다. 다른 세 명의 성직자들이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을 할 때, 스님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김도형 불자가 미는 휠체어에서 합장 반배로써 예를 다했다. 같이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쉬는 시간 문규현 신부의 이마로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200여명의 삼보일배단 뒤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응급차가 뒤따랐다. 스님이 담당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도망치듯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불교 과천교당 어린이 30여명이 삼보일배단에게 '힘내세요' '사랑해요'라고 외치자 살짝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 40분 경, 고개 정상에 도착했다. 삼보일배 57일만에 서울 입성에 성공한 것이다. 진행팀 한 관계자가 서울 입성에 성공했다는 말을 외치자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는 말없이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김경일 교무와 이희운 목사를 껴안으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진행팀도,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울었다. 땀과 눈물로 이룬 대장정이었다.

이에 앞서 삼보일배 52일째인 18일 '불교 100인 삼보일배의 날'에는 중앙승가대학과 봉녕사 승가대학 학인 150여명과 조계사, 봉은사, 영원사, 수리사, 신륵사, 신흥사 등 수도권 사찰에 다니는 불자 350여명이 참석해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생명살림의 잔치'가 열렸다.

삼보일배 그 거룩한 장정

'새만금 갯벌과 온세상의 생명 평화를 염원하는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나무는 심지 않고 열매 따려는가?

해마다 5월이면 불교계 이곳저곳에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 '어린이 포교'.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개선책은 없는 것인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가 올 5월 전국 529곳 회원 및 연수 참여사찰을 전화 설문한 '전국어린이법회 현황조사'



◇지난해 열린 '부다피아어린이캠프' 현장. 참가어린이들이 참선수행을 경험하고 있다.

어린이 포교 현실과 방향

결과에 따르면, 정기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363곳(68.6%), 참가자는 11,92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만2천여 사찰 중, 대불어 회원 사찰이 아닌 경우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는 곳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 포교에 나서고 있는 사찰은 11%인 2,500여 곳으로 추산된다. 어린이 포교 기반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셈이다.

어린이법회 운영사찰 11% 불과

"사찰운영 도움 안된다" 예산축소 · 프로그램 개발도 저조

일부 종단 · 대불어 · 불레협 활동 모범적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중 가장 큰 문제는 '돈 안 되는 일'이라는 인식이다. 서울 근교 모 사찰은 최근 새 주지 스님이 부임하면서부터 150여 명 넘던 어린이법회가 뿌리 채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인은 어린이법회 지원금 중단과 어린이들이 절에 와서 시끄럽게 군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 박 모씨(27)는 실질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지적한다.

"새 주지 스님이 오신 이후로 대웅전 불상에 새롭게 금 옷을 입히는 불사를 한창 벌이고 있어요.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곳이 아닌 상황에서, 수익 없는 어린이법회에 관심을 쏟아 부울 수 있겠어요?"

종단의 어린이 포교 예산 규모는 더 심각하다. 2003년도 조계종 포교원 20억여 원 예산 중, 어린이포교 예산은 불과 5천2백여만 원(0.26%)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대불어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이하 불레협)의 동 · 하계 연수비, 좋은 벗 풍경소리의 음반 제작 등의 지원에 머물고 있다.

반면, '돈' 부담도 덜고, '아동복지사업'도 펼칠 수 있는 어린이 집 운영은 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가 2003년 5월 집계한 불교 사회복지시설 총 468곳 가운데, 어린이 집 등의 아동 시설은 208곳(44.5%)에 달하고 있다.

전남 ㅈ사찰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집 오 모 관장(43)은 이와 관련, "최소한 어린이 집 형태의 어린이 포교는 정부로부터 교사 월급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예산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한다.

▲'가르칠 사람'도 '프로그램'도 없다= (사)불국토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가 지난해 대불어 제32차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411명의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 프로그램 개발 328명(40%)과 지도교사 양성 173명(21%)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사 양성 시스템 부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적인 사례가 지도교사의 재직기간이다. 지도교사 10명 중 5명이 1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열악한 보수로 인해 장기 근속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처우개선 없이는 지도교사 양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어린이법회의 교육 및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절실하다. 지도교사 대부분이 초등학교 교과내용을 참조하지 않거나, 교사의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ㅅ사찰 지도교사 박 모(26) 씨는 "지도할 교사의 양성과 함께 가르칠 방법도 중요하다"며 "교수방법이 없이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는 것은 마치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똑같다"고 말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 종단 차원의 지도교사 양성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는 진각종이 대표적이다. 진각종은 지난해 5월부터 자성학교(어린이법회) 교사 전원 유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110곳 심인당(사찰) 중 85곳(77%)에서 자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담 직업교사 수만 20명(24%)에 달한다. 진각종은 매년 포교관련 예산의 35%(2억 6천여만 원)를 책정해 지원을 하고 있다.

천태종의 경우, 10년 전부터 '천태어린이 · 학생회 지도법사회'를 구성해 매달 전국 63곳에 비구니 30여 명이 법회를 지원하고 있다.

'눈높이 프로그램 개발' 모범사례는 단연 대불어와 불레협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어린이 전용 소식지 발간은 물론, 인터넷 시대 흐름에 맞춰 사이버 포교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대불어는 마스코트와 심볼을 제작, 새싹불자들에게 한층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린이 포교 활성화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찰과 스님들의 어린이 포교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열매를 원한다면 나무를 심고 가꿔야 하는 도리를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 포교를 '불교인재 양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어린이 포교 전문가들은 지도교사의 '교육-파견-재교육-보상' 등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가정교육과 사찰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강원에서 어린이포교 교육 실시 △어린이법회의 학원 기능 수행 △어린이법회의 의무화, 주지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이미성
진각복지재단
복지과장

내일의 복지문제

복지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라 모두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안타까운 사연이 '진각복지 119 사업'에 접수되었다. 강원도 신북에 사는 김모 대상자는 47세의 지체장애4급 장애인으로 배우자 정신지체 2급, 아들 역시 지체장애인이며, 고교 1년생인 딸만이 정상인인 장애인 세대의 가장이다. 국가보조금과 월 50만원의 노임으로 힘들게 가정을 이끌어 오던 김모 대상자는 일을 끝내고 귀가하는 길에 다리 위에서 떨어져 척추탈구로 병원에 누워 긴급히 수술을 요하는 상황이다.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하면 영구적 사지마비가 올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이다.

복지서비스가 당연히 그러하여야겠지만 119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서비스 전달이다. 해당 기관과 병원 등에서 필수적인 서류가 갖춰지면 빠른 시일 내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확한 상황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대상자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지체할 수가 없어 마음이 조급해진다. 서둘러 현지의 사회복지사, 공무원, 병원관계자 등과 상담, 협의 후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얼마 후 의뢰기관에서 결과보고가 온다. 무사히 수술을 마쳤으며, 현재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본인의 의지가 강하여 치료에 적극적이어서 의료진도 힘을 얻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란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목적성이 확실하고 그 결과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김모 대상자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해결하고 도움에 만족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는 가난하고 소외된 특정인에게만 해당된 것인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복지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산업복지, 학교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등 그 대상과 분야가 사회 전반에 관련되어 있다. 최근 사회가 현대화, 핵가족화 되면서 사회는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이로 인하여 복지의 대상자도 주 소외계층이었던 빈민, 아동, 노인, 장애인에서 일반 시민들 모두에 해당되고 있다. 또 그 욕구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세상의 공기나 물, 태양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복지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 일부이다. 연일 뉴스에 보고 되듯이, 어린이 안전교통문제,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아동, 노인학대 문제,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주위에 해결해야 할 복지중심적 사회문제가 산적해 있다. 복지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의 일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실천해야 할 일이다.

지난번 대선 때만 해도 각 정당마다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많은 공약사항과 전문가를 앞세웠다. 그러나, 복지는 여전히 차선이고 뒷전이었다. '복지 대통령'이 건강한 국가를 건설하고 가장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제1의 공약이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을 복지현장에서는 고대하며 오늘도 발로 뛴다.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5300

직인 무효공고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4동 843번지

대한불교원효종 금수사 공용인감
(직인, 주지인)을 2003년 5월 11일부로
무효 공고함

불기 2547년 5월 11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송무진

‘일터불교’ 일구는 직장불자회 소모임

도봉 경찰서 ‘좋은 사람들’ 구성… ‘Give-5 운동’ 발판

대덕연구단지 경전연구회 결성… 연구분야와 연계활동

철도청불단협 불자회 후원회 ‘수자타’ 각종 재정 지원

자원봉사·후원회 등…이미지 제고·포교 효과도



그림/김영민

직장·직능불자회 내 소모임들이 일터불교 활성화를 일구고 있다. 이들 소모임은 기본적인 신행활동 동참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활동까지 벌이고 있어 직장불자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소모임은 자원봉사에서부터 불교 경전 연구, 가족 모임, 불자회 발전 후원회 등에 이르기까지 활동분야가 폭 넓어, 직장 내 불자회 이미지 제고와 포교 효과도 얻고 있다. 또 행사 때마다 공양물과 식사 준비 등 궂은일까지 도맡는 등 불자회의 원만한 신행활동을 돕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 불교회는 지난 2000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신, 신체, 물질, 시간 등을 5% 나누자는 취지로 ‘좋은 사람들’이란 봉사 모임을 만들었다. 매달 점심시간을 쪼개 인근 복지시설에서 활동해온 ‘좋은 사람들’은 경찰서 내 ‘Give-5 운동’을 추진케 한 계기까지 제공했다. 지금은 종교와 상관없이 50여 경찰이 회원이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 또 창원 두산중공업 법우회는 지난해 자원봉사 모임 ‘함께 가는 길’을 자체적으로 결성, 매달 경남 고성군 아동복지시설인 보리수동산을 찾고 있다.

경전 연구 소모임이 구성된 불자회도 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불자연합회는 올해부터 경전연구회를 결성했다. 경전연구회는 1천여 명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박사급 연구원인 점을 감안해 구성된 것으로, 회원들의 연구 분야와 연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가족모임이 활성화된 불자회는 철도청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와 월성원자력본부 반야회, 울진원자력본부 문수회 등이 있다.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가족들로 구성된 승만부인회는 지난 2000년 결성 이후 매월 한차례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법우회와 함께 정기법회를 열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 후원, 철도안전 운행 캠페인, 환경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는 올 2월에 불자회 후원회인 ‘수자타’를 조직했다. ‘수자타’는 노숙자 돕기, ‘철마는 자비를 싣고’ 행사와 철도대학 불교학생회 육성 등 그간 철불협이 벌어온 행사들의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구성된 소모임이다.

서울 도봉경찰서 불교회 봉사 모임 ‘좋은 사람들’ 고광선 회장은 “소모임 활동은 기존 회원들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 확보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직장불자회에서 소모임 결성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공불련, 황룡사지서 합동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경주 황룡사지에서 제4차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한다. 공불련 지도법사 도문 스님(대성사 조실)을 계사로 열리는 이날 합동수계법회에서는 합천 해인사 해인율원장 혜능 스님이 법문을 한다.

경불회, 2기 첫 중앙임원회의 열어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 경찰청 수사국장)는 24일 서울 경찰청 경승실에서 제2기 제1회 중앙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립 2주년 기념행사 결산 보고, 참불자 되기 운동의 실천방안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행자부 불심회, 성지순례법회

행정자치부 불심회(회장 신기윤)는 24일 충남 개태사, 수덕사, 간월암 일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날 순례법회에서는 회원 및 가족 40여 명이 참가해 신심을 복 돋우고, 불자회 소속감을 다졌다.

직장직능단체 의식집전 교육

조계종 포교원, 6~8월 6개 권역별로

직장·직능불자회 의식집전교육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오는 6월부터 두 달간 서울·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 6개 권역별로 ‘제3회 직장·직능불교단체 집전의식 교육’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진행돼온 수도권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 지역 직장불자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집전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바쁜 직장인인 점을 감안, 동일한 교육 과정을 이틀간에 걸쳐 두 번씩 진행된다. 또 한국불교대학생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등 해당 지역 단체장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신행단체 간 교류활성화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포교원은 직장·직능 불자회 법회 활성화와 안정적인 법회 진행, 법회의식의 통일화 등을 위해 불교의식에 대한 이해와 목탁 집전, 예불·정근·각종 법회 집전방법 등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교육한다. 강사진은 포교원 신도국장 지일스님, 총무원 총무국장 주경스님 등 각 지역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이 맡는다. (02)720-7060

집전교육은 6월 10일·13일 대전·충청권 교육을 시작으로, 8월 27일 서울·경기권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 <표 참조> 김철우 기자

집전교육 일정

지 역	일 자	장 소
대전/충청권	6월10일, 13일	대전 백제불교회관
광주/전남권	6월 12일, 13일	향림사 광주불교대학
전주/전북권	6월 24일, 25일	금산사 전북불교회관
대구/경북권	7월 2일, 4일	대구 동화사
부산/경남권	7월 10일, 11일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서울/경기권	8월 26일, 27일	서울 조계사

단체장



마곡사 등 三寺 성지순례

조남희 충북 옥천경찰서 법우회장은 25일 충남 마곡사, 수덕사, 장곡사로 성지순례 법회를 다녀왔다.



법주사서 합동순례법회

김진평 언론사불자연합회장은 6월 1일 충북 속리산 법주사로 정기 합동 성지순례법회를 떠난다.



정방사 등지서 환경법회

박우락 철도청 서울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장은 6월 2일 충북 제천시 금수산 정방사와 청풍문화재단지에서 ‘환경법회’를 봉행한다.



통도·운문·표충사 성지순례

이선희 한국세무사불자회장은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양산 통도사, 청도 운문사, 표충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우리불자회는요

경북도청 불자회

우리 경상북도에는 전국 문화재의 20%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문화재는 8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경주의 석굴암과 남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대로가 불국정토인 노천 박물관인 셈이죠. 이러한 풍부한 불교문화재를 찾아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봉행하고 있는 우리 불자회 법회는 항상 즐거움과 함께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불자회(회장 김영재 경제통상실장)는 지난 96년 1월 31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는 뜻을 가진 불자 150명이 모여 창립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도내의 사찰을 찾아서 법회를 가지면서 큰 스님의 법문과 함께 철야정진으로 신심을 북돋워 나가고 있습니다.

방생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면서 ‘자비방생’의 참뜻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언제나 방생법회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참으로 장엄하고도 뜻 깊은 자기 점검의 시간입니다. 금년 봄에는 경상북도와 시·군 공무원불자 500여명이 영천 은해사에서 모두 모여 새해 설계를 하는 뜻 깊은 신년대법회를 가졌습니다. 또 백흥암 참배, 거조암의 500나한을 친견하면서 올 한해의 소망도 빌어보았습니다.

사실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다소 행동을 제약하거든요. 또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처음 냈던 발심이 흐려지곤 했지만, 회원들은 모두가 이럴 때마다 더 큰 마음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법회를 가지면서 항상 우리 불자회원들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불교문화재 노천박물관… 그 의미 되새겨

큰스님 모시고 경전공부 신심 다질 계획



◇올 3월 문경 대승사 일대 경천댐에서 열린 방생대법회. 경북도청 불자회원들이 산천어 10만 마리를 풀어주며 ‘자비방생’의 참뜻을 새기고 있다.

지금까지 도청 불자회는 불국사의 회랑을 돌면서 33계단을 오르내리는 달밤의 제등행렬을 벌어왔습니다. 신라인의 신심 있는 모습을 재현해내는데 충분한 행사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가람인 안동의 봉정사, 영주의 무량수전에서의 법회는 우리 불자회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문화재로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피부로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종립선원인 문경 봉암사 희양선원에서의 참선정진도 우리나라 선불교의 맥을 느껴보는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뿐인가요? 매년 3월에는 봉화 청량사와 문경 대승사의 맑은 물에서 산천어(10만 마리)를 풀어주는 좀더 불교를 알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성지를 순례하면서 신심을 더욱 다지고, 수행 정진할 계획입니다. 운문사 승가대학이나 대구시내 불교대학을 찾아서 덕 높은 스님을 모시고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경북도청 불자회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제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300만 도민과 함께 호흡해 나갈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합니다.

■편창범 총무부장



'탱화'는 '불화'로 불러야 정확

고려~조선때 탱화는 '거는 그림'의 뜻

한국미술사교육학회(회장 홍선표)가 17일 개최한 제14회 전국학술대회 '미술사와 언어'는 어찌 보면 '상식 뒤집어 보기'이다. 현재 미술사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생성 과정과 정확한 의미를 재검토해 보려는 시도가 드물기 때문만은 아니다. 홍선표 교수(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는 "국내 미술사학자들과 미술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술 용어들은 대부분 근대기에 형성된 것으로, 용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畵·像·화불·繪像은 모두 불화 지칭

불교미술 분야에서는 '탱화(幀畵)'가 대표적이다. 이날 '불교미술 서술의 용어 문제'를 발표한 정우택 교수(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는 "탱화는 불화의 또 다른 명칭이라 할 만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불화의 화기나 문헌에 많이 나타나는 '幀(정)'이라는 글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탱(幀)'은 '불화(佛畵)'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화를 '탱화'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탱화' 대신 '불화'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다.

정 교수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불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게 '탱화' 또는 '○○탱'이다. 불화가 문화재로 지정될 때도 '○○탱'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정하는 문화재위원에 따라 '○○탱'과 '○○圖'를 뒤섞어 쓰기도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불화의 화기(畵記)와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탱'의 용례를 검토한 정 교수는 "고려~조선시대에 '탱'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거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사용됐고, '一幀'처럼 숫자 다음에 자주 쓰이는 것으로 봐 불화와는 상관 없는 '수량(거는 그림 한 점)'의 뜻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불화'를 지칭하는 뜻으로는 '畵(화)' '畵像(화상)' '畵佛(화불)' '繪像(회상)' '圖(도)' 등의 용어가 널리 쓰였다.

이에 대해 논평자로 나선 박은경 교수(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는 "'탱화'를 '불화'로 대체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불화의 분류나 유형화의 문제와 연관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화에는 탱화뿐 아니라 벽화나 사경화(두루말이 형의 경전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분류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탱화'는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인데, 우리 불화만의 독창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幀)'을 왜 '탱'으로 읽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조선전기 불화인 관경16관변상도(1465년 조성, 일본 智恩院 소장). 화기에 '존탱(尊幀)'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불화와는 관계없는 '거는 그림'이라는 뜻이라는 게 정우택 교수의 주장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소조불상 등 백제유물 다량 발굴

원광대, 익산 왕궁리 가마터 조사



◇전북 익산 왕궁리 와요지에서 출토된 소조천부상.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에서 흙을 구워 만든 불상 등 삼국시대 불교 관련 소조상들이 다량 출토됐다. 흙으로 구운 불상과 이를 굽던 가마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부터 익산 왕궁리 와요지(기와를 굽던 곳)를 시굴조사(정식 발굴 전의 시험 발굴) 중인 원광대 박물관(관장 최순택)은 16일 "지금까지 와요지로만 알려져 온 이곳에서 흙으로 만든 여래상과 보살상, 천부상, 악귀 및 동물상 등 삼국시대 조상(彫像)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조상 외에도 연화문 수막새 등 기와류 60여 점과 백제 벽화의 바탕재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벽판류 등의 유물이 함께 출토돼 백제시대 사찰 장엄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선기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익산을 경영한 백제 무왕대에 '제석사를 창건했으며 639년 불탔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곳에서 출토되는 기와와 소조상들은 인접한 제석사에 공급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토된 조상들은 완전한 형태는 아니고 길이 20~30㎝의 두상과 몸통, 좌대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두상의 우측 절반만 남아 있는 천부상은 고온으로 구워 회청색을 띠고 있으며 약간 두툼한 볼에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전형적인 백제 불상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통일신라 때의 고승으로 의상(625~702)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의적(681~?)은 의상의 문하에서 수학한 화엄종의 인물이 아니라 유식학을 공부한 법상종의 인물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열린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최연식(서울대 강사)씨는 '의적의 사상 경향과 해동법상종에서의 위상'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의적은 25종의 저술을 남겼으나 그에 대한 국내 기록은 '의상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라는 <삼국유사> 기록과 균여(923~974)의 <석화엄교분기원통초(釋華嚴敎分圓通鈔)>가 거의 유일하다. 이 때문에 원래 법상종 출신이었다가 의상의 가르침을 받고 화엄종으로 전향했다는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적 스님 의상의 제자 아니다"

최연식 씨, 현장문하 수학, 동료로 봐야"

최 씨는 주로 일본측 문헌 자료인 <유식의등증명기(唯識義燈增明記)>, <대승의림장(大乘義林章)> 등을 근거로 △의적이 의상과 만나기 전에 이미 중국에 신유식(新唯識)을 전한 당나라 현장(602~664)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의상이나 원효(617~686)와 동시기인 7세기에 활동했고, △신라 법상종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의적을 현장의 문하로 볼 경우 적어도 현장이 입적하는 664년 이전에 중국에 유학해 수학했다는 것이 된다"며 "의상의 경우 661년에 중국에 유학했는데, 670년 귀국 후 두 사람이 만났을 때에는 사제 관계라기보다는 대등한 입장에 있는 동료로서의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절(7)

통도사의 세 영역

영취산 자락에 포근하게 자리 잡은 통도사. 자장율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던 인도의 영취산을 신라 땅에 구현하고자, '이 산이 인도의 영취산과 통한다'는 뜻의 통도사를 건립하였다. S자형으로 구비치는 계곡을 왼쪽에 끼고 산 위를 향해 길게 자리 잡은 통도사는 언뜻 그 배치가 복잡해 보이는데, 다행히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상로전·중로전·하로전의 세 영역으로 분별하여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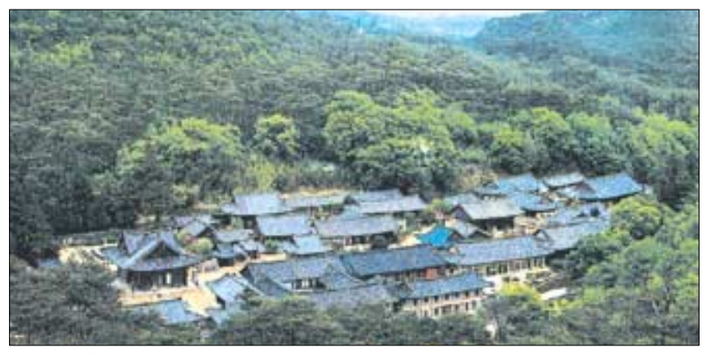
석파(石坡) 대원군(大院君)이 힘찬 대자(大字)로 쓴 '영취산통도사(靈鷲山 通度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일주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천왕문이 보인다. 구비치는 계곡의 지세처럼 약간 휘어진 길을 따라 천왕문에 다다르면 첫 번째 영역인 석가모니불의 공간이 펼쳐진다. 북쪽에는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에서 이름을 딴 영산전이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에 극락보전과 왼쪽에 약사전이 이를 호위하고 있다. 이 구역은 석가삼세불(釋迦三世佛)의 형식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불상이나 불화를 삼세불로 나타낸 경우는 있어도 건물로 보여준 것은 매우 드문 예이다. 그 앞에는 강당인 만세루가 막아서고 있어 전체적으로 'ㅁ'자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시 구역을 나누고 진리를 상징하는 불이문을 들어서면 두 번째 영역을 만나게 된다. 이 영역은 석가모니불의 영역과 그 배치가 전혀 다르다. 북쪽의 맨 끝에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대광명전이 있고, 그 앞에 미륵불을 모신 용화전, 또 그 앞에 관음보살이 계시는 관음전이 줄지어 있다. 대광명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용화전이며, 맨 앞의 관음전이 가장 작다. 마치 키 작은 순서대로 앞으로 나란히 하는 모양의 배치이다. 석가모니불의 영역이 'ㅁ'자형으로 안으로 모이는 형국이라면, 비로자나불의 영역은 '三'자형으로 밖으로 발산하는 모습이다.

마당 쪽으로 툭 튀어 나온 관음전은 자연스럽게 다음 영역과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앞을 지나면 바로 불사리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불사리의 영역은 통도사 창건과 관계되는 핵심공간이다. 통도사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과 그 오른쪽에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구룡지가 있다. 내부에 들어서면 금강계단을 향해서 옆으로 길쭉하게 벽체를 개방하여 금강계단에 예배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하지만 이 건물의 외벽에는 각 방향마다 금강계단, 대웅전, 대방광전, 적멸보궁으로 각기 명칭이 다른 현판이 달려있다. 정면을 취하면서 정면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쪽 방향에 얽매이지 않고 사방으로 열려있음을 상징한다. 정자각의 구조와 더불어 그 옆에 자장율사의 진영을 모신 건물의 입구도 삼문(三門)으로 되어 있어 조선후기에 유교건축이 사찰건축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통도사의 중심을 이루는 세 영역. 그것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공간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들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통도사의 다양한 건물군은 우리 건축의 보배로운 존재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통도사 전경. 왼쪽부터 불사리의 영역, 비로자나불의 영역, 석가불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가불·비로자나불·불사리 구역 안배

저마다 독특한 공간에 다양한 건물 배치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칭명합시다. 나무아미타불.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전국 염불만일회 2003년도 여름성지대회

대구팔공산 은해사에서 만납시다!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시다 -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1998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를 순례하였고 2003년도는 아래와 같이 대구 팔공산 은해사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3년 7월 27일 ~ 29일(2박 3일)
◆ 장 소 : 대구 팔공산 은해사
◆ 접 수 : 전화신청(동참금 60,000원)
◆ 신청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0
☎02)732-1215~7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2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봄반)
2. 교육장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3년 6월 4일(수요일) 오후 7시
4. 교 과 목	불교의 정의,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암, 당뇨, 혈압에 효과를 보이는"

차가버섯

차가버섯은 자작나무에서 자생하는 버섯으로

이 버섯이 처음 알려지게 된것은 구소련작가 솔제니친이 암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골짜기에서 차가버섯을 달여 먹었다는 "암병동"을 발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부터이다.

백두산, 개마고원, 오대산 등에서 자생하는 자연산이 약리효과 우수

한의학자 한영채 박사는 개마고원, 오대산, 설악산에서 자생하는 차가버섯이 외국산에 비하여 그 약리효과가 월등한것으로 유방암, 위암, 자궁암, 백혈병, 폐암에 다려먹으면 효과가 있으며 체계적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연치유력이 다른 물질에 비해 수백배에 달한다

면역력을 높혀 자연치유력을 높혀주는 황산화효소(SOD)가 일반 식물에 비해 월등하다고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마고원의 자작나무에서 차가버섯을 달여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암, 혈압, 당뇨등이 전혀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어 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암, 에이즈 및 당뇨를 치료하는 (책자 286P) 정가 12,000원
차가버섯의 실체와 응용

상담및주문 02)455-6944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콧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법회 기도

대한불교조계종
구 담 사
조상 태아 영가 · 천도지장도량
● 수시접수 中
● 태아영가 동자상 조성불사 中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031)533-2855

지장사 안내
영험이 대단하여 속 성취 됩니다.
전반적인 인생상담, 운세, 운명, 천도재 받습니다.
잘 사십시요.
02)981-8418
02)907-1643
018-325-8802

구인 구직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 북
054)638-24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비구니 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일을 기도하실 스님)
▷40세 이하
016)521-0003
054)975-0003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한전승인업체 설계시공 A/S 상담
남강기전 02) 338-04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54-1488

사찰과 부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읍니다
공양주보살님과 운전해 주실 처사님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합니다
▷제 주
011-692-5630
064)755-3131

60세이상 노보살공양주 모십니다
▷ 정 릉
02)917-3363

기도 스님 모십니다
(비 구)
055)385-4111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낼 보살님이나처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운전면허 1급 소지자 환영)
052)254-0125

비구니스님 모심
암자,포교당 같이 운영할 스님
(서울,의정부,양평,대전)
▷25~40대
011-204-2522
02)2201-079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수미산 불국사
031)719-0408
대한불교 조계종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약천사
031)532-73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세까지
▷월 보시 80만원
(목욕비 지급, 월 3박4일 휴가)
▷경북 청송
▷대한불교 조계종
054)872-4183
011)810-0698

조용한 산사에서 후원일하며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사실 보살님 모십니다
063)535-6800
보림사

공양주 및 처사 구함
▷숙식가능
▷처사는 농사가능자
▷경남 창원
011)735-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9989-0273

신심있고 건강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처사님도 구함)
▷ 지리산
011-315-3041
011-483-5639

원하시는 기간동안 기도해 드립니다
(비구니)
019-357-5009

易 수강생 모집
무료 공개 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듣기만 해도 암기됨, 감명비법공개
★사주프로그램 공급 ☞ 신살 암기 안해도 됨
◆ 초보, 전문, 속성반 ◆ 명리, 육효, 성명, 택일...
◆ 사주로 영가찾는 법, 개운법 (흉을 길하게)등
※ 창업,취업,전화상담 가능, 자격증 발급
효천역리학당 ☎(02)2236-2284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알림 정보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금 화 사 · 법명 : 법 혜
· 주 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43-1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풍이 맞지않아 대한불교 법왕종에서 탈종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5월 28일
대한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법하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운세..통화 즉시 잘 맞추면 보세요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02-826-5067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명리학으로 찾아드립니다. 굿,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일체 안합니다
• http://www.speedunse.com 에서 핸드폰 / 신용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기도도량 정 각 사
주 지 정 암
신 도 일 동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후동
061)835-2879

동양학 수강생 모집
고금의 역학자료를 구비 동도들의 학문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본원에서 다음의 강좌를 개설합니다.
◆ 개강일자 : 7월 1일(주1~2회 강의)
◆ 강의실관계상 각 과목당 12명만접수
☉ 태 을 : 무료 강의 – 업태문선생 (교재구입시 1년 강의)
☉ 풍 수 : 월 10만원– 허정수 선생 (6개월과정)
☉ 명 리 : 무료강의– 업태문 선생 (3개월과정)
☉ 육 효 : 월 10만원 – 소명호 선생 (3개월과정)
역학도서관 www.edoseo.com
02)3673-3403 / 011-229-2801

사주명리학 수강생모집
☉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방위 · 적성 · 기타
☉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출장강의도 가능함)
☉ 주 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료후 부업, 개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 제공
(배우실 분 수시모집,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국 명리 교육원
02)336-8484. 335-4847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 법 흥 사
(전남 종무원)불교범패연구원
원 장 지 운
주 지 우 하
신 도 일 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1038
전화 062)944-1561

道法(易) 전수
인간사 모든 문제들을 묻는 즉시 답할 수 있고 배우는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질병 치유는 물론 運을 좋게 할 수 있는 道法(易法)을 전수합니다.
易.氣功 교육원
02)3446-4118

이화 기와 공장
청기와. 한식기와
세멘기와. 칼라함석
041)554-0112 / 011-9820-0112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옆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佛教儀式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제 1기]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
▶ 기본기초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광쇠, 북) 다루는 법
1) 새벽도량석 2) 종성 3) 상단예불 및 행선축원 각단예불 및 불공의식
▶ 중급반(3개월) : 49제 의식, 시식, 배송, 구병시식, 전점안법, 상가염불 다비편, 천도 또는 , 49제 영가축원 쓰는법, 전, 지의, 위패 만드는법과 쓰는법
▶ 작법반(6개월) : 천수바라, 도량게(나비춤), 요잡바라, 법성게바라, 관욕바라, 화청
▶ 작법속성반 (수강시간을 연장하여 빠른시일 내에 완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합니다)
※ 매회 강의한 의식을 녹음하여 무료로 드립니다.(단, 법요집은 유료)

모집인원
▶ 각 과별 30명(선착순)

수강신청기간
▶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20일간)

수강신청방법
▶ 본원을 직접 방문하시어 준비된 수강신청원서에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 반명함판 사진 3매(3×4), 주민등록 초본 1통을 본원 종무소에 제출하신 후 수업일정표(시간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개강일
▶ 2003년 5월 26일(월) 오후 2시

■ 자세한 문의는 교육원 전화 053)955-7725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위치는 신암육교부근, 주차시설은 수협 대구공판장 주차장 이용가능
※ 본원은 초종파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법음 ·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원 교육을 졸업 이수한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 성불하십시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2층)
대구불교의식 법음 · 범패 교육원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빙의된 중생에게 영가가 왜 왔으며,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제3자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것이 영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가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뒤우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가위눌림이나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가를 제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입는 모습
◆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가가 떠나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 고통받는분 특별 상담
무병 · 신병으로 고생하는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 못이루는 분,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대 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 시 : 인원 수시 접수
02)556-5590, 554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달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100% 경면주서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풍명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글자 용자)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 (달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특별보시!
홍대미술대학원 졸업 서울미술문학상 수상
전통반야심경 · 전통사경 전수 무료 직접지도(매주 금요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ungangsa.co.kr E-mail unjang21@kornet 21. net
※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희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 위치 : 충남천안	• 위치 : 경기가평
• 법당 : 36평	• 법당 : 25평	• 법당 : 15평
• 요사 : 150평	• 요사 : 95평	• 요사 : 40평
• 부지 : 755평	• 부지 : 300평	• 부지 : 1890평
• 가액 : 25억	• 가액 : 3억 7천	• 가액 : 10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현판 주련 서각 화각

天心書刻 一雲 金昶煥
전통서각 수공예 제작
TEL 031 · 633 · 1011
FAX 031 · 634 · 7275
H·P 011 · 269 · 2353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서울 포교당
● 면적 : 60평	● 면적 : 35평
● 법당 : 25평	● 전세 : 5천만원
● 요사 : 50평	● 교통요충지, 옥상사용가능
● 가액 : 3억	● 철학관으로 최고적지임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大육임 수강생 모집

오행운명가(五行運命家)활인역자(活仁役者)로서 참 진인(眞人)이 되기 위한 필수학. 인사만단의 오천년(五阡年) 비전 육임학

참고교재 六六六六六六六 壬壬壬壬壬壬壬 大探類秘精神 全原聚玅解課

본 학회는 정통 육임학 이수자에 대한 수강인 선별을 통한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정통이론과 실제임상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실사구시의 강의. 초급반, 지도자반을 별도 구성하여 강의 합니다.

문의처 : 02)393-2471 난강학회(欄江學會) 登明 서 정길(徐 正吉)
강의처 : 지하철 2호선 이화여대역 3번 출구앞. 난강학회
www.nankang.co.kr

사찰안내

- 위치 : 성남시내(지하철역 10분)
- 부지 : 10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양도가 : 5억
- 계곡 및 산세 좋음
- 위치 : 서울시내 강북지역(전철 10분)
- 대지 : 180평
- 법당 : 40평
- 요사채 : 80평
- 양도 : 10억
- 역사깊은 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천도재, 불공 등 임시로 스님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참을 수 없는 통증

어떠한 병증세에도 골반용명 압찰법과 함께하는 기공치료로 치유될 수 있읍니다

02)924-9904
011)254-0784
태극기공치료원
거사 해암 합장

상 담 환 영
개 인 지 도
스님할인혜택

포교당 안내

- 청주시내 위치 좋음
- 3층 건물 중 2층, 실평 50평
- 법당, 큰방3, 거실, 주방, 샤워실
- 보증금 2천만원(절충가능)
- 시설비 : 1천5백만원(시설완벽)

043)272-0147

수련원 안내

- 경남 함양군 백운산
- 토굴, 수련원 적합
- 터 1만5백평, 대지 200평, 가 32평 포함
- 차량진입, 연못, 전기 · 전화 유
- 산세수려, 전망수려함
- 평당 2만원

055)943-7879

민속불교백화점 (체인점도 모집합니다)

금불상, 목불상, 옥불상, 금탱화, 서적
승복, 신복, 유기, 도자기, 농악복일절
북, 장구, 재징, 매구, 민속국악기일절

전국 어디든 체인점 개설을 지원합니다.
노후 생활에 최고의 사업을 원하십니까.
년 1조원시장에 달하는 불교 / 무속용품 체인점
사업본부에 문의바랍니다.
전 화 : 031)480-4848, 031)417-4848
팩 스 : 031)480-8549

사찰안내

- 위 치 : 부산
- 대 지 : 950평
- 법 당 : 45평
- 요사채 : 80평
- 가 액 : 15억

※교통 편리. 주변 송림

<토굴>
- 위 치 : 지리산 청학동
- 대 지 : 350평
- 주 택 : 30평(2동)
- 가 액 : 7천

※ 마을 상단 촌집 차진입

<포교당>
- 위 치 : 부산
- 크 기 : 80평(2층)
- 법 당 : 40평
- 전 세 : 4천(월 90만원)
- 권리금 : 절충

※지하철 출입구 부근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신도시. 앞뒤로 아파트단지. 주엽전철역150m
- 3층 건물중 3층, 25평, 방 1개
- 시설 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3백만원
- 철학관으로 적합

031)919-0306
011)9701-0603

계곡암자터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 중감마을 → 약1km
- 계곡 암자터
- 논 496평
- 가액 : 1500만원

011)9393-4965

포교당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큰대로변 4층 건물중 3층
- 평수 : 37평
- 시설 : 법당,산신각, 방, 주방,창고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6)288-5896
02)995-5896

암자토굴별장

- 위치 : 대구 포항간 산업도로 영천 IC에서 신령 안동방면 900m (영천시내 인접)
- 산수수려, 주차공간 넓어 투자가치 최고임
- 건물 : 철골조적 1,2층 (2층 원룸) 양옥 68평
- 가액 : 1억 3천 (가격절충)

054)337-3996
011)529-3996

스님 · 불자님 고민 삼환이 해결해 드립니다

임법당, 요사채, 신축 및 보수, 조립식 부속건물 신축, 동기와, 토기와, 비새고, 허물어진 토굴, 칼라성형강판으로 교체, 70년 보장. A/S 확실
전국 어느 곳이나 무료견적 시공 상담.

삼환 주택 개량 공사
경북 사무소 : 054-292-7613
울산 사무소 : 052-262-0601
휴 대 폰 : 011-9307-0609

사찰(토굴)안내

● 위 치 : 신림동	● 위 치 : 서울
● 부 지 : 60평	● 부 지 : 1800평
● 법 당 : 2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32평	● 요 사 : 60평
● 가 액 : 5억5천만원	● 가 액 : 6억5천만원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옥포 미진타워앞 옥포뱃머리 도보1분
- 평수 : 80평
- 전세 : 4천만원, 월 40만원 (시설 상담후 절충)

055)687-6700
016)254-2007

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주)진로농장
- 특징 : 진주에서 30분거리
- 지리산 자락의 석대산을 병풍처럼 두른 정남향의 부지
- 농지전용부담금 1/10.
- 토목공사완료
- 부지 : 3천 7백평 (준 농림지) 매 평당 5만원

011)9307-831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도 승마공원 입구
- 부지 : 1,293평
- 건물 : 53평, 25평, 17평 3동
- 서울에서 50분거리
- 특징 : 산세수려, 전망좋음
- 가액 : 3억 8천만원

※ 부지 1만평, 평당 7만원사찰터도 있음
031)533-242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장림1동 장림1동 동사무소 맞은편 3층
- 평수 : 76평, 법당 30평, 방5개 (지장보살, 동불)
- 보증금 5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 가격 절충(시설)100%

051)261-0208
055)336-0108
011)9534-6522

포교원 운영하실분

- 대구시 북구 칠곡3지구 대단위아파트단지 소재 조계종 포교원
- 4층 신축건물의 4층 : 층당 100평
- 법당1, 승방2 : 총 62평. 후원채 수각장 : 총 12평
- 보증금 8천만원, 월세 50만원 (임대10년 계약중 1년 경과)
- 건물 등기부상 일체 하자 없음. 포교원 조건으로는 최적지. 인복이 많고 기도와 경전교리에 밝은 분이 오셔서 대중포교에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사항은 추후논의.

053)326-4317 / 011)9315-0554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 방향 바꿈, 건물 멀리 옮김,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서까래, 기둥 등, 썩은 곳 교체
신축 및 기와 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대표 : 姜忠 (주)고도건축
대구시 동구 각산동 389-2
053)964-0858 · 011)804-1748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제일 요지 포교당
- 신축 빌라 24평
- 방 3개, 법당
- 가액 : 융자안고 2400만원
- 내집마련 겸 포교당 적합
- 권리금 없음

032)541-9428
011)9642-1202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 105번(바닷가 옆)
- 대지 : 507평 법당 (2층), 28평(1층) , 방 2개
- 요사채 36평, 공양간 및 방
- 가액 : 2억 8천만원(조정가능)

011)609-1106
011)9611-2717
야간 : 062)529-271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시 대포동 서울서 45분거리 이천시내서 5분거리
- 2010년 전철 완공
- 대지 : 188평, 법당 23평, 요사 37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142-3737
031)634-2136

사찰안내

- 위치 : 안양시 안양2동 18-34
- 대지 : 60평
- 건평 57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31)473-8896
017)351-8896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 해수욕장 옆
- 평수 : 55평. 법당 1, 주방 1, 방 4, 화장실 2
- 주차장완비, 포교당위치 최고A급.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상담후 결정
- 스님 사찰 불사관계로 이사감

011)595-1522/051)759-9058

포교원(급)안내

- 면적 : 35평(공양간별도)
- 전세 : 3천 5백만원, 월1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장엄 화려함. 즉시 법회 가능
- 주지스님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51)504-1991

토굴별장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각북면
- 평수 : 130 여평(텃밭 있음)
- 한옥 2채(방6칸) 40평
- 식당채 보일러 시설 정진방 나무때는 부엌
- 비구니 스님이나 노부부 모실 분 적당함
- 가액 : 4200만원

011)415-555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부산 전철 종점에서 15분 거리
- 건물 : 법당 20평, 요사 30평, 산신각 3평
- 특징 : 도심근교 기도도량
- 가액 : 3억

011)543-8230

사찰 안내

- 광주광역시 남구(시내권)
- 3층 법당, 1-2층 요사채
- 법당에 있는 불구(미륵불 포함) 일체 포함한 가격
- 가액 : 2억3천만원

019)602-4730

사찰터 안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피아골 지리산 블락사 사찰 입구
- 뱀나무가심어진 2차선 도로접
- 5천 5백평
- 가액 : 9천만원

016)572-1491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전주 • 완주 지역
- 부지 : 1,020평(대지 500평)
- 건평 70평, 3동
- 가액 : 3억 5천만원
- 특징 : 산세수려, 계곡있음 중개인사절, 주인직접

016)9676-6545

토굴 암자 별장

- 위치 : 경북 봉화 현동 구마동 계곡
- 산세 수려, 전망 좋음.
- 흙집 2동, 자작나무 2000그루, 정원수
- 평수 : 2,194평, 대지 180평
- 가액 : 1억 2천만원

011)9433-539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동암역3분(부평 인근)
- 빌라 22평(방2, 거실, 주방등)
- 법당 시설 A급(즉시 법회가)
- ※ 급한 사정상 살림일체 양도
- 급매 2700만원(융 4500만원별도)

016)362-2828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소재지
- 임법당 20평(신축), 연꽃연못 100평, 정원수 밭 200평, 합 320평
- 옆산 5000평 사용가능
- 가액 : 1억(D.C 없음)

017)813-9126

사찰 양도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소재 5분거리
- 대지 : 527평
- 건평 : 113평, 법당 (27평)
- 사무실, 요사, 주방, 고시원, 방 18개 운영
- 가액 : 답사후 결정
- 교통좋은 산을 낀 취락지정 시가지의 요충지

031)643-9051
019)375-9051

암자별장 및 토굴안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부근
- 부지 : 280평, 임법당 22평
- ※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이나 일반인
- 가액 : 1억 2천만원

016)293-4341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팔공산파계사근교
- 대지 : 306평
- 목조 건물에 법당, 요사채 사용 가능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팔공산 순환도로에 인접
- 가액 : 3억(답사후 가액조정)

053)985-9824
017)522-5544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 안양
- 평수 : 40평
- 법당 : 20평
- 사무실, 주방, 대기실, 방1개, 상담실
- 보증금 1500만원, 65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031)425-7987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평창군 하일리
- 대지 : 80평, 전 100평. 건물 30평, 현대식 건물
- 차량 30대분 주차장 확보. 야외 기도처 2곳
- 특징 : 암벽굴, 법당앞 계곡
- 가액 : 6천만원

016)806-6378/02)2636-6378

부산 경남권의 사찰 전세 원합니다

018)555-573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시내 위치
- 대지 : 40평
- 법당 : 10평
- 산신각, 칠성각
- 요사채 : 30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581-604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 남한산성 전철역부근 3층 건물중 2층
- 법당 20평, 방1, 도시가스
- 삼존불, 부처님 3분, 후불,신중
- 보증금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 7백만원

031)732-0471
016)265-2762

암자 안내

- 충북 단양에서 영월사이 산세좋고 물좋은 소백산 밑
- 임법당 22평중 방3개, 주방1개, 욕실 1개, 산신각 5평 1채
- 평수 : 전 2460평
- 평당금액 38000원
- 주인보살 직접, 절충가능

043)648-6422
011)9408-6422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서산시 가야산 한서대학 근접
- 부지 : 1500평 중 600평사찰허가 토목공사, 조경, 전기, 자연수, 자연석돌 많음
- 가액 : 2억

017)341-9967
017)341-696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에서 2분거리
- 평수 : 빌라 2층 40평
- 법당 : 25평, 방 2, 주방 1
- 가액 : 1억 2천만원(평당 300만원)
- 대작불사관계로 인연있는 분을 모십니다.

051)512-0437
016)574-043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금강 식물원 밑) 주차시설 완벽
- 법당 : 2층 47평 (종무소, 주지실, 화장실)
- 호불 500불, 연등1000개, 인등단, 영가단, 최고급 닷집(단청필)
- 공양간 : 1층 25평(화장실, 방1) ● 입주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51)517-1860/016)444-575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2층 2층 건물 (독채)
- 법당 40평, 방1개, 상담실, 화장실, 주방, 샤워실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물 일체 2천7백만원

011)356-694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 좌청룡 우백호 옆좌면은 일월산 능선이 바라보이고, 앞강과 큰국도 뒷산은 그림같은 최고의 정원 꽃과 바위속 터전 이만합니다
- 전 : 약 700평(터 공사중)
- 가액 : 6천 3백만원

016)507-3002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제천시(시내중심가)
- 법당 20평(2층), 요사채 25평(1층) 방5, 창고1, 화장실2, 대지45평
- 시내중심가변에 위치. 교통편리. 삼존불 봉안. 도심포교에 능한스님. 철학하시는 스님. 시내토굴로 사용하실 스님. 좋은 위치에있는 사찰임. 시설완벽함(모든 시설및 모든 지원) 뒷산은 공원
- 주지스님 급한 사정으로 양도함
- 가액 : 9천 5백만원

019)9282-40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구월동
- 건평 : 80평, 방 3개, 사무실 1개
- 5층 법당, 옥상 가건물을 대중공양으로 다씀
- 주지스님방 ,화장실,욕실 완비
- 법당, 요사채,방온풍기,에어콘완비
- 보증금 3천만원 , 월 15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

017)738-4349

사찰(급) 안내

- 매입자 및 사찰운영자 구함
- 행정수도예정지 인접
- 서울서 1시간 거리
- 경부 IC에서 5분거리
- 전통사찰 건축 양식
- 주변경관수려(관광지 인접)
- 가액 : 8억원
- 사찰운영자는 절충하여 결정

011)9134-6723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방계리390
- 대지 : 200평, 밭 700평
- 임야 : 약 200평
- 법당 1개(기와), 아랫채 2동
- 가액 : 1억(가격 절충)

055)366-1619
054)833-4492(안내)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장 (금강 식물원 밑) 주차시설 완벽
- 법당 : 2층 47평 (종무소, 주지실, 화장실)
- 호불 500불, 연등1000개, 인등단, 영가단, 최고급 닷집(단청필)
- 공양간 : 1층 25평(화장실, 방1) ● 입주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51)517-1860/016)444-5758

사찰기도터(급)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지방도 지정 문화재 미륵마애불이 옆자리에 위치한 기도터입니다. 현재(종교부지) 건축허가 나있습니다. 소납이 사정상 정리하려고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주시고 왕림하셔서 불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011)742-5925 / 043)422-1666

목어

내년 초파일에는…



김징자
언론인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구어 냈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올해 들어 세계적 문화 예술 공간으로서의 가능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면 공연장 자체의 예술적 향기와 음향 효과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봄 빈 필하모니의 월드컵 경기장 공연 성공으로 경기장은 이제 훌륭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어 5월에 열린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국 장예모 감독이 연출한 이 대형 오페라는 중국 자금성의 두 배가 넘는 세계 최대의 궁궐을 경기장 무대에 설치함으로써 규모면에서 세계적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공연물로서도 성공했다. 그 뿐인가. 가을에 있을 초대형 오페라 베르디의 '아이다'도 벌써부터 음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성공은 국내 음악계도 자극,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이나 헨델의 메시아 공연이 거론되기도 한다. 유럽은 물론, 이웃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해마다 합창 교향곡의 합창 인원수를 늘려 몇 천 명 규모의 합창 공연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꺼리가 아니다.

아쉬운 것은 모두가 외국문화의 대형 공연물들이며 관람은 내국인 중심이라는 점이다.

월드컵 경기장 공연물로, 세계인의 관심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한국의 문화예술은 없을까. 그 공연, 또는 행사를 보러 세계인들이 일부러 이 땅을 찾게 하는 그런 것은 없을까.

한국의 장엄한 불교의식과 불교문화 예술을 그 대형 공간에 올려보면 어떨까.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세계인과 함께 하는'이라는 수식이 꼭 붙는다. 내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불교수행이 인간 행복감 증진

불교 명상수행이 뇌의 반응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됐다고 영국 '더 타임스'지가 22일 보도했다. 미 위스콘신 주립대 연구팀은 불교신자들의 뇌파를 수년간 조사한 결과 기쁨과 행복, 침착, 만족감 등을 주관하는 왼쪽 뇌의 움직임이 다른 종교의 사람에 비해 이례적으로 활발하며, 불교식 생활습관은 평상시에도 뇌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장군죽비

체육대회 하느라 삼보일배 천막철거?

농림부가 오후 6시부터 산하단체 체육대회를 연다며 삼보일배단에게 천막 철거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삼보일배 54일째인 20일, 삼보일배단이 과천청사에 머물기 위해 청사 운동장에 천막을 치자 농림부가 오후 6시부터 산하단체 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 문제가 커지자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부랴부랴 체육대회를 열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



불자 세상보기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건강한 종교의 조건

종종 일어나는 일이지만 요즈음 또 한 사교집단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그런 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종교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다. 바로 당신이 그러한 터무니없는 사교의 광신자가 될 수 있다.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변하는 세상에서 내일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안고 있지는 않은가? 병이라든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여, 이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묘수를 밤낮으로 갈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로또' 열풍을 보라. 당신도 당첨되어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편하게 살고픈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은 없는가?

그렇다! 사교가 번지는 토양은 바로 거기다. 이 끊임없는 불안과 고통을, 힘 안들이고 한번에 날릴 수 있는 묘수를 갈구하는 마음이 사교의 뿌리이다. 자신의 정당한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도, 차근차근 쌓아가는 지루한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이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유혹. 쉽게 뿌리칠 수 있다고 말하지 말자. 더구나 급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즉석의 효험을 보이는 기적 비슷한 체험을 사교가 준다고 하면….

사교에서 벌이는 짓이 모두 사기라고 말할 수도 없다. 모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사교를 믿고 낫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기에, 마음이 한군데 모이고 안정되면 기적과도 같은 치유력을 보일 수 있다. 쥐에게 물렸을 때 "만석!"하고 외치면 정말 만석꾼 부자가 된다는 말도 있다. 쥐에게 물리는 펄쩍 뛸 상황에도 "만석!"을 외칠 만큼 부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면 왜 부자가 안 되겠는가?

문제는 사교가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는 병든 정신으로 이끈다는 데 있다. 건강한 종교라는 것은, 일반인의 가장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삼더라도 차츰 보다 높고 열린 경지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위로 열린 통로가 막혀버리면 모든 종교가 사교로 된다. 불교는 업(業)의 사상과 완전한 대자유인 해탈(解脫)의 가르침을 통해, 기독교는 신의 뜻에 따르는 존재가 되라는 가르침을 통해 오히려 저열한 욕망의 추구를 뛰어넘게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교의 끔찍한 범죄를 개탄하기 이전에 종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만 한다.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을 섭수하면서 항상 보다 크고 높은 경지로 그들을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걱정이 되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거대 종교의 말단에는 사교라고까지는 아니라고 위안해서는 안 될, 한 걸음만 나가면 사교로 변질될 독버섯과 같은 요소들이 도처에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차하면 사교로 달려갈 준비가 될 정도로 불안과 고통에 헤매는 사람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근본을 치유하는 종교, 그러한 이들의 고통에 항상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는 종교, 그러면서 그들을 보다 높고 열린 세계로 이끄는 건강한 종교가 우리 사회를 이끌도록 종교인들이, 종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참여불교의 현실과 전망'

최근 불교시민운동이 양적인 성장을 함에 따라 불교계의 활발한 사회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불교포럼'은 이와 관련,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동산불교회관에서 '참여불교의 현실과 전망'이란 주제로 제25차 열린토론마당을 갖고 참여불교의 흐름과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는 박광서 교수가, 토론에는 이정호, 이주원 씨가 각각 나섰다.<편집자>



◇불교포럼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참여불교의 현실과 전망'이란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보살행, 수행 통일된 활발한 참여 요구

▧ 박광서 교수(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불교적 사유·철저한 현장주의 전제

20세기 아시아에서 등장한 참여불교는 '깨달음'과 '보살행'을 함께 추구하는 대승불교 전통을 새롭게 계승하고 있다. 특히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불교 전통은 생활수행과 사회참여라는 현대적 용어로 새로 정립됐으며, 이를 나눠 보거나 단계적으로 보지 않게 했다.

이 같이 국제적인 참여불교운동은 사회와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철저히 보편성으로 접근해 해답을 찾으려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또 실제 현장에서 중생고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기성교단과 달리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을 개척했다.

하지만 90년대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급속한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 한국불교의 사회참여운동은 미약하다. 한국불교가 그간 가람불사 위주로, 정작 교육·복지·시민사회운동과 같은 '참여불교'에는 너무도 인색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참여불교의 두 가지 전제, 즉 '불교적 사유로 세상을 해석하고 해답을 내어놓는 것'과 '철저한 현장주의'란 잣대로 보면,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출가정신부터 회복돼야 한다. 그것은 초발심으로 돌아가 대승불교 정신을 확인하는데서 출발한다. 불교의 사회적 기능 회복 또한 사부대중 모두가 불법의 대승적 재해석과 보살도를 실천하는 참여불교에서 찾아야 한다.

▧ 이정호 사무처장(인드라망 생명공동체)

무아·연기적 생활 풍토 필요

참여불교의 등장과 배경은 20세기의 식민지 해방과 국가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이 바로 참여불교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성 운동세력이 보였던 '선 구조혁명, 후 개인혁명'이라는 구분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참여불교의 두 축은 '사회적 고통의 문제'와 '일 속에서의 수행'이다. 첫째,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고통에 참여할지 선택해야 한다. 기존 한국사회의 주된 사회적 고통은 '민족과 계급'에 의한 갈등이었지만 현대사회는 '환경, 생태계, 에너지' 등으로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즉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 대안이 무아·연기적 견해를 견지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수행론이 정립돼야 한다. 전통 수행전통이 '깨달음을 향한 개인 노력'의 측면이 짙다면, 일속에서의 수행은 일상과 떨어진 '그 무엇'으로 여기지 않고, 수행론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구체적인 '삶의 과제'로 여기는 자세와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참여불교 운동이 최근 출범한 조계종 참여종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두 가지다. 현재까지의 가치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를 하는 것과 새롭게 제시되는 사회적 가치와 불교전통 가치와의 조화라고 본다.

▧ 이주원 소장(아침을 여는 집)

'경험' 전제없는 참여 관념일 뿐

참여불교의 정체는 무엇인가. 박 교수는 달라이 라마와 틱낫한 스님의 이념을 빌려와 참여불교를 보살행과 수행의 통일로 정의했다. 또 사회적 실천에 무게를 실고 보살전통만 강조한 민중불교와 실천불교와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간의 차이점은 사유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민중불교는 사회구조 개혁에 중심이 있는 반면, 참여불교는 고통의 밭인 기존의 사회체제를 건드리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불교는 보살행과 수행의 통일이라기보다 수행, 마음의 평화만 강조하는 불교라고 본다.

한국불교는 우리시대의 고통을 얼마나 힘든지 철저히 현장에서 경험해야 한다. 여전히 현실을 사는 대중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 가톨릭과 개신교 등은 현실의 고통을 경험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먹고 살며 정의롭지 못한 현실과 투쟁했다. 한국불교는 이 점을 유심히 봐야 한다. 그러나 박 교수가 제시한 참여불교의 두 가지 조건 중, 실제 현장에서 중생고를 치유하는 '현장주의'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불교는 우리시대의 고통을 경험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사회의 현실을 말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많은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말해야 한다. 말만 해서도 안 된다. 경험해야 한다. 경험이 전제되지 않는 참여는 관념일 뿐이다. 이래야만 참여와 불교의 윤리 실천이 나올 수 있다.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값 2,500,000원
기존 혁식판과 교환해 보실분은
값 800,000원

육임래정비법「휴대용」각 순(旬)별 6권 증보발간 안내
「효사육임강의록」증보판 上 下권 무료 교환신청접수 안내

육임래정비법 일어판
값 2,720,000円
일본 판매 개시
(5월 15일부터)

본「육임강의록」하(下)권 국수편을「시간별 래정」과 함께

1. 갑자순(甲子旬) 10일치 1권
2. 갑술순(甲戌旬) 10일치 1권
3. 갑신순(甲申旬) 10일치 1권
4. 갑오순(甲午旬) 10일치 1권
5. 갑진순(甲辰旬) 10일치 1권
6. 갑인순(甲寅旬) 10일치 1권

씩 6권으로 나누어 얇게 제본하여 우리 활인천역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수해설과 정단별 류신구분 및 초사와 귀신침범여부 등을 포함한 본 강의록 하(下)권을 그대로 옮겼으며, 크기는 종전의 휴대용과 같은 가로 155m/m × 세로 105m/m이고 권당 두께 20m/m입니다.
종전의 휴대용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내용면에서도 본서에 비해 훨씬 떨어지므로 이번 이 책은 가히 육임래정의 완성편을 휴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값은 310,000원이고 단, 본 강의록 이나 수정보완본 또는 혁신판 등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보내 드리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강의록은 공익법인한국육임학회 회원 및 부설 전국 육임학당 교재로 사용되어 오던 것을 증보시킨 것입니다.
■ 기「강의록」을 구입하신 분은 교환신청하여 새책을 보십시오. 무료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육임강의록 (上) 권 증보내용(기존 내용 外)
- 사복법 一 · 二
- 부정빌미 원인(原因)
- 병인(病因) 병증(病症)
- 육임고시(考試) 문제집
- 육임백법(百法)
- 임상사례 모음

◆「사복법 一」의 항목(예)
① 저안에 물건이 들었는가 비었는가?
② 저안에 든 물체가 죽은것인가 산것인가?
③ 저안에 든 물체가 살았다면 무엇인가?
④ 저안에 든 물건의 품질은 어떤것인가?
⑤ 저안에 든 물건이 새것인가 헌것인가? 壯한가 老한가?
⑥ 저안에 든 물건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것인가?
⑦ 저안에 든 물체의 안색은 어떤 색인가?

육임강의록 (下) 권 증보내용(기존 내용 外)
- 국수해설
- 길흉성부단정항목 1쪽으로 독립
- 육임판단순서
- 정단별 류신(類神)구분
- 초사(初辭)
- 귀신침범여부

◆「사복법 二」는 사람의 신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⑧ 저안에 든 물건은 먹을수 있는것인가, 못 먹는것인가?
⑨ 저안에 든 물건의 맛(五味)은 어떤 맛인가?
⑩ 저안에 든 물건(돈)은 몇개, 얼마인가?
⑪ 돈이 오른쪽에 들었는가 왼쪽에 들었는가?
⑫ 저안에 든 물건이 계절이 지난 것인가 현 계절의 것인가? 다가올 계절의 것인가?
⑬ 저안에 든 물건이 쓸 수 있는 것인가 쓸 수 없는 것인가?
⑭ 저안에 든 물체의 속 색깔과 겉 색깔은 어떤색인가?
⑮ 저안에 든 물건이 한가지 인가 섞여 있는가?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육임학당 효사숙」강의 안내
효사숙 제 6기 강의를 시작 합니다.
오는 6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이고, 오행기초, 기본강의는 3시부터 2시간 사전 교습받게 됩니다.
본 3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본회 회원 자격으로 매주 수요일 5시부터 3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육임 고급실기강의 를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교재는 효사육임강의록 증보판 上 下권 (값410,000)을 드립니다.
등록비는 1백 5십만원이며 5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단, 활인천역자로서의 그릇 여부를 판단, 선별하여 등록을 받습니다.

▶ 주문 전화 02) 993-8680 ● 본 휴대용 값 310,000원 ● 본 강의록 상·하 값 410,000원 ● 육임래정비법CD 2,000,000원 ● 육임신수비결 300,000원 ● 육임강의 비디오 900,000원
▶ 현금입금 후 전화요망 / 2일이내 도착 배본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마음의 귀 열고 생명의 소리 듣자"

녹색평론 등 50여 단체 · 교사 · 시민 등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 대토론회 개최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가 주관한 '생명의 대안은 없다' 대토론회가 19일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열렸다.

"막막하다. 이제 생명운동, 환경운동은 성직자들이 길거리에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불편과 가난을 선택하고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갖지 않으면 생명의 대안은 없다."

19일 부산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열린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한 전국 생명연대의 '생명의 대안은 없다' 대토론회에서 김종철 녹색평론 대표는 환경과 생명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녹색평론, 습지보존연대, 통도사환경위원회를 비롯 전국의 50여 환경, 시민 단체, 교사,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대안을 찾는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이어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인식 습지보전연대 의장은 생명의 문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삶의 태도변화를 꼽았다. 이인식 의장은 "10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특정 환경단체나 운동가에게 의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성산의 가치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병인 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22개의 고층늪지, 30여종의 보호대상 동식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기술되지 않은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는 현 노선의 문제점을 반증한다. 지질, 지하수, 안정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 노선을 제외한 대안 노선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개 늪지 · 보호동식물 30여종 외면 우리 스스로 자연보호 주체로 나서야"

지정토론에 나선 김석준 부산민노당 지부장, 서재철 서울녹색연합 생태부장, 박영관 부산시교육위원, 최성각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회원 등은 "현재 재검토위원회가 꾸려지고 있지만, 6월 30일까지 1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백지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생명의 진정한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5시부터 8시까지 이어진 토론회 후 금련산청소년수련원으로 장소를 옮겨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를 결집한 동참자들은 "금정산 천성산 구간 백지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노선재검토위원회는 무의미하며 앞으로 천성산을 지키고 생명의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 천미희 기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 · 경남지부 발대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 · 경남지부 발대식이 25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열렸다.

지난해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를 입었던 김해 한림면과 산청군 일대의 수해복구 활동과 아 · 태 장애인 경기대회 봉사 및 시민 서포터즈 활동으로 불교계 사회봉사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는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 · 경남지부가 정식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것이다.

발대식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활동을 펼치게 된 조계종 자원봉사단 부산 · 경남지부는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의 창구 역할로 불교 봉사 영역을 극대화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계종 자원봉사단 단장 미산스님은 "부산 경남 지역의 불교 봉사활동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불교사상 접목 첫 등산교실 열어

한국불교산악회 6월 4~24일까지

부산등산연구소(소장 노종백)가 6월 4일부터 24일까지 제 1기 등산교실을 연다.

한국불교산악회 노종백 회장, 김석태 회원을 비롯 부산등산연구소의 강사진 대부분이 불자여서 불교사상을 접목한 산행 이론 교육으로 관심을 모은다. 부산등산연구소의 등산교실의 특징은 산행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교육에 있다. 산과 인간이 조화를 강조하는 산행이론으로 자연보호나 환경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또한 단순히 산을 오르는 기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산악인의 자세, 산악사, 멤버쉽과 리더쉽, 자연보호, 독도법, 산악기상, 기초암벽이론, 응급처지 등 종합적인 이론 교육 후 산행 및 야영 실습을 진행한다.

한국불교산악회의 등산 계획 및 자료를 만들고 있는 부산등산연구소는 이번 등산교실을 통해 등산 저변확대는 물론, 산사와 불교문화를 접목한 포교로도 연결시킨다는 계획이다.

노종백 소장은 "등산이 곧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아 성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진각종 비로자나청소년협회는 17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화합의 광장에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사진)를 가졌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대구시내 중고교 15개 댄스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특히 관람석에는 1천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석,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비로자나청소년협회 관계자는 "우리 주변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효과적인 포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동화사, 하안거중 매주 화엄무차논강

'화엄경, 어떻게 공부…' 첫 법석

팔공산 동화사에서 사부대중이 차별 없이 참여하는 화엄무차논강이 하안거 기간동안 매주 토요일 개최된다.

동화사는 17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논강 입재식을 갖고,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을 초청 '화엄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법석(사진)을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동화사, 해인사, 운문사 등 전통강원의 학인스님을 비롯 대구경북지역 불자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종범 스님은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부분 속에 전체가 있어 만물 모두가 그 근본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진리를 잘 새겨 자기 인식에 대한 다변화, 확대화를 통해 화엄경을 공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논강은 31일 화엄학림 강사 학담스님의 '화엄경의 선', 6월 7일 동국대 교수 해주스님의 '화엄경의 구조론' 등이 이어진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백의인 · 정복순 씨 선정 삼광사, 한글학술상

천태종 삼광사(주지 도원)는 16일 경내 지관전에서 제 16회 삼광한글학술상 시상 및 제 10회 대학생 논문발표 대회 수상자 시상식을 거행했다.

삼광한글학술상 2003년도 수상자로는 부산진고등학교 백의인 교감(1944년생)과 신라대 · 경성대 정복순 강사가 선정됐다.

'제 10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발표대회'에서는 박일섭(부산대 국문 4년)의 'TV광고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천미희 기자

100일간 백고좌 대법회 봉행

대구 법왕사 6월1~9월 8일까지

대구 파동 법왕사(주지 실상스님)는 6월 1일부터 법왕사 회주 정무스님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1백일간 고승대덕 스님들을 초청하는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는 법랍 3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지역 불자들로부터 추천 받은 1백여명의 대덕 스님들을 초청한다.

법회는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 100일간의 일정으로 매일 이어지며, 12일 법타스님(은해사 주지), 19일 각현스님(연꽃마을 대표이사), 27일 백운스님('양치는 성자' 저자), 29일 무비스님(화엄학림 원장) 등의 법석이 펼쳐진다.

법왕사는 또 백고좌 법회전야제로 31일 시명, 도신, 심진, 법현스님을 초청,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8월 14일에는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 초청 보살계수지 대법회를, 9월 8일에는 백고좌 법회 회향기념 김성녀 주연 마당극 공연을 연다. 문의 (053) 766-3747. 박원구 기자

요가통해 몸 · 마음 동시수련 안도 · 묘심 스님, 주 3회 지도

요가, 선무도 등 주제가 있는 포교로 관심을 모으는 도심 포교당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주는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불가 전통의 수련법인 금강영관 수련을 통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을 건강과 정신적 안정 뿐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는 금강선원(원장 안도)은 매일 새벽, 오전, 오후 수련 시간을 통해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실천수행으로 선무도를 수련하고 있다.

한국요가명상센터 부산지원(원장 묘심) 또한 일주일에 3회 수련 시간을 정하고 기초부터 단계별로 지도하며 몸과 마음의 조화를 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묘심스님은 "몸의 이완을 통한 내적 평온으로 본래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요가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화시키는 수행방편"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2003학년도 후기

위덕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인원

과 정	개설학과	개설전공	모집인원
불교대학원 (석사과정, 야간)	불교학과	불교학, 불교문화학	00명
불교대학원(불교지도자과정, 야간)			
대학원 (석사과정, 주간)	불교학과	불교학, 밀교학, 응용불교학	00명
	영어영문학과	영어학, 영문학	
	법학과	공법, 사법	
	외교통상학과	정치학, 경제학	
	정보전자공학과	전자공학, 컴퓨터제어공학, 반도체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2. 전형일정 및 장소
가.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방법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http://www.uiduk.ac.kr/)
2) 원서접수 기간 및 접수처 : 2003년 6월 9일(월) ~ 6월 13일(금), 17:00까지 / 대학원교학과
나. 전형일시 및 장소
1) 전형일시 : 2003년 6월 17일(월) 10:00(불교대학원은 19:00도 가능함)
2) 전형방법 : 각 고사장(고사장은 당일 공고)
다. 합격자발표 : 2003년 6월 30일(월) 10:00 대학원 교학과에서 공지

3.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1부 (인터넷 http://www.uiduk.ac.kr 혹은 본교 대학원교학과)
나. 졸업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4. 전형방법 : 서류전형(50%), 면접(50%) 5. 장학금 종류 : 성적, 면학, 특별장학금이 있음
6.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http://www.uiduk.ac.kr)를 참고하시거나 대학원 교학과로 ☎(054)760-1080, 1515(불교대학원 및 불교학과 상담) 문의 바람.

천년 古都, 강한 대학 위덕대학교 UIDUK UNIVERSITY
780-7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50번지
Tel : 054)760-1080~3 Fax : 054)760-1089

미얀마 남방 수련법회 및 남방 수계, 보살계

– 남방 전통 합동 천도재와 성지순례 –

※ 황금 불탑의 성지 미얀마로 신심깊은 불자님을 모십니다

행사내용
▶ 남방 전통 합동 천도재(참여불자님 모두)
▶ 남방수계, 보살계(수계증서 및 수료증)
▶ 위빠싸나 수행 체험 및 강좌
▶ 탁발체험 및 1日 1종식 체험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파간, 만달레이, 삔띠야 등)

행사기간 2003.6. 6 - 6. 16 (10박 11일)
참여준비물 사진(반명함) 6매, 여권
참여인원 선착순 36명

주 관 AUNG MYAY THAR SI Temple, MYANMAR PIDAYA Temple, MYANMAR
주 최 양곤 AUNG MYAY THAR SI Temple, 만달레이 PINDAYA Temple

한국총관 사 자 암

문의 및 상담안내 033)647-3412, 011-9795-3411 / FAX 033)647-3412

성지순례지
양곤 (쉐다곤파고다, 마하위지하파고다, 차욱탓지파고다, 보타다응파고다, 아우미따지사원, 까바에파고다)
파간 (쉐다곤파고다, 아난다파고다, 탓비인뉴파고다, 따미양지파고다)
만달레이 (짜욱토지파고다, 구도도파고다, 쉐난도파고다, 만달레이언덕)
삔띠야 (신고운 따운 사원, 삔띠야 동굴)
만달레이 묘 (꼬울롱 사원)
※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마을마다 수돗물 콸콸 "신나요"

재가연대, 우리는 선우, 본지 공동
인도불교 1차 지원 사업 결실


◇인도 UP주 메인뿌리 나비간지 마을 법당준공식이 거행됐다. (사진제공=재가연대).

UP주 3곳 학교, 법당, 공원 준공…500명 수계

10개마을 우물 관정, 주민 자발적 공사 참여

재가연대와 우리는 선우, 본지가 공동으로 진행한 인도불교 1차 지원사업이 석가족 3개 마을 학교 및 법당 건립, 불교공원 준공, 보드가야 둥게스와리등 10개 마을에 핸드펌프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토회 이사장 법륜스님과 김태제 재가연대 NGO지원 분과장을 비롯한 인도불교지원단은 13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지난해부터 1차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던 인도 UP주 3곳의 석가족 마을 학교 및 법당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메인뿌리 나비간지 및 칸노즈 바레뿌르 마을 법당과 불교공원, 학교는 마을의 대소사가 행해지는 마을 회관과 불교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는 명상센터 등 다목적 공간으로 건립됐다. 이 시설들은 인도불교 지원단이 건축재료만 지원했을 뿐, 마을 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서 지은 것이다.

특히 바레뿌르 마을의 학교이름은 지난해 힌두교도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불교청년지도자 비쉬 시와르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비쉬 시와르 고등학교라고 지었다.

명상센터 소장 라미쉬 보드는 "마을 주민 전체가 이 공사에 참여했다. 마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아마 하늘에서 비쉬 시하르도 기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준공식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은 법당이라 소중하다.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준공식에 이어 스리랑카의 솜나탄 스님을 계사로 델리 아소카미션비하라 사무국장 반테 수메도 스님을 비롯한 30여명의 인도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수계식에서 총 500명의 석가족이 불교로 개종했다.

김태제 재가연대 NGO 지원분과장은 "1차 지원사업의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 예상했던 것보다 법당과 학교 건립이 잘 완공되어 기쁘다. 특히 둥게스와리 10개 마을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인도불교지원사업단은 1차 지원대상 중 나머지 1곳인, 메인뿌리 마하마야 아카데미가 완공되는 올해 말 이후 1차 지원사업의 결과를 최종 평가한 뒤 2차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제2의 법화원, 중국에 한국얼 담는다

일산 장안사, 청도에 대규모 사찰 건립



경기 고양시 장안사(주지 병진스님)가 중국 현지에 대규모 한국사찰을 짓는다.

중국 청도(칭다오) 장안사는 지난달 산동성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18일 석노인 공원 안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

장안사는 청도 시내 중심부와 바닷가에 인접한 '석노인 관광단지' 안에 사찰 부지 1천평을 확보하고 우선 160평에 대해서만 건물공사에 들어갔다. 장안사는 중국정부가 사찰을 지어주는 대신 10년간의 토지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올해 9월중 개원할 예정이다.

기공식에는 한국측 병진스님과 죽림산사 이선행 회주를 비롯 중국측 청도인민위원회 곡초탁 서기, 석노인관광원 이숙산 총경위와 청도 한국민속문화교류센터의 황병희 사장, 청도 한국상회의 조일환 부회장 등을 비롯 현지 교민 50여명이 참석했다.

병진스님은 "비교적 교민들이 많은 청도에 사찰을 세워 한국 불교를 알리고, 중국과의 문화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동국대 서울강남한방병원

지역주민위한 건강강좌

동국대 서울강남한방병원은 현대백화점과 공동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를 연다.

'건강하게 사는 지혜- 101가지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정지천 원장의 무료특강은 28일과 30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무역점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어 동대 강남한방병원장은 6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 3개월간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목, 13시30분)과 무역점 문화센터(금 16시10분)에 '한방으로 풀어보는 가족건강 365일'을 주제로 한방문화강좌를 개설한다.

강남한방병원 정지천 원장, 임성우 진료부장, 구병수 교육연구부장, 김동일 부인과장, 이승덕 김갑성 침구과장, 최인화 피부과장이 강사로 참여한다. 수강료는 8만원. 문의 3416~9700.

한편 각종 성인병 통증질환 기능성질환의 진단에 탁월한 한양방 종합검진센터를 운용하고 있는 동국대 서울강남한방병원은 진료비중 불교신도와 각 종립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10%, 스님과 종립학교 교직원은 20%의 본인부담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김원우기자

광주, 불교전문병원 6월 개원

의료재단도 설립 계획

스님과 불자들에게 저렴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불교 전문병원이 6월 중순 문을 연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배치 등 개원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방부불교병원(원장 홍기표)은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13개 진료부서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14번지에 위치해 있다.

지하 1층 지상 9층, 연건평 2000여평의 규모로 세워진 방부불교병원은 '불교인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승화시켜 사회복지와 인간애를 구현하자'라는 이념에 따라 불자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일반인들에게는 자비인술을 베푸는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특히 광주 전남지역의 30여 의료기관과 연계해 '방부연합 의료기관'을 구성,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향후 방부연합 의료기관을 모태로 불교 의료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조선대 불교학생회 출신인 방부불교병원 홍기표 원장은 "내 가족을 돌보는 정성으로 사랑이 가득한 불교병원, 병원공동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도봉산 도봉사 산사음악회

서울 도봉산 도봉사(주지 원명)는 6월 1일 오후 5시 30분 대웅전앞 특설무대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돕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배유정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산사음악회는 가수 안치완과 자유, 신형원, 남진, 장미화, 문희옥 임지훈, 문영미, 소리새, 손병휘씨와 소프라노 이진희씨가 출연한다. 문의 02) 954-1112 김원우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믿음과 사랑으로 뭉친 네 보살

경기도 화성 보문사 신도 4인방

화성 보문사에는 주지 스님보다 보문사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는 신도 4인방이 있다. 주지 스님이 있거나 없거나 보문사에 대한 이들의 사랑은 한결같다.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신행생활도 게을리 하지 않는 보문사의 기둥들을 소개한다.



■ **원 개선화 보살**(61, 신도회장)

13년간 환경불사, 지휘한 야전 사령관

13년간 보문사 신도관리와 재정을 도맡아 온 정신적 지주다. 버스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보문사에 거의 매일 출근하며 경내 환경 불사를 지휘하는 보문사 야전 사령관이다. 원 회장은 스님이 5년간 투병 생활을 할 때 산에서 몸에 좋다는 약초를 직접 캐다가 약을 달여 들인 정성은 유명하다.



■ **이묘법화 보살**(57, 법당보살)

초발심자에겐 예절, 기도법까지 친절히

보문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해 법당 청소를 하며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 일명 법당 보살이다. 벌써 올해로 이일을 한지 20년째다. 이 보살은 법당에 진치고 앉아 처음 사찰을 찾은 초발심자들에게 법당예절은 물론 의식예절과 기도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염불 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 **임정숙 보살**(55, 운영회장)

'삼보정재' 서원, 절집 재정 내집처럼

임 보살도 3년째 운영회장을 맡고 있지만 남편 이옥재씨(65)도 거사회 부회장으로 보문사 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 올 정도. 임 보살은 23년 전 보문사 신도가 되면서 불자로 살아가는 한 '삼보정재' 만큼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서원했다. 공양 준비, 연등 등 무엇이던지 근검절약하며 사찰의 재정이나 물건을 아낀다.



■ **진정화 보살**(50)

말없이 궂은일 도맡아 하는 숨은 일꾼

진 보살은 아무런 직책과 감투가 없다. 하지만 말없이 궂은 일도 도맡아 하며 신도 간부들의 일을 돕는 보문사 또순이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진 보살이 안보이기라도 하면 간부들은 찾느라고 소란을 피운다. 그만큼 절에서 하는 일이면 어느 것하다 진 보살의 손을 안거치는 것이 없다. 빨래, 설것이, 청소, 공양준비 등. 울력도 수행이라는 것이 진보살의 생각이다. 김주일 기자



추천의 말

월암스님 보문사 주지

네 보살 덕에 수행에만 전념

우리 보문사에서는 스님들이 사찰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일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저는 그저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지요. 특히 신도회장을 비롯한 네 보살들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에 주변 포교 환경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도심포교를 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비가 있을때마다 네 보살이 곁에 있기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국내 파동명상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파동명상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파동명상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퇴행 파동명상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파동명상 -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파동명상 지도자 전생연구학회에서 파동명상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 일주일 과정 (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 전문반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 일반적인 파동명상 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 6월 2째주, 4째주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 또는 빙의령과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이 코너는 저희 파동명상연구소에서 수행하신 스님 · 법사님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싣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계시는 구천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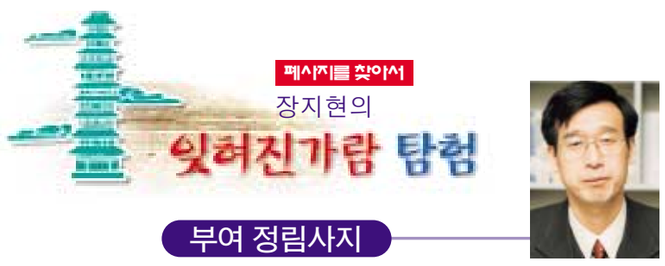
경기도 가평군에 계시는 구천스님(011-320-2529)은 평소 삼라만상이 파동으로 이루어져있다는 파동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저의 **파동명상연구소**와 인연을 맺고 저의 연구소에서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수행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스님이 평소 알고 계시던 부산의 모포교원에 심야 법회가 있어 그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법회의 끝날 시간에 스님은 **파동명상**법회를 하게되었는데 **파동명상**이 진행되는 중에 그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신도들은 평소와는 다른 느낌과 색다른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중의 한 아주머니는 어깨 부근에서 무엇인가가 강하게 몸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음날 그 아주머니는 스님을 친견하는 자리에서 평소 건강이 나빠 가족들에게 평생을 아침밥을 한번도 못해주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신기하게도 몸이 가뿐해져서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함을 전해왔고 그 이외의 많은 신도들이 몸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기이한 영적 현상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말을 전해왔다. 그 후, 하루만에 그 포교원에는 100명 이상의 신도(평소에는 10명 미만의 신도)들이 스님의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법회 3일째에 참석한 많은 신도들중 10명에게서 100일 기도가 들어왔다고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신도는 **파동명상** 중에 3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작은방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본 순간 시어머니 영가가 자기에게 잘살아 라고 말하면서 대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떠나갔다면서 그런 현상들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면서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다고 했다.

동 방 명 상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문화왕국’ 꿈꾸던 백제의 중심사찰

아카시 향기에 취해 한바탕 봄꿈에 빠져드는 백마강. 5월 그 하루도 무덥던 날. 낙화암 절벽에 하롱하롱 춤추는 아카시 꽃잎은 푸른 강물에 몸을 던지던 백제 여인들의 몸짓을 닮았다. 충절과 절개란 얼마나 눈부신 것인가. 조국 백제의 흥망과 함께 이승의 미련을 훌훌 떨고 희디흰 꽃잎 되어 검푸른 강물에 흩어지던 여인들의 뒷모습은 저토록 아름다웠을 것이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들의 뒷모습은 언제나 시공을 초월하여 긴 여운을 남긴다.



잊혀진 왕도, 부여 땅. 그 어디에서도 옛사람들의 흔적을 쉽게 더듬을 길 없지만 능산리 솔밭 길에도, 부소산 돌담 아래도 때 되면 옛사람 닮은 할미꽃 민들레가 피어나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다. 잊혀진 절터에도 구절초 꽃들이 텃밭을 이룬다. 세월의 물결에 휩쓸린 꽃향기는 싸리비질 선명했던 역사의 안마당에 침전하여 문화가 되고 유적이 되는 모양이다. 텅 빈 사지(寺址) 한 가운데 흐린 연못에는 부용이 졸고, 어느새 온 몸에 연꽃 문양을 한 비단잉어들은 흰 구름을 좇으며 유영하고 있다.

백제는 ‘문화 왕국’이었다. 반도의 중심에 자리 잡은 까닭에 바람 잘 날 없었지만, 안으로는 활활 장작불을 지펴, 무쇠를 녹이고 금은을 다듬었던 것이다. 영원불멸의 문화유산은 여유와 평온에서 나온다. 도읍을 세 번씩이나 옮기며 나라의 운명을 힘겹게 끌고 갔지만 ‘공주의당금동보살입상’과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민족의 유산으로 물려줄 정도로 백제인들의 창조적 열정은 대단했고, 예술적 슬기는 놀라웠다. 백제가 아니면 누가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만들었겠는가. 백제가 아니면 어떻게 이 땅이 ‘금동용봉봉래산향로’를 지닐 수 있었겠는가.

백제 문화의 특징은 진취적 선진문화의 수용과 더불어 결코 신라와 고구려에 뒤지지 않을 만큼 지극한 불심으로 특유의 원만하고 여유로운 화합형의 문화를 일군 것이다. 좁은 반도에서 토닥거리기보다 중국이나, 일본 등 더 큰 세계로 눈 돌렸던 나라. 그래서 오히려 더 넓은 동북아의 역사 속에 해동의 제국으로, 조상의 나라로 섬김을 받았던 나라. 부여는 그 백제 왕국의 마지막 수도기였기에, 야속한 나당연합군 군사들에게 화려하고 장엄한 정림사 금당이 불 탈 때까지 123년간 사비백제 (538~660) 시대를 열며 영원한 백제의 부흥을 꿈꾸었던 것이다.

육당 최남선은 <삼국고적순례>에서 부여를 두고 “보드랍고 훗훗하고 정답고 알뜰한 맛은 부여 아닌 다른 옛 도읍에서 도무지 얻어 맛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왕국의 패망 이후, 향기로운 유적과 유물들은 철저히 파괴되었으나, 천혜의 자연과 인심이 조화된 환경, 그 무늬와 색조만은 어쩌지 못해 오늘도 고졸한 ‘부여팔경’의 멋을 간직하고 있다. 이른바 백제탑의 낙조, 부소산의 해맞이, 고란사의 새벽종, 백마강의 봄빛, 낙화암의 소쩍새, 궁남지의 버들 숲, 규암나루 돛단배, 만광지의 추련(秋蓮) 등 꿈꾸듯 아련한 추억거리가 그것들이다.


◇백제의 평온함과 여유로움이 터져나오는 정림사지.

정림사지(사적 제301호)가 있어 비로소 부여는 부여답다.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제 9호)이 숱한 역사의 풍상 속에서도 굳건히 부여를 지키고 있어 부여는 비로소 왕도의 체면을 지키고 있다. 부여가 부여다운 것은 나라도 절터도 무너졌지만 영욕의 이 ‘백제탑’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단순한 돌탑이 아니라 백제의 자존심이다. 나라는 무너졌어도 끝내 무너질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백제의 예술 혼이었고, 기막힌 문화 민족의 자긍심이었다. 그 피는 지금 우리의 몸속에도 맥맥히 흐르고 있다. 이 뜨거운 유전자가 있어 우리는 오늘도 육자배기를 부르고 전


◇숱한 역사의 풍상속에도 굳건히 부여를 지키고 있는 정림사지 오층석탑(국보 제9호).

백제인의 자긍심·예술혼 담긴 오층석탑

목탑을 석탑으로 번안…학문적 큰 가치

79년~80년 본격발굴, 일탑식 가람배치 밝혀내


◇비바람에 형체를 알아볼수 없지만 정림사지의 주인장임을 자처하는 비로자나석불(보물 제108호).

주대사습놀이를 하고 있다.

정림사 터는 일찍부터 일본인들이 주목하여 1942년부터 3,4년에 걸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정림사(定林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편이 출토되어 그 때까지 알 수 없었던 절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명문의 연대가 고려 헌종 19년인 1028년을 가리키고 있어, 백제 때의 절 이름이 그러했는지는 여전히 알 길이 없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백제탑’으로 불려져야 한다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는 것은 그런 이유이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또한 ‘평제탑(平濟塔)’이라고도 불렸다.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오층석탑 탑신에 ‘대당평제국비명(大唐平濟國碑銘)’이라는 글씨를 새겨 백제를 정복한 전승기념비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오층석탑은 이렇듯 백제인의 신앙적 결정체이면서도 조국을 멸망시킨 적장의 공적을 몸에 지니는 치욕의 사연을 간직한 채 묵묵히 1,400여년을 버텨온 것이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은 익산의 미륵사 터 탑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백제 최고의 석탑이다. 또한 목탑을 석탑으로 번안하여 조성된 최초의 석탑이라는 점에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번안된 것임을 밝혀낸 것은 우리나라 미술학사의 태두인 우현 고유섭 선생(1905~1944)에 의해서다. 선생은 우리나라 석탑을 그 생김새의 변천에 따라 연대적으로 추정하여 백제에서는 목탑에서 석탑을, 신라에서는 전탑에서 석탑을 만들었고 마침내 이 두 계보가 통일신라에 이르러 감은사 터 탑과 같은 완결미로 정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정림사 터 탑은 8.33m나 되는 대탑임에도 육중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원근은 물론, 사방 어디에서 보아도 경쾌하면서도 장중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웅혼한 기백이 넘치는 고구려의 유적이나 화려하고 세련된 신라의 그것과 달리 온화하면서도 완벽하여 안정감과 해탈의 기분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백제 예술의 다른 점이다.

1979년과 1980년에 본격적인 발굴을 통해 정림사지는 백제 시대의 다른 절들처럼 남북 자오선상에 중문과 탑과 금당과 강당이 차례대로 배열된 일탑식 가람배치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만 특이한 것은 중문과 탑 사이에 연못이 있었는데, 최근까지 지하에 묻혀있던 것을 지반을 돋궈 복원하여 오색의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은 것이다. 석불보호각의 석불좌상(보물 제 108호)은 본래 강당 터에 놓여있던 것을 전각을 복원하여 옮겨놓은 것이다. 이 석불은 얼굴이나 몸체가 비바람에 마모되어 형체를 거의 알아 볼 수 없으나 수인(手印)의 윤곽으로 보아 비로자나불임이 분명하다. 몸체와 달리 석불의 좌대는 안상이며 연꽃 조각이 분명하고 당당하여 이 또한 오층석탑과 함께 정림사지의 마지막 주인공임을 짐작하게 한다.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보령 성주사 터 편

사진=고영배 기자

정림사지 가는길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소재한 정림사지를 찾아가는 길은 서울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 천안 나들목을 나와 공주를 거쳐가는 길이 편리하다. 공주에서 40번 국도를 타면 논산에서 들어오는 4번 국도와 합쳐져서 부여 시내로 들어가게 된다.

국내최초 침대와 의료기기 허가획득
기념 20%세일
『佛心同體』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 입니다
스님과 불자님의 편안한 잠자리,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건강은 헬스라이프 의료기기 침대가 책임집니다
본 제품은 돌침대, 매트가 아닙니다
헬스700
₩4,800,000 → ₩3,840,000
헬스600
₩2,700,000 → ₩2,160,000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헬스라이프 보료
▶ 스님께서는 보료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싱 글 : ₩1,900,000 → ₩1,560,000
● 더 블 : ₩3,600,000 → ₩2,880,000
천연 원료만을 사용한 헬스라이프 침대는 의료기기-
스님과 불자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헬스라이프 침대는 음전위효과, 온열효과를 동시에 느끼게 설계되어 침구로는 국내최초로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또 동종업계로서는 최초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를 받아 통증완화와 혈액개선의 효능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생활의 삼분의 일 가량을 잠자리 시간으로 할애한다고 할 때, 편안한 잠자리는 건강한 하루를 위해 헬스라이프가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는 헬스라이프 의료기기침대
누워 주무시기만 하면 통증, 근육통, 혈액순환개선까지…
★ 책임보험 2억원 가입 (SAMSUNG 삼성화재)
구입문의 02-581-6011
※ 각종 은행신용카드 결재로 24개월까지 할부가능합니다.
※ 주문시 현장설치 및 1년간 무료 A/S 보장
● 의장등록 제0304137호
● 품목허가번호 제03-272호
● 벤처기업확인 제021627032-2-5232호
● 제조업허가 제937호
● KS A 9002:1998/ISO 9002:1994 인증
지사 및 대리점모집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77-6
TEL : (02) 581-6011~3
공장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1리 272

만다라 문화원
만다라 실전 및 명상기도 전수
부처님을 만나는 티벳불교
02)3673-3881



타악과 미세각의 명인 **김대환**씨

◇김대환씨의 '음각전'에 나온 30여만자 반야심경(일부). 무한변수의 장엄세계를 상징하는 듯하다. 사진= 박재완 기자

산문밖의 禪

"마음 열면 원음이 들려요"

'세서 미각'의 달인, 손 아닌 마음으로 작업
글씨·연주로 '一卽多 多卽一' 세계 보여줘

누가 소리를 보았다고 하는가. 절대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글씨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마음으로 듣고 느끼는 것이다.

5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7일부터 18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김대환씨(70)의 '음각전(音覺展)'은 바로 비움속에서 채움을 체득하는 그러한 자리였다. 큰 검은 천에 은색 볼펜으로 쓴 30여만자의 반야심경. 해서 행서 초서 등 아름다운 서체로 반야심경 전문이 1300회나 쓰여져 전시장은 온통 '반야의 세계'였다. 특히 폭 2.5m 길이 10m의, 700번 쓰인 대작은 그 크기도 그렇지만 영혼을 빨아 들일 것 같은 무한변수의 장엄세계를 보여준다. 조금 떨어져 보면 '관음대위력(觀音大威力)'이란 큰 글씨가 중첩돼 나타나 더욱 장관이다. 김대환씨는 개막 첫날 멋진 타악연주로, 전시작품에 '사인(sign)'을 했다.

쌀 한 알에 반야심경 283자를 새겨 1990년 기네스북에 오른 '세서미각(細書微刻)'의 달인 김대환씨. 13세 어린 나이부터 스틱을 잡은 이래 70세를 넘긴 요즘도 드럼을 두드리며 국내는 물론, 해외공연만 500회를 넘긴 '타악의 명인'이다. 또 손꼽히는 오토바이 마니아 이기도 하다.

김대환씨의 삶에는 온통 반야심경이 녹아있다. 아침에 일어나 반야심경 한편을 쓰고 나서야 하루를 시작한다. 40여년동안 반야심경과 살다보니 쓰고 외는 것이 몸에 뱄다. 프리재즈 타악연주가로서 북을 두드릴 때도 입으로 반야심경을 외우며 박자를 맞춘다. 비행기를 타고 갈때도,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때도 내프킨에 반야심경을 쓴다.

이번 '음각전'에서도 선을 보였지만 그는 좌서(左書)도 잘 쓴다. 좌서는 우서보다 2배 이상 힘과 시간이 들어간다. 그는 좌서를 쓰면서 고행하는 수행자들을 연상한다.

초서(草書)의 대가인 중국의 진학종이 인정할 정도로 초서체에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김대환씨가 그렇다고 스승을 두고 정식으로 글씨를 배운 것은 아니다. 좋은 글씨를 찾고 그것에 대한 미학적인 연구를 게을리 않았다. 무엇보다 쓰고 또 쓰고 하루 몇시간씩 글씨삼매에 빠진 노력의 결과다.

김대환씨는 68년 동남아 여행중 상아에 깨알같은 글씨를 조각하는 중국노인을 보고 세각(細刻)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불심이 깊은 그는 "남에게 경을 읽어주는 법보시가 그 무엇보다도 큰 공덕이라고 들었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말씀을 남에게 보여주자, 알려주자는 생각에 여기저기 쓰다보니 글씨가 점점 작아지게 됐다."고 말한다.

쌀 한알에 반야심경 283자를 새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엄두가 안나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수십만 알의 쌀과 씨름해 기어코 성공했다. 0.2㎜의 조각칼을 만들었고 현미경을 보면서 일필휘지로 반야심경을 새겼다. 조각칼로 쓰기 위해 0.2㎜의 텅스텐 핀을 만드는 일은 고도의 집중을 요한다. 부러지기 쉬워 정신이 조금만 딴데 쏠려도 실패한다. 극세하게 텅스텐핀을 갈며, 제일 부드러운 것이 제일 강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쌀 한톨에 반야심경을 새기며 손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새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미세각에 몰두하듯 소리에서도 원음(原音)을 듣게 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지난하다. 열 손가락 사이에 여섯 개의 각기 다른 채를 끼우고 신명나게 소리를 만드는 그는 독특한 타법으로 전자음 컴퓨터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지나온 추억을 느끼게 하는 옛소리, 자연의 소리를 전달하려 애쓴다.

그의 연주회에는 이벤트가 따른다. '인간과 소리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기도 하고 현대무용이 어우러지기도 하며 즉석 좌서쓰기 등의 퍼포먼스가 벌어져 음악과 조화를 이룬다. 50년 넘게 북을 두드려왔지만 그는 요즘도 하루 일곱시간 이상 두드리는 연습을 게을리 않고 있다.

"이 세상의 박자는 홀수박(拍)과 짝수박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짝수박자는 배우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 박자지만 홀수박자는 공부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박잡니다. 모든 박자는 일박에서 시작하니 가장 위대한 박자가 일박이지요." 일박속에 모든 리듬이 다 들어있다. 일박은 무박(無拍)과도 통한다. 산골 할머니가 손으로 휘휘 저어도 척척 맞아들어가는 것이 일박이다.

그는 연주할 때 입속으로 반야심경을 왼다. 박자를 따로 세지 않아도 반야심경 독송만으로 기가 막히게도 운율과 박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내 글씨의 세계하고 내 음악의 세계가 다른 줄 알지만 하나(一)"라고 강조하는 그가 온갖 행위를 통해 이루려고 한 것은 일박에서 모든 박자가 비롯됐음 처럼 하나가 전체이면서 전체가 하나라는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세계가 아닐까. 내가 곧 전체요, 내속에 전체가 있고 나는 전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상즉상입(相卽相入)의 관계를 그는 연주로, 30만자의 반야심경 글씨로, 283자가 들어있는 한 톨의 쌀로 보여주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김대환 씨는 세계적인 프리재즈 타악연주가로도 명성이 높다.



불교의식(범음 · 범패 · 작법) 전수생 및 학인 모집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는 전수생 및 학인을 모집합니다.

6개월 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북)다루는 법 ◇ 나비춤 -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사방요신작법
◇ 의 식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시식, 소대(사십구재 전과정), 점안식
◇ 바라춤 - 천수바라, 요잡바라, 사다라니바라, 관욕게바라 ◈ 교수진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10호 보유자 박일초 스님 직강

- 개강 일시 : 2003년 6월 9일(월요일) 오후 2시
- 모집 인원 : 00명 수시 모집(FAX 접수 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 요일 월 · 수 - 오후 3시 ~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본교는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2-79 회춘원빌딩 2층 (전철 1호선 백운역 하차 - 남부역 방향으로 5분거리)
  TEL : 032)529-6708 /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바라춤 · 나비춤만 3개월 과정으로 따로 강습 받을 수 있음.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장 박 일 초

릴레이 수행일기 <上>



이재규

(한국전력기술 기술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고 한 이야기는 내 수행 과정을 두고 한 비유인 것 같다. 충만하고 완전한 삶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열성적이었던 지난 20년 세월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렇게 하여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한 것 같아 자랑스럽고 보람 있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80 년대 초 대학을 갓 졸업하고 궁색하기만 했던 신입사원 시절, 당시 세간의 관심사였던 기(氣)에 대한 궁금증이 잔뜩 부풀려지고 단전호흡이라는 단어는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단전호흡과 명상에 관련된 책들은 닥치는 대로 사서 읽고 또 그 설명에 따라 직접 앉아 보았다. 내 몸의 진동을 느끼며, 내 몸 전체가 공중에 떠오르는 공중부양을 염원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냉수로 샤워를 하는 등의 일들을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나는 단전호흡에 심취해 있었다.

열심히 한만큼 차츰 변화도 느껴지고 생활의 활력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몸의 진동을 체험하면서 나는 점점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하면 투시현상과 텔레파시 현상이 일어나고, 현상적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해보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육신통(六神通)은 업(業)이 멸하여 육식(六識)이 맑아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행의 한 경계일 뿐이지, 그것 자체를 수행의 본질로 삼는다면 그것은 사술(邪術)이기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과 시행착오를 헌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단전호흡은 아쉬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안겨주고 서서히 내 관심에서 멀어지고, 단전호흡으로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갈증은 선, 조사어록, 불교경전 등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큰 스님 법문이 열리는 날이면 피곤함을 마다 않고 달려가고 있었으며, 깨달은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승,속을 불문하고 찾아가 만나고 있었다.

법회 참석은 관념까지 변화시키지 못해

화두 통해 또다른 세계 공존 체험

그러나 법회 참석과 선어록 공부가 내 관념을 세척하고 변화 시켜 주지는 않았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언어, 문자 그 이면의 실체와 감응하기 위함이지 문자와 말을 이용하여 지식과 이해력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뒤 한참 후의 일이었다.

앉으면 앉는 줄 알고, 서면 서는 줄 알고,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할 줄 아는 이 당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일심(一心)으로 '이뭣고?' 화두(話頭)를 잡고 있을 때는 머리끝이 하늘을 향해 쭈빗쭈빗 당겨지는 듯 했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붕 떠있는 것과 같은 환상에 젖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계들은 오감으로 인식되는 유위세계(有爲世界)의 뒷편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반쪽의 무위세계(無爲世界)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계속)

"선어록 공부하며 참선하세요"

견성의 계기 마련해 준다는 신념에 모임 늘어

올바른 견해 갖추고, 반야 직접 체험토록 지도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아무리 전함 없이 전했다 해도, 전해주는 상황이나 연유를 몰라서야 된단 말인가?"

11 세기 중국 송나라 시대에 선사들의 이야기 모음집인 <경덕전등록> 편집에 참석한 장락정앙(長樂鄭昂) 스님은 선의 체험은 전할 수 없지만, 선사들이 깨닫게 된 상황과 전후 사연은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어록의 존재이유를 밝힌 대목이다.

선사들의 깨닫기까지의 수행과, 깨달은 순간들의 상황을 기록한 선어록. 왜곡된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견해를 따르는 이들은 선어록을 우리 말로 공부한다든지 해석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최근 선어록이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판단아래, 선어록 공부 모임이 늘고 있다.

현재 선어록을 강의하는 선원이나 수행단체는 강남포교원, 안국선원, 우곡선원, 무심선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선어록연구소 등.

강남포교원 원장 성열스님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선어록 강좌를 연다. 노장 신도들의 모임인 선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육조단경> <선종영가집> <전심법요> <달마혈맥론> 등을 공부해 왔으며, 지금은 '선으로 푸는 금강경'을 강의하고 있다. (02)539-2631

선어록 공부를 중요시하는 부산 무심선원 원장 김태완 교수(부산대 철학)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전심법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 '선으로 읽는 금강경' 법회를 연다. 무심선원은 단순히 선어록을 읽고 해설하는 공부모임이 아니라, 체험을 녹인 선어록 강의로 법의 실상을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051)515-7226

매주 월요일 오후 8~10시 임제록 강의를 열고 있는 우곡선원은 10명의 법사단이 차례로 선어록을 강의하고 있다. 장명화 선원장을 비롯해 이각범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홍석교 아주대 교수, 송운석 단국대 교무처장 등 10명의 법사단이 돌아가며 <육조단경> <돈오입도요문론> <달마혈맥론> <무심론> <위앙록> <마조록> <백장록> <임제록> 등을 강의해 왔다. (02)2055-3111

안국선원 원장 수불 스님은 수시로 <육조단경> <선요> <몽산어록> <마조어록> 등 전통 조사선의 어록을 알기 쉽게 설법하는 것이 특징. 선어록을 철저히 체화(體化)한 후 오늘의 목소리로 되살려내는 설법은 교(敎)를 통해 대신심을 내게 한 다음 대의심을 유발하고, 다시 대분심을 이끌어내 선(禪)에 이르도록 하는 체계적인 참선교육의 일환이다. (02)732-0772

선어록을 전공한 학자들의 강의도 희소성만큼이나 눈길을 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02-765-9602) 김영욱 책임연구원은 매주 금요일 7시30분 무문관을 강의중이다. 그동안 대학원 과정의 스님 등을 대상으로 <육조단경> <서장> <도서>를 강의했다. 선어록연구소(02-597-0787) 송인성 소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선어록 입문' 강좌를 열고 있다. 한문 원문을 허사에 유의하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위주로 한다.


◇성열스님


◇수불 스님


◇장명화 원장


◇김태완 원장


◇송인성 소장


◇김영욱 연구원

이러한 선어록 강좌는 단순히 선종 어록을 읽고 뜻을 풀이하는데 그치는 공부모임이 아니다. 선어록 해설과 설법을 통해 사람들이 자칫 빠져 있기 쉬운 삿된 견해에서 벗어나 바른 견해를 갖추도록 이끌어주고, 이를 토대로 반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선 공부를 지도해 주고 있다.

깨닫는 일이야 학인이 주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유발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어록 공부는 이제 참선 수행자들의 인기있는 공부 방편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세대 신규탁 교수는 "선어록을 읽다 깨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불경을 보다 깨친 사람은 더 많다. 살아 계신 석가모니를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깨달은 어른들의 말씀을 적은 책을 보지 않고 어떻게 깨칠 수 있을까? 경전과 선어록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도책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법기회 강정진 지도법사

'선객' 방송후 수행법 문의 쇄도



KBS-1TV에서 부처님오신날 특집방송으로 '선객'을 방영한 뒤, 8년전 서울대 출신 청년들을 출가로 이끌었던 법기회(사진은 법회장면)와 지도법사 취암 강정진(70) 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에서는 강정진 법사의 설법집 <영원한 대 자유인>(경서원)을 찾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책을 낸 경서원에는 책이 없고, 법기회에서 내용을 보완한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어 옛날 책을 복사해서 읽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법기회 수행법의 특징은 '무기(멍한 상태)와 번뇌에 동시에 대처하는 수행'이란 것. 한가지 수행방편(예를 들면 '옴마니반메훔')에 집중해서 염하며 호흡, 결인, 입 천정에 혀붙이기 등의 정신차림을 통해 가아(假我)가 주체가 되어 무기와 번뇌를 반복하는 중생의 속성을 진아의 속성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이라고 규정한다. 육자진언 염송으로 시작해 간화선로 갈무리하는 종합적인 수행방편을 갖추고 있다. (051)516-9104

▧ 아눌라 스님

'쏟아지는 햇빛' 저자로 수행지도 나서

<쏟아지는 햇빛>(정신세계사)과 <마음 과연 무엇인가>(솔)의 저자 아눌라 스님이 연방죽선원에 상주하며 본격적인 수행지도에 나섰다.

아눌라 스님은 근본불교의 본향인 스리랑카에서 8년간 팔리어와 불교학을 공부했다. 위빠사나 명상 중 쏟아지는 햇빛 속에서 절대 평화와 행복을 체험했다는 아눌라 스님은 17일 서울 연방죽선원(원장 법주스님)에서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란 주제의 법문을 시작으로 정기 수행지도를 시작했다.

이날 아눌라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만 신구의 삼업을 짓지 않고 고통의 소멸(니르바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라며 "늘 끊어짐 없이 올바르게 깨어있다면 무상, 고, 무아 등 삼법인을 터득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눌라 스님은 연방죽선원에서 5월 28일 오후 7~9시 '마음이란 무엇인가' 설법, 6월 2~5일 오후 7~10시 위빠사나 초보수행, 6일 봉화 '담마나라' 수행처에서의 자비관 수행, 14일 오후 5시 '위빠사나와 반야심경'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정기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 7~9기 설법, 매주 일요일 오후 2~5시 자비관 수행을 지도한다. (02)334-1763

▧ 해동선원문도회 강만성 거사 법어집 발간

원각경강론 출간, 스님들도 찬탄



재가 수행단체인 해동선원문도회(회장 장상목 동아대교수)는 최근 혜월당 강만성(1917~2001 · 사진)거사의 법어집 <땅 위 땅 아래 내가 가장 비천하도다>(불교세계)를 발간했다.

무(無)자 화두로 참선정진한 강만성 거사는 해동선원을 설립하고 재가자들의 참선을 지도해왔다. 1982년 원각경을 선의 입장에서 강론한 <원각경 강론>을 출간해 조계종 전 종정 고암, 월하, 혜암 스님과 태고종 전 종정 보성 스님으로부터 찬탄을 받기도 했다. 2001년 입적하는 순간까지 학인들과 철야정진하며 후학을 지도하고 미국의 9.11 테러참사 천도법회를 거행하기도 했던 강 거사는 다음과 같은 열반게를 남겼다. "자성을 증득한 것은 단지 견성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自性證得是見性) 증득한 바를 능히 행하여야만 진정한 부처경지이니라(如是能用眞佛地) 비고 빈 무변허공은 모든 것을 환희 비추는 대허경이라(茫茫無際大虛鏡) 본래 무일물 무근수의 그림자가 온누리에 가득 차 있구나(無根樹影九萬里)."

장상목 문도회장은 "스승님은 견성한 다음, 능히 자신이 깨우친 바를 행하여 무심의 경지에서 지행합일이 되어야만 비로소 성불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항상 행하고 깨우쳐 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회고했다. (051)516-7077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4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생 모집

가정폭력의 증가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양성
『불교가정폭력상담소』를 곳곳에 설치하여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불국토를 만듭시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상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윤리 7시간, 여성학 15시간, 가정복지 6시간, 상담학 23시간, 심리검사 6시간, 법 9시간, 가정폭력상담 15시간, 성폭력상담 13시간, 상담실습 7시간)등 다양한 접근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 상 : ①자원봉사 희망자
②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가정폭력 상담원 및 1366 상담요원 희망자
④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희망자
2.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수강신청서
3. 연수기간 : 2003년 6월 25일~ 8월 13일까지(오전 10시~12시, 오후1시~3시까지)
(강의따라 요일 변경)
4. 장 소 : 연꽃 교육장 (인사동 4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5. 수 강 료 : 15만원(당일 등록시 16만원)
6. 모집인원 : 50명(선착순)
7. 신청방법 : 입금후 전화신청(입금처 : 우리은행 098-088769-01-501)
예금주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8. 신청기간 : 2003년 5월 26일~6월 25일까지
9. 문 의 처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TEL 02)738-5586, FAX 02)738-7576
10. 본 프로그램의 수료증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정합니다.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자격을 수여함.
2. 본 행복한가정상담소에서 필요시 상담활동(봉사 · 유급)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혜거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수련회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선문장)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불자님들을 위해
'참선수행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기초참선에서부터 화두 드는 법까지를 정리하여
생활 속에서 참선이 이어지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1. 대 상 : 대학생이상 남 녀 일반인, 30명 선착순
2. 일 정 (3박 4일)
▶ 1차 : 7월 13일(일) ~ 7월 16일(수)
▶ 2차 : 7월 28일(월) ~ 7월 31일(목)
▶ 3차 : 8월 4일(월) ~ 8월 7일(목)
3. 장 소 : 금강선원 참선 수련원(강원도 홍천 선문장)
4. 참가비 : 오만원(수련교재 및 T-셔츠 제공)
5. 문의처 (신청접수, 준비물 및 교통편 문의)
금강선원(서울 개포동) ☎ 02)445-8484
선문장(강원도 홍천) ☎ 033)433-5845~6

혜거스님 강의안내 화요일(원각경) 수요일(기초교리), 금요일(금강경) 토요일(기초참선)

대한불교조계종 金剛禪院

"경승실 운영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경불봉사회 회원들과 경찰 불자들이 정성스럽게 사시마지를 올린다. 오른쪽 첫 번째가 김순자 경불봉사회장. 사진=고영배 기자

바라밀현장

법당 관리는 물론 경찰 포교에도 앞장

신행 상담 통해 마음의 귀의처 역할

경불봉사회의 경찰포교

"보살님들 덕분에 우리 경불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도 하고요, 매달 정수암에서 법회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저희들이야 스님 하시는 일이니 따라 할 뿐입니다."

19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 5층 경불법당. 사시마지를 정성껏 올린 후, 불자 경찰들과 보살들이 정다운 다담(茶談)을 나누고 있다. 화제는 지난 달 열린 수계법회부터 가정 내 자질구레한 대소사들. 불자 경찰들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그때마다 보살들은 극구 아니라고 손사래 친다.

불자 경찰들은 누구에게 이토록 고맙다고 하는 것일까? 바로 서울 성동구 정수암(주지 상덕) 신도회 소속 경불봉사회(회장 김순자) 회원들이다. 2000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법당을 지켜온 '경불법당의 신장'들이다.

경불봉사회가 하는 일은 매일 2인 1조로, 하루 종일 경불법당을 지키는 것. 법당 청소를 하고 사시마지도 올리고,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에는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등 경불법당이 여법하게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 올해는 초파일 봉축 행사를 자체 준비해, 경찰 및 전경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법당을 찾아온 경찰들을 위한 불교 교리 지도, 신행상담을 하는 것은 물론, 집안이 어려운 경관을 위해서는 매일 빠짐없이 기도도 해 준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매달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들이 편히 마음을 쉴 수 있는 귀의처가 꾸려지는 셈이다.

경불봉사회가 발족한 것은 경불법당이 생긴 지난 2000년. 당시 성동경찰서 전체 직원의 70%인 500명이 불자였지만 경불회는 법회를 열 공간 하나 없었다. 그래서인지 실질적인 불교활동을 하는 회원은 고작 30~40명에 그쳤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정수암 주지 상덕 스님과 불자 경찰들은 경승실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이런 노력으로 마침내 2000년 1월 경불법당을 개원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법당은 마련됐지만 운영이 쉽지는 않았다. 옥수복지관 운영에 바쁜 상덕 스님이 이곳을 마냥 지킬 수도 없고, 경찰 불자들은 업무 때문에 법당을 관리할 수 없었다. 법당은 몇 달 동안 텅 빈 채 방치 되기도 했다. 불교에 호기심을 갖고 법당을 찾은 경찰들은 아무도 없는 법당에 앉았다가 자리를 뜨는 것이 다반사였다.

이런 사실은 정수암 신도회에 우연히 알려지게 됐다. 신도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성동경찰서 경승실을 돕자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감로향(정숙자?49) 보살을 중심으로 모임이 구성되었고, 그해 봄부터는 경불봉사회가 본격적인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제 만 3년째이다.

감로향 보살은 "어렵게 경승실을 마련했는데, 부처님의 정법을 펼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며 "조금이라도 부처님 은혜를 갚겠다는 불자들의 서원이 있었기에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1일부터 신임 경불회 회장을 맡은 최호열(46) 경위는 "정수암 신도들의 노고가 아니었다면 어렵게 마련한 법당을 도로 내놓아야 할 뻔 했다"며 "5월내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해 경찰 불자들에게 제대로 불법을 전하는 경찰 불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016)425-8845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장애인 이동 봉사 펼치는

제천운불련 **박문수** 회장

생업 종사하며 틈틈이 이웃돕기 서원

"지역 불교의 중추적 역할위해 노력"

"미력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발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해 보고 싶고요."

99년부터 장애인들과 독거노인에게 택시를 이용한 이동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천 운전기사불자회(이하 운불련). 박문수 회장은 "택시 운전사가 택시로 봉사를 하는 것이 뭐 대수겠냐"고 겸손해 한다.

제천운불련은 99년 제천 지역 택시 운전기사 불자들이 서울 등 다른 지방 운전기사 불자들의 활동을 모델로 만든 모임이다. 택시 운전기사끼리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모두가 불자인 만큼 남을 돕는 일을 해 보자며 자원봉사활동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인근 제천 장애인복지관으로 태워주는 일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봉사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우연히 택시에 승차한 장애인들에게 요금을 안 받은 게 인연이 되어 점점 조직적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 욕심을 내다 보니 운불련 불자들은 노인 경로 잔치, 독거 노인들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쌀과 반찬을 지급하는 일까지 하게 됐다. 이달부터는 월 1 차례지만 목욕을 못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이동목욕 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운불련과 함께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을 상원사에서 개최

하기도 했다.

제천 운불련은 수많은 불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된다. 발족 당시 운불련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 무전기(1천만원 상당)와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성남 보광사 석구스님, 최근 운불련 사무실을 공짜로 지어주겠다는 통도사 신도회장 한철웅 법사, 이외에도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고 있다. 결국 이런 주위의 관심이 운불련 불자들이 더욱 봉사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치는 자극제가 됐다.

6월중에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가면 그 동안 중지됐던 정기법회도 여법하게 봉행하겠다는 박문수 회장은 "운불련 불자들이 나서서 지역 불교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천=강유신 기자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디파마 법사 (下)

명상통해 '제행무상'의 삶 통찰

결혼후 27년이 지난 후에야 그녀는 디파(Dipa)라는 여자 아이를 낳았고, 이 때부터 디파의 어머니라는 의미의 '디파 마(Dipa Ma)'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뱅갈어로 디파는 빛이었기에, '빛의 어머니(mother of light)'라는 별명도 갖게 되었다.

얼마 후 디파마는 고혈압에 걸려 몇 년간 누워만 지낼 수 밖에 없었다. 남편 라자니는 엔지니어로서 풀 타임 근무를 하는 고된 와중에서도 그의 아내를 간호하고 걸음마 하는 어린 디파를 돌볼 수 밖에 없었다. 1957년 어느 날 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온 뒤 디파마에게 아프다는 말을 한 뒤 불과 몇시간만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디파마는 슬픔과 혼란에 휩싸였다. 10년이라는 기간에 그녀는 두 아이(유산)와 남편,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잃은 것이다. 그녀의 건강은 자꾸만 나빠졌고, 살아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명상 수행일 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친척이자 친구인 아나가리카 무닌드라(Anagarika Mudindra)가 지도하는 미얀마의 타타나 예이크타(Thathana Mudindra) 명상센터에서 본격적인 수행을 하게 된다. 놀랍게도 첫째 주의 명상기간 동안 그녀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삶을 통찰하는 체험을 얻는다. 그녀가 밤낮으로 지니고 있던 슬픔도 사라졌다. 그녀의 오랜 두려움도 사라졌으며, 전례없는 평정심과 사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후 디파마의 수행은 극적으로 깊어졌으며, 그녀는 전통적인 관법의 다음 수행 단계로 나아갔다. 6년 뒤, 그녀는 또다시 독특한 수행 체험을 얻었으며, 심오하고도 궁극적인 변화를 감지했다. 53세의 나이에, 제한된 가르침과 수행 기회를 통해 해탈을 갈망한 지 30여년 만에 디파마는 처음으로 견성체험을 하게 된다. 이듬 해 집과 명상센터에서 수행을 계속한 후 그녀는 두 번째 깨달음을 얻고 육체적 정신적 상태 역시 거듭나게 되었다.

디파마는 자신의 변화에 놀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신선해졌고 어두운 그림자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대들도 명상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행복해 질 겁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고 따르세요."

가르침과 수행으로 30여년만에 견성 체험

일상속 마음챙김 보급, 서구인에 영향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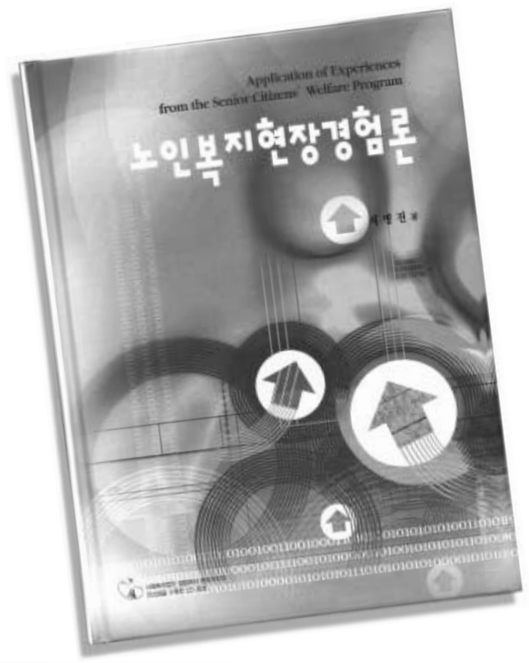
1963년 디파마의 스승 무닌드라는 그녀에게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통력과 영적 힘을 기르는 수행을 지도했다. 그녀는 특별한 집중력과 결점없이 계율을 지킨 수행자로서 선택된 것이었다.

1967년 인도로 돌아간 디파마는 제자들이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챙김(mindfulness)할 수 있는 수행법을 만들었다. 말하기, 다림질하기, 요리, 쇼핑, 아기 돌보기 등 어떤 순간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마음챙김을 가르친 것이다. 이후 디파마는 일상의 혼돈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명상을 보급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구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김재경 기자



◇스승 무닌드라(右)와 함께 한 디파마 법사.



서병진 저 / 도서출판 솔바람 / 4×6배판 .
425쪽 / 값 50,000원

Application of Experiences
from the Senior Citizens' Welfare Program

노인복지현장경험론

이 책은 노인복지시설의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개요, 실제, 자료파일, 사례의 네단계로 섹션화하여 원색화보와 함께 임상사례, 프로그램 내용과 실제, 법인설립관련 내용을 생생하고 풍부하게 엮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운영 1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의 현장경험을 살려 만든 책이다.

▷ 주요내용 : 종합상담사업 / 재가노인복지사업 / 노인사회교육사업 / 경로당활성화사업 / 생산복지사업 / 노인이동목욕사업 / 의료보건사업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과 관리 / 노인복리후생사업 / 부록 CD -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운영

이 책의 특징

첫 째, 노인복지 실무자로서 그동안 축적된 임상경험과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평가를 총망라
둘 째, 현장에서의 취약점 정리
셋 째, 대학생, 대학원생, 케어복지사 등 사회복지분야관련 종사자, 관계공무원들의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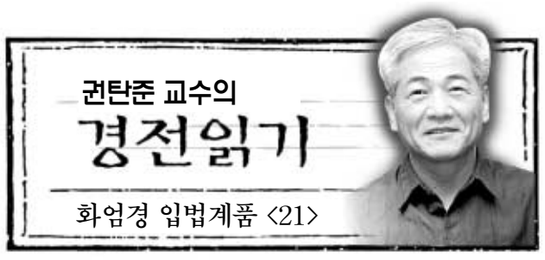
문의 :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총무팀 / 홍보팀 (전화 : 02)385-1351)

제18회 불이상 공고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연구 · 실천 2개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발굴, 그들의 보다 알찬 발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상을 제정 매년 1회 시행합니다.

1. 시상분야
가. 연구분야
① 대학원 석사과정수료 이상의 학력자로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②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학(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 · 철학 · 문학 · 예술 · 비교사상, 기타) 관계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나. 실천분야
① 불교에 입문하여 7년이 경과한 불자 또는 불교단체
②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자로서 연령 제한 없음.
2. 시상규모 : 각 분야별 1명 500만원
3. 후보자 제출서류
가. 후보자 추천 카드(본회 소정양식;별첨)
나.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업적 증명용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바. 具足戒, 受戒 증명서
사. 추천서 3통(총장 · 대학원장, 기타 기관및단체의 장)
4. 접수마감 : 2003년 06월 16일까지
5. 심 사 : 불이상 심사 위원회
6. 수상자 발표 : 불교계 언론매체
7. 접수처 및 문의 :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강남구 개포 3동 186-1 개포 빌딩 6층
Tel (02)3411-6167~8 / Fax (02)3411-6169

不 二 會



선주 비구의 법문

선재동자는 해운 비구로부터 남쪽으로 60유순쯤 가서 능가(楞伽)산 가는 길옆의 해안(海岸)이라는 마을에 선주(善住) 비구를 찾아가 보살행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듣고 그를 찾아간다. 그 마을에 이르러 선주 비구를 찾다가 이 비구가 허공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곳을 보니 무수한 천신과 용왕, 긴나라왕, 마후라가왕, 아수라왕, 가루라왕, 나찰왕, 야차왕, 범천왕, 정거천인(淨居天人)들이 합장, 경례, 공양, 찬탄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선재동자도 환희하여 선주 비구에게 합장 예경하면서 보살이 어떻게 불법을 수행하는지 등에 대해 가르침을 청했다.

선주 비구는 선재동자가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었으면서도 다시 불법과 온갖 지혜의 법을 묻는 것을 칭찬하고 이렇게 설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걸림 없는 해탈의 문을 성취했으므로 오고 가고 다니고 그침에 따라 생각하고 닦고 관찰해서 곧 지혜의 광명을 얻었으니 이름이 끝까지 걸림 없음이니라.

이 지혜의 광명을 얻었으므로 일체중생의 마음과 행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죽고 나는 것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지난 세상일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오는 세상일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지금 세상일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말과 음성이 제각기 다름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의문을 결단하는

어디에도 걸림없는 지혜 광명 터득

훌륭하게 현실계에서 생활하는 보살

데 걸림이 없고… 이 몸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이르는 데 걸림이 없나니, 왜냐하면 머무름도 없고 짓는 일도 없는 신통한 힘을 얻은 연고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신통한 힘을 얻었으므로 허공에 다니고 서고 앉고 눕기도 하며, 숨고 나타나기도 하고, 한 몸도 나타내고 여러 몸도 나타낸다. 장벽을 뚫고 나가기를 허공처럼 하고, 공중에서 가부좌하고 계행… 때를 여읜 계행을 가지나니 이러한 공덕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말하겠는가."

이상과 같이 선주 비구가 성취한 것은 '보살의 무애 해탈문'이다. 그는 오고 가며 다니고 머무를 적에 항상 생각하고 닦고 관찰해서 어디에도 걸림없는 지혜의 광명을 얻게 됐다. 이 때문에 일체의 것을 아는 데에 걸림이 없고, 몸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이르는 데도 걸림이 없다. 그 자유롭게 가고 오는 것이 나는 새와 같이 하며, 땅 속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물을 밟고 가기를 땅과 같이 하며… 한 생각 동안에 동방으로 한 세계도 지나가고, 두 세계 · 백 세계 · 천 세계 · 백천 세계 · 한량없는 세계와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지나기도 하며… 저 세계의 모든 중생을 내가 다 분명하게 보고 그들의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괴롭고 즐거움을 따라 그 형상과 같은 몸으로 교화하여 성취하게 하며, 만일 나를 친견하는 중생은 모두 이러한 법문에 편안히 머물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들을 빨리 성취시키는 데 걸림 없는 해탈문만을 알거니와, 저 보살들이 크게 가엾이 여기는 계행 · 바라밀다 계행 · 대승의 계행 · 보살의 도와 서로 응하는 리하여 모든 세계의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든 세계 중생의 모습과 처지에 따라 적절히 교화하고 성취시킬 수도 있다.

선주 비구는 지혜로써 미혹함을 모두 다스려서 어디에 머무는 바도 없다. 선주 비구는 고요함과 시끄러움에 집착하지 않고, 오염과 청정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주 비구는 그 이름처럼 훌륭하게 현실 세계에 머물면서 생활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선주 비구는 항상 모든 부처님을 공경, 공양하고 중생들을 각성시키고 정화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러한 자세는 보살도의 근본인 동시에 대승의 계(戒) 가운데에서도 중심이 된다. 모든 부처님을 공경, 공양하고 중생들을 개화(開化)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주 비구에게는 이미 계(戒)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덕운 비구의 염불삼매의 법문을 통해 부처님[佛]과 선정[定]에 관한 것을 배우고, 해운 비구의 큰 바다를 관찰하는 법문을 통해 진리[法]와 지혜[慧]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선재동자는 이제 다시 선주 비구로부터 불도 수행자[僧]와 계(戒)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된 것이다. 선재동자는 이들 세 비구들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이 설하는 진리,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三寶]에 대해 배우고, 실천적으로는 마음을 집중 통일하는 것, 진리를 바르게 관하는 것, 바른 생활규범에 따라 생활하는 것[계정혜 三學]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⑯

보조의 삼현문(三玄門)

삼현문(三玄門)은 진리에로 나아가는 세 가지의 깊은 문을 말한다. 본래 임제(臨濟) 선사가 삼현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보조스님은 삼현문을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한다. 하나는 <원돈성불론>에서 돈교와 선문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용된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근기에 따라 다르다는 교판론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보조스님이 말하는 삼현문은 체중현(體中玄), 구중현(句中玄), 현중현(玄中玄)을 말하는데, 이것의 전거는 승고(承古)선사의 어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상세한 의미부여는 보조스님이 가장 상세하고 다양한 해석을 보여준다.

체중현(體中玄)이란 '이치에 의거한 깊은 문'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치란 교학에서 말하는 이치를 말한다. 유식(唯識)의 '오직 마음이다'라든지, 화엄원교(華嚴圓敎)에서 말하는 '사물들 사이에 장애가 없다'는 사사무애법계(事事無碍法界)를 의미한다. 끝없는 세계가 나와 남이 터럭만큼도 서로 차별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직면한 마음과 전혀 차별이 없다는 화엄의 가르침을 말한다. 그러나 보조스님은 이런 교학적인 이치만을 강조한 가르침은 개념적인 이해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지견을 떨쳐버리지 못한다고 말한다.

진리를 그 자체로 증득하는 사교입선 과정

구중현(句中玄)은 '언구에 의지하여 깊은 문에 들어감'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언구(言句)는 교학에서 말하는 언설에 의한 가르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의미 없는 말로서, '뜰 앞의 잣나무'나 '삼 세 근'과 같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화두로서 언구를 의미한다.

이것은 교학의 개념적인 이해의 한계를 깨뜨리는 언어이다. 일반적인 언어는 의미를 지시하지만, 화두는 의미를 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미를 깨뜨리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메타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구중현은 체중현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언어적 이해의 수준을 깨뜨려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현중현(玄中玄)은 '깊은 가운데 깊은 문'을 의미한다. 구중현이 교학적인 이해를 떨쳐버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집착을 끊는다는 언구가 남아 있어서, 존재하는 삶 그 자체를 드러내는데 장애가 된다. 현중현은 주장자를 쳐들거나, 잠깐 동안의 침묵이나 방, 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앞의 체중현이나, 구중현의 흔적을 벗어난다. 바로 이 자리가 '뜻을 잊고, 말을 잊는다'는 단박에 법계를 증득한 자리라고 보조스님은 말한다. 여기서야 비로소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보조지눌 스님의 선사상에서 삼현문은 그의 독자적인 사상을 엿보게 하는 중요한 체계이다. 삼현문은 교학을 벗어나서 진리를 그 자체로 증득하는 사교입선(捨敎入禪)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점은 화엄과 선문의 가르침을 구별짓는 교판론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간화결의론>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삼현문을 역시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술함으로써, 삼현문이라는 과정과 절차까지도 놓아버리는 본래의 건강한 자연 상태를 그대로 드러냄을 강조한다. 아무리 높은 가르침이라고 해도 역시 그것은 방편이고,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병든 환자는 우선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병이 치료되면 그는 다시 병원에서 퇴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복귀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병을 위한 교학이나 선문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에는 잠깐 몸을 머물 곳이지, 최종적인 안식처는 아니라고 말이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이제의 원리와 DNA

불교에서는 물질을 두고 말할 때, 중생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속제, 가제(假諦), 유위법(有爲法) 혹은 의언진여(依言眞如)라 부르고, 범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부처님의 눈에만 보이는 부분을 진제(眞諦), 승의제(勝義諦), 제일의제(第一義諦), 무위법 (無爲法) 혹은 이언진여(李言眞如)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물질은 2중 구조를 하고 있음을 말하며 이제의 원리란 바로 2중 구조의 원리란 뜻이다. 따라서 인간도 눈에 보이는 부분인 속제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제일의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의학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현대의학에서는 인간의 몸은 오로지 현미경으로 보이는 부분인 분자까지의 존재만 인정하고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인,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의제와 같은 것은 알지 못한다.

사람의 몸도 속제 · 제일의제로 구성

DNA 정보는 정보장인 진제에 존재

그러면 과연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및 장기 등은 이중 구조를 하고 있는지 최근의 과학 지식으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장 먼저 DNA 분자는 그 속에 진제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필자는 현대 과학 용어 중에 불교의 진제와 가장 어울리는 용어는 정보장, 에너지장 혹은 정보-에너지장으로 가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헌을 고찰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포포닌(V. Poponin) 박사는 DNA분자에 레이저를 비추어 회절 패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DNA의 회절상이 DNA를 제거한 후에도 여러 주일 동안 남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DNA의 환영 현상(phantom effect)이라고 불렀다. 이같은 DNA의 환영 현상이 생기는 것은 DNA의 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산타페 연구소의 진화 생물학자 카프만(S. Kauffman)은 유전자 게놈(genome)에 대한 이진(二進) 연결망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이같은 게놈의 이진 연결망이 가능한 것은 게놈에 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내과의사 초프라(D. Chopra)는 유전학자들이 DNA라는 분자 자체에 정보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양자물리학이 없던 시절에 막연히 생각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DNA도 양자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입자와 파동의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정보는 DNA의 입자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DNA의 파동, 즉 정보장에 들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정보장은 진제(眞諦)를 말한다.

미국 프린스톤대학의 공대교수 잔(R.G. Jahn)은 바이러스(RNA 혹은 DNA로 됨)도 정보를 만들어내고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다며, 그 때문에 정보장(진제)을 갖고 있다고 했다.

독일 생물 물리학자 포프(F.A. Popp)는 DNA로부터 생체광자(biophoton)가 방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생체광자는 DNA의 정보장(진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불교의 '이제'의 원리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DNA의 정보 프로그램은 분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DNA의 정보장, 즉 불교 용어로 말하면 진제에 있다는 사실이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초파일 기간 성원에 보답 **35% 할인판매**

특별 무료보시품 — 본 기간 중 주문하시는 모든 스님들께 고성능 마이크 1대(가격 : 75,000원) 무료 보시!

※ 할인판매 기간 : 6월 10일 까지 품목별 선착순



아무리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리게 하는 기적의 高性能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 판매가 : ~~250,000원~~

⇒ 선착순 20분께
● 특별가 : **165,000원**



법당전용 高音質 스피커
모델 : YM-520
● 판매가 : ~~500,000원~~

⇒ 선착순 10분께
● 특별가 : **330,000원**

◇ 최고급 무선마이크 2인용 1조 ◇
1셋트 판매가 : ~~550,000원~~
⇒ 선착순 10분께
● 특별가 : **380,000원**

송금구좌 : 하나은행 예금주 : 김문화
369-810664-39707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20화)

"지혜로운 자의 행동"

〈출전 : 중아함경 제 43: 온천림천경: 1-697상〉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생명수

진리를 따르라

연천의 어느 종교 단체가 합숙하는 곳에서 주검이 발견되었다. 인근의 우물 물이 생명수라며 이것으로 그 주검들을 부활시키려 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흔히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믿고 따르나" 하며 코웃음을 치겠지만 경찰과 대치하는 사람이 70여 명 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퍽 소중한 종교인 모양이다.

일본에서도 요즘 '파나웨이브 연구소'라는 이름의 '백색 집단'이 화제다. 흰 옷을 입고 흰색 차량을 타고 거의 한 달 동안을 이동하고 있는 중인데, 며칠씩 머물 때면 사방에 흰 천을 두른다. 흰색의 이유는 간단하다. 전자기파가 몸에 해롭기 때문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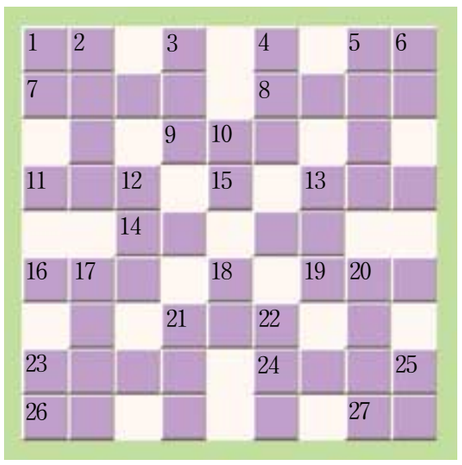
선재가 어릴 적 보던 공상과학 이야기에서 그리던 21세기는 첨단 과학이 지배하는 별천지였다. 그만큼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21세기인데 이 시기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종교 이야기가 뉴스에서 전해지는 것을 보면 선재는 참 신기하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굵직한 사회면을 장식했던 사건도 종교 관련이었고, PD수첩류의 고발 방송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소재도 바로 종교 이야기였다. 21세기는 종교의 시대란 말인가.

사회면에 등장하는 종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른다는 점이다. 불교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느 날 나뭇잎 하나를 들고 "내가 깨달은 법에서 너희에게 설하는 것은 이 나뭇잎 하나 정도에 불과 한 것이다."(잡아함) 하고 스스로 겸손해한다. 석가모니라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아함 〈유행경〉의 "자신을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지 말며 진리를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는 사실 별 게 아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당연한 말들,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수일 뿐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422호 「교리퍼즐」 정답〉

삼	보		벽		초		아	상
일	석	이	조		파	파	라	치
	상		목	요	일		한	
동	자	승		술		인	과	설
		리	더		사	절		
우	월	감		국		미	시	령
	례		한	민	족		주	
기	회	주	의		두	두	물	물
법	의		사		리		품	의

가로

1. 출생이나 신분, 경력 등에 관한 일 5. 씨앗을 뿌림 7. 범죄자를 판결에 의해 사형할 수 있도록 한 제도 8. 선방 등에서 쓰는 죽비로 여느 죽비보다 큰 것 9. 사단급 이상의 부대를 통수하는 본부 11. 지붕의 처마끝을 꾸미는 수키와 또는 그 끝에 달린 무늬가 새겨진 부분 13. 불심 돈독한 여성 프로골퍼, 미국 LPGA 챔피언 등 세계적인 스타 14. 본지의 연재만화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의 주인공 동승의 이름 15. 야구에서 쓰리 아웃으로 퇴장 16. 둥근 달 모양의 등 19. 힘이 산이라도 빼어 던질만 함 '○○○기개세' 21. 기상 관측 예보 등의 임무를 맡은 공기관 23. 부처님은 4생의 자비로운 아버지 24. 중국 허운 화상이 쓴 책으로 참선시 지켜야할 마음가짐 등을 서술함 26. 담배 27. 부처님 법은 꺼지지 않는 등불.

세로

1. 숙녀의 반대말 2. 원형질로 형성된 껍질 3. 큰 길로 이끌어 주시는 스승, 부처님은 삼계의 ○○○ 4. 장하고 씩씩한 사나이 5. 감히 대적 할 수 없을 정도로 막힘없이 뻗어 나가는 기세 6. 종단에서 쓰는 비용 10. 영리하고 민첩함 12. 새우처럼 굽은 등 13. 박진감 있게 나아가는 힘 17. 2년생 식물, 해걸이 풀 18. 평이하고 일상적임 20. 인위적으로 체온을 높여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 21. 기부 한 돈 22. 크게 잘못을 뉘우쳐 참회함 23. 일의 앞과 뒤 사정과 까닭 25. 종이로 만든 등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

은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불교입니다.
해 학이 담긴 만화와 교양이 되는 불교상식을 한꺼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 련회, 각종 법회 등 불교행사시에 법보시나 선물용으로도 최고!

글 방경일 · 그림 김장열 | 분량 272쪽 4×6변형판 컬러인쇄 | 값 10,000원

불교설법전서 9권 발간

"스님과 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 모두 구입하실 경우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불교설법전서〉는 행사 · 교리 · 불사 · 비유설화 · 시사 등 설법에 필요한 각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스님과 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1권(500쪽) 3만원 · 6권(816쪽) 5만원
2권(536쪽) 4만원 · 7권(864쪽) 5만원
3권(612쪽) 4만원 · 8권(730쪽) 5만원
4권(768쪽) 4만원 · 9권(720쪽) 5만원
5권(720쪽) 4만원

지금 여기에서 100% 행복해지는 연습

실험처럼 살·아·라



"읽는 순간 마음이 행복해지는 책"

이 책에서 페마 최된 스님은 우리 눈앞에 닥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또한 세상에 가득한 유머, 융통성, 용기, 지혜의 원천을 찾아 주는 수행법들이 가득 담겨 있다.

페마 최된 지음 · 진우기 옮김 | 신국판 양장본 | 분량 176쪽 | 값 8,000원

神妙章句大陀羅尼 講解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불자들이 수지 독송해온 신묘장구대다라니, 생명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말로 풀이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고 있노라면,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으신 관세음보살님이 고난에 찌든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시는 듯하다.

동양승가대학교 교수 본각 스님

저자 원근동 | 한형 신국판 양장본 | 분량 208쪽 | 값 10,000원

설법연구원 · 도서출판 솔바람 전화 (02)720-0824 전송 (02)722-876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403호
E-mail : sulpub@hananet.net

한암 · 서암 스님의 주옥같은 가르침



"내가 먼저 실행한 뒤에 말을 하면 사람이 반드시 믿고, 내가 먼저 실행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면 사람이 반드시 믿지 않나니, 믿지 않는 말을 하는 이는 어리석은 범부요, 믿음의 말을 하는 이는 성현이다."
('할' 중에서)

"스님, 좋은 말씀 좀 해 주세요.""좋은 말이 모자라서 세상이 이 모양인가? 부처님과 다른 옛 성현들이 넘칠만큼 좋은 말씀을 해놓았지 않는가? 하나라도 실천해야지."
('소리없는 소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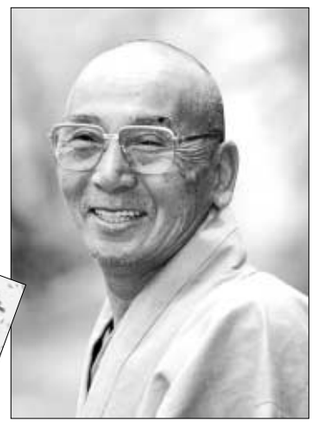
'할'

한암 대종사 지음 / 홍신선 주해

휴먼북스 / 1만원

조계종 종정으로서 20세기 한국 불교계를 이끌었던 한암 대종사(漢岩 · 1876~1951)와 서암(西庵 · 1917~2003) 스님의 주옥같은 가르침을 담은 책이 나란히 출간됐다. 우선<할(喝)>은 한암 스님의 활구 법문을 시인 홍신선씨(동국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현대어로 풀어쓴 대중적 주해서다. 그리고 <소리없는 소리>는 지난 3월 문경 봉암사에서 입적한 서암 스님을 모신 시자(侍者)들의 기억속에 묻어둔 스님의 자취와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다.





'소리없는 소리'

서암 스님 시자 엮음

시월 / 8천5백원

30년대 기고문 · 설법 · 편지 등 정리
"용맹 · 견실심 일으켜야 결실 가능"

한국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선사의 가르침을 받은 후 오대산에서 수행한 한암 스님은 높은 문장력을 지녔으나 평소 저술에는 관심이 없었다. 스님이 생전에 남긴 책이라곤 <일발록>이 유일했으나 1941년 월정사 화재로 소실됐다. 이후 95년 한암문도회가 <한암일발록>을 간행했으나 이것마저도 문중에서 돌려보는 데에 그쳤다. 이번 책 <할>은 한암스님의 높은 뜻과 고매한 설법을 일반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할>은 1930년대 불교잡지에 실린 한암스님의 기고들과 설법, '선문답' '참선곡' '선원규례', 경봉 · 탄허 스님에게 보낸 편지, 경허 스님에 대한 행장 등이 들어 있다. 평소 참선과 교리 공부를 강조한 스님의 글을 모아 놓아서인지 감성보다는 이성과 논리가 강하다는 느낌을 준다.

한암 스님은 이 책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히 해야 될 일에 대하여 결단코 한번 해보겠다는 용맹심, 정직심, 견실심을 일으켜야 크고 작든 간에 모두 이뤄 낸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예로 스님은 "법상선사는 30년을 대매산에서 연잎 옷을 입고 송화가루만 먹으며 수행했고, 현사화상은 기운이 지탱할 만큼만 밥을 먹고 하루종일 화두를 들었다"고 소개한다.

이에 비해 <소리없는 소리> 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 뒤에야 나오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지혜와 기지가 번뜩인다. 특히 상(相)을 드러내지 말라는 서암 스님의 평소 가르침 때문일까. 지은이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시자 엮음'이라고 달아놓은 앞장을 보면 책장을 넘기기 전부터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된다.

서암 스님은 서울에 오실때나 지방에 가실 때 값싼 통일호 열차를 이용했다. 의자가 딱딱해서 참선하기에 좋다는 것이다. 또 혹 빈방에 전등이라도 켜놓은 것을 발견하시면 "너희 아버지가 한국전력 사장이라도 되느냐"며 "시주는 스님들이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신도들이 피와 땀을 모아 내놓는 것인데 왜 불필요하게 낭비하느냐"고 불호령을 내렸다.

법문마다 촌철살인의 지혜 · 기지
고무신 꿰매자 "중노릇은 그렇게"

시자가 떨어진 고무신을 꿰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래, 중노릇은 그렇게 수수하게 하는 거다"라고 등을 두드린다.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행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참구하라고 가르친 점은 두 스님 모두 동일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인간 만사 마음먹기에…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

혜인 스님 지음

삶과 꿈 / 9천5백원



삶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혜인 스님(불심사 주지)의 수필집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는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

이 책은 그동안 여러 잡지에 기고했던 글과 평소 스님이 수행하며 깨달은 단상을 글로 옮긴 것들이 대부분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재산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평온한 시간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갖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손에 넣고 우아한 생활을 즐겨도 마음이 평온할 수 없다면 숨이 막혀 풍족한 생활을 해도 짜증나고 지쳐버린다는 것이다.

반면 가난하거나 병들어 있어도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가치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인간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므로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평온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강조한다.

'인생을 되돌아보며',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 '평온한 삶을 위하여' 등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소제목들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며 한번쯤 부딪혔을 고민과 평소 꿈꾸는 진지한 삶의 화두들이다. 그래서 빛바랜 일기장을 꺼내보듯 정겹고 소담스러운 느낌을 준다. 살뜰한 내용으로 가득찬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품었던 고민은 훌쩍 책장 밖으로 달아난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 동화책

동화로 읽는 청담 스님이야기

'마음동자'

글 공광규 / 그림 현담 스님

화남 / 9천원



조계종 2대 종정과 초대 총무원장, 선학원 이사장 등을 지낸 청담 스님은 일찍이 성철 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의 정화운동을 주도했다. <마음동자>는 청담 스님 열반 31주기 만에 동화로 일대기를 소개한 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청담 스님의 유년시절 에피소드와 출가 이후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리고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하며 한국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기까지의 이야기들이 삽화와 함께 실려 있다.

스님들의 생명존중사상 담아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글 김종상 / 그림 김재홍

파랑새어린이 / 8천8백원



옛 스님들의 생명존중 사상을 담은 어린이 그림책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는 사구게(四句偈) 형식의 교훈적인 내용들이 가득하다. 이를테면 '옛날 스님들은 좋은 신발을 두고도 엉성한 짚신을 신었대요. 벌레가 밟혀도 죽지 말라고'와 같은 식이다. 글자수가 적어 눈으로는 금방 읽혀지지만, 감동적인 내용이 많아 여운이 오래 남는다. <동강의 아이들>의 그림작가 김재홍씨의 은은한 파스텔톤 삽화도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남 돕는 일이 행복' 깨닫게

'꼬마 돌부처'

글 하오 광차이 / 그림 J 페리/ 박지민 옮김

예림당 / 8천원



어린이 그림 동화 <꼬마 돌부처>에 나오는 주인공은 제목에서 암시하듯 귀여운 돌부처다. 별안간 번개를 맞고 산에서 굴러온 돌! 그 돌은 다리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자 구실, 우연히 만난 돌장이에게는 돌부처 즉 꼬마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나 세상과 어울린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꼬마 부처님은 '남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커다란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바로 남의 어려움을 함께 하라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스님	시공사
2	화	틱낫한	명진
3	유혹	성전스님	북로드
4	유식 30송	서광스님	불광
5	스님 사랑하면 안되나요	월성스님	웃는나무
6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스님	효림
7	물은 답을 알고 있다 2	에모토 마사루	나무심는사람
8	힘	틱낫한	명진
9	니가 누고?	경봉스님	Human&Books
10	소리없는 소리	서암스님	시월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 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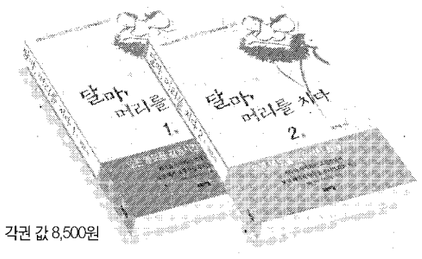
고요아침 전화 : (02) 322-0036 팩스 : (02) 322-3674 홈페이지: www.oachim.co.kr 도매일원화(주)한국출판유통 전화 : (031) 945-2900

일본 열도를 감동시킨 화제의 책!
자아를 속박하는 고정관념이 보일 때까지 당신을 무너뜨리는 책!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평

달마, 머리를 치다 1, 2권

전등록傳燈錄 마침내 책으로 나오다!
달마 이후 대선사들이 나눈 선문답으로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깨달음의 말씀

법회 선사가 있었다. 법회는 저 유명한 마조 도일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대답했다.
"이리 잠자코 오너라." 법회가 공손히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마조가 한 주먹 휘어박았다.
그리고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귀가 여섯이 있어서 은근한 모의를 할 수 없다.
내일 다시 오너라."
—「머리에서 벗어나라」 중에서



素空慈 지음 | 각권 값 8,500원

꽃과 소쇄한 바람이 가득찬 산사에서 들려주는 신선한 법문!

내가 나를 만나러 가다

마음 명상 태교 차와 선시의 향기를 따라
스스로 마음자리의 등불을 밝혀라



석성우 스님 지음 | 값 8,500원

석성우 스님이 전하는
진실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어지러운 세상에 스스로 몸을 바르게 하는 명상,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 위한 태아 교육법

무심 경허 큰 스님의 유일한 법어집
비바람 눈보라치는 텅빈 산, 붓을 잡아도 한 치 걸림도 없이 문장 구절 구절마다 경허 스님의 글은 만법이요 시이다. —중앙일보 경허 큰스님 지음 | 변역 석 명정 | 값 8,500원

마음꽃 경허 큰 스님이 던져주는 마음의 화두
「마음꽃」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닦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다.
— 조선일보 〈편집자 레터〉 경허 큰스님 지음 | 값 11,000원

편지 성철, 만해, 경봉, 효봉 스님이 나눈 편지
「편지」는 있는 그대로가 '금언집'이며 한국 근대 불교사의 증언이다 — 중앙일보
경허, 만해 성철, 효봉스님 外 | 값 9,000원

천년신비 '핸드 포토' 불교자수 간직하세요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세계 최고 최대의 예술적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전통 손자수를 어떤 형태의 주문에도 만족하게 제작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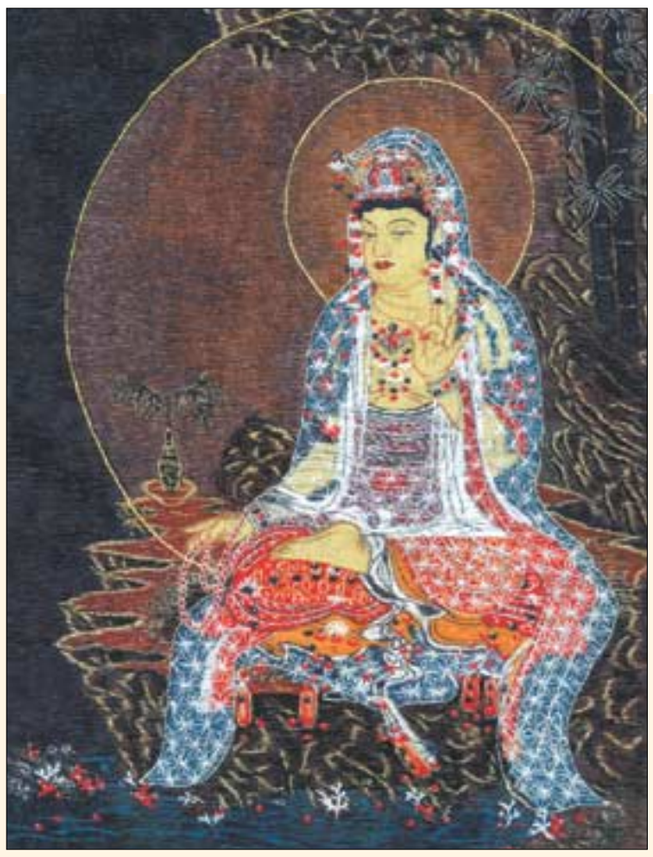
누구든 원하는 소재 · 크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스님)이 주최한 한국의 큰스님 20분의 진영 자수전시회 '아! 큰스님' 展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어른스님들과 각 문중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성료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최대의 창작단체인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으로 남한의 불교와 북한의 예술과의 만남을 시도한 이번 전시를 후원해주신 문화관광부 · 봉축위원회 · 핸드코리아 관계자들과 성원해주신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시작품에 대한 구입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본사는 북한 만수대창작사와 추가 주문에 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시 작품은 물론 개인적으로 자수 제작을 원하시는 초상 작품이나 불화 석조 조형물 등 간직하고 싶은 귀한 조형물 작품에 대해서도 주문을 받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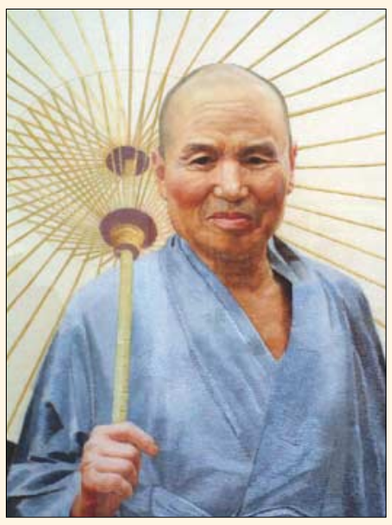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수월관음)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지장보살)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효봉 스님 진영 전신모습)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우산속의 스님)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석굴암부처님 불두)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가족사진)

'단 하나뿐인 명품' 세계적 인정

명주실 · 천연염료 사용 … 사진보다 더 사실감

만수대창작사 핸드포토 불교자수 특징

법당 탱화로 적격

법당을 신축 증 개축하거나 불보살님을 모시려는 사찰에서는 한땀 한땀 손자수로 수놓은 불화나 탱화로 모시기를 권합니다.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자수 작품은 가는 명주실과 천연염료를 사용해 일일이 손으로 수놓았으며 한땀한땀 정예의 소속 단원들이 만듭니다.

자수는 예술적인 면에서 그림이자 입체감이 있는 부조품이며, 그 정교하기가 사진보다 더욱 세밀하고 사실감이 납니다.

또한 예술로서 자수라는 장르는 워낙 공이 많이 들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명맥만을 이어갈 정도로 어렵게 전승되고 있는 분야로서 다만, 북한사회의 특수성으로 유일하게 번창해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 손자수라는 기법적 특성으로 이 작품들은 현대불교미술품으로 평가받아 대대손손 가보로 소장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높은 손자수

국내 전통자수는 고 임금 저 효율의 작업상의 특성으로 70년대 이후 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한복 자수와 특수한 목적의 종교화 등 몇 안되는 분야에서 근근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북한의 자수는 전통자수 외에도 핸드포토(초상자수), 종교화, 소품 등으로 오히려 그 장르의 범위를 확대시켜 가며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세계적으로 '근세 예술의 극치'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진가 더해

초상자수는 한 가지 대상을 놓고 100점을 제작할 경우라도 자수를 놓는 장인의 해석과 개성 및 역량에 따라 각각 다른 감각과 질의 작품이 창작되기 때문에 세계에 단 하나 뿐인 명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동양의 사상 문화가 다시 조명받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만수대창작사'의 초상자수는 외국에서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가 더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 북한 미술계 리드

만수대창작사는 어떤곳?

59년 창립…최고 창작단체

만수대창작사는 1959년 11월17일 창립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직속의 북한내 최고최대의 창작단체이다.

평양시 평천구역 정평동에 위치한 만수대창작사에는 수예창작단을 비롯해 조선화창작단, 유화창작단, 벽화창작단, 조각창작단, 보석화창작단, 만년화창작단, 공예창작단, 도자기창작단, 출판화창작단, 부동산개각, 공예, 출판미술, 산업미술, 건축장식미술 등 각종 순수예술과 공예 예술품을 창작하고 있으며, 유명 월북화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가 소속되어 있다.

만수대창작사가 최대, 최고수준의 창작단체로 유지됨에 있어 예술적 기량과 우수한 예술가들의 확보는, 우선 평양미대졸업생 등 뛰어난 신진작가들의 입사와, 입사후 체계적인 창작수업을 통하여 이름난 예술가로 육성하

수예창작단 등 20개 제작단 … 인력 4천여명 보유

기념비 · 동상 · 벽화 등 30여개국에 수출 · 전시도

발창작단 등 각 분야별로 세분된 20여개의 창작단과 제작단에 100여명의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와 4,000여명의 성원(창작가와 지원인원,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및 고려무역상사 포함)들이 소속되어 회화, 조기도 하지만, 다른 창작사나 대학 교원, 무소속 예술가들 중에서 뛰어난 작가를 만수대창작사로 배치하여, 소속을 바꿈으로써 만수대창작사는 불변의 최고, 최대의 창작단체로 유지되고 있다.

용 도

* 불화(탱화, 불보살도)
* 불교인물화(역대고승, 종정등스님)
* 불교성보(탑, 종, 법당, 불상 등)
* 가족기념사진(결혼, 약혼, 회갑 등)
* 기업기념사진 (창업주초상, 승진, 당선축하외국인선물용등)
* 고급인테리어소품(호텔, 백화점, 공공건물, 가정집 등)
* 뜻깊은장면사진(역사적인장면, 기억에 새길경관 좋은 경치등)

주문시 유의사항

* 머리카락, 눈동자의 동공과 눈썹까지 또렷이 표현된 세밀한 사진일수록 좋습니다.
* 옷의 질감이나 문양이 그대로 표현되므로, 독특한 질감의 의복이나 화려한 의상일수록 작품이 더욱 돋보입니다.

주문 현대불교신문 전화 (02)732-1520 팩스 (02)727-0697
www.buddhanews.com

주문안내

* 대형(60cm×80cm)
* 중형(30cm×40cm)
* 소형(20cm×30cm)

특별보급 작품 (15×20cm)을 180,000원 특가로 판매합니다.
– 수월관음, 지장보살, 석굴암부처님 불두.
– 만공 · 한암 · 효봉 · 동산 · 청담 · 성철 스님 등 근세 고승 진영.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안거이야기

마침 5월 15일부터 하안거에 들어갔다. 하안거가 시작된 것이다. 부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 제자들 중 여섯 명의 비구들이 우기 때 탁발 수행하다가 강물이 범람해 의복과 발우 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미생물과 초목을 밟아서 비난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여, 너희들의 행동은 청정한 것이 아니다. 사문의 위의가 아니며, 출가인의 법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제부터는 안거(安居)를 지키도록 하라. 각자의 방과 침구를 정돈하라. 누울 자리가 없으면 앉아서 하라. 앉을 자리가 없으면 서서하라. 그대들이 안거를 위하여 왔을 때 바로 안거가 이루어진다. 비구들이여, 적당한 곳을 골라 미리 말하고 안거하라. 수행에 장애가 생기는 일이 있으면 곧 떠나라. 안거를 미리 약속하고 지키지 않거나, 안거 중 까닭 없이 떠나거나, 대중의 화합을 파괴하거나, 안거 중 허락된 7일간의 출타를 넘기고 돌아오지 않으면, 법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안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사분율)

안거는 특정 기간을 정해 대중들이 한 곳에 모여 정진하는 것이다. 안거의 원어는 바르시카(Varssika)로 이는 비(雨)를 의미하는 바르샤(Varsa)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음력 4월 15일부터 음력 7월 15일까지 3개월간인데, 이 때를 여름에 하는 안거라는 뜻으로 하안거(夏安居)라 한다. 또 겨울철인 음력 10월 15일부터 다음해 음력 1월 15일까지를 동안거(冬安居) 또는 설안거(雪安居)라 부른다. 안거 때는 일체의 외부출입을 삼가하고,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 부처님 재세 시에는 동굴이나 사원에 모여 좌선하고 수행에 몰두했다. 이후 안거하는 거처가 도량(道場)으로 자리를 잡았고, 안거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중요한 수행방법이 되었다.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 수행자들은 우기에 관계없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수행했다. 인도의 계절은 날씨의 특성상 크게 우기(雨期)와 건기(乾期)로 구분되는데, 여름철인 우기에는 땅속의 벌레들이 모두 땅 위로 나와 활동하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길을 다니다가 본의 아니게 살생을 범하기도 했다. 또한 폭풍우와 질병이 유행하는 시기이므로 탁발수행에도 적합한 계절은 아니었다. 때문에 부처님은 우기에는 외출하지 말고 수행정진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다. 안거에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배려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불교가 기원을 전후로 중국에 전래되어 토착화되는 기간은 대략 3-4백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래된 불교는 외국 승려들의 전도시기를 거쳐 중국인이 출가하여 중국불교의 주축을 이루는 시기로 발전한다. 이때부터 뜻을 같이 하는 승려나 승속이 어우러진 집단이 출현하여 자체의 규약을 정하고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여산 혜원의 백련결사를 비롯하여 석도안의 교단이 대표적이다. 특히 석도안은 교단의 운영법규를 정할 때 당시에 들어와 있던 여러 가지 계본(戒本)을 참고로 독자적인 규율을 제정하였다. 이런 전통은 남산율종의 성립으로 완전히 체계화된다. 대략 이때부터 중국에서도 하안거와 동안거를 중심으로 안거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반구의 겨울은 혹독하게 춥기 때문에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했다. 문화적 자연적 환경이 동안거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후 중국의 안거문화가 주변국가에 전파되어 독특한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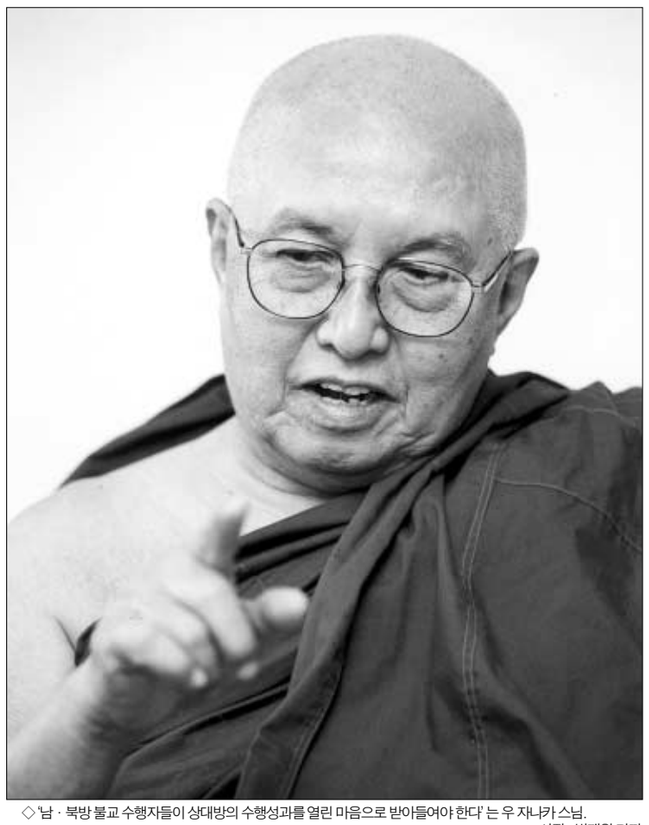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의 인도에서는 1년에 1회의 안거로써 수행에 전념케 하고 이를 근간으로 법랍(法臘)을 삼았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본래 여름철 우기와 관련이 있던 안거의 별칭에는 여름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안거의 다른 말로는 하행(夏行), 하경(夏經), 하서(夏書), 하단(夏斷), 좌하(坐夏), 좌랍(坐臘), 우안거(雨安居), 하안거(夏安居) 등이 있다.

안거에 들어갈 때는 결제(結制), 이를 끝낼 때는 해제(解制)라고 한다. 이 시기는 특별 정진(精進) 기간이나 마찬가지다. 해제 때는 제방을 유행하면서 대중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고 그들을 불국정토로 인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를 보통 만행기라 부르는데 일종의 방선 시기라 할 수 있다. 일거수 일투족을 수행의 연장으로 생각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지금도 안거 때마다 전국의 수많은 도량에는 불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정진한다. 각자의 근기에 따라 화두를 들기도 하고, 불보살의 명호를 염송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데 시기와 장소가 따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구도(求道)의 일념으로 정진하는 안거의 의미를 바르게 새긴다면 불국정토 건설은 그다지 요원하지 않을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여름 · 겨울철 일정기간 수행몰두
근기따라 화두삼매 · 불보살 염송



◇'남 · 북방 불교 수행자들이 상대방의 수행성과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우 자나카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지상 백고좌

우 자나카스님

(미얀마 찬메수행센터 원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평화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여정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분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해서 발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괴로움을 없애버리려고 했을 때, 그는 그 원인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는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渴愛)임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갈애를 없애버릴 수 있을 때, 그는 틀림없이 괴로움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이 갈애 역시 어떤 원인에 의존해서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갈애의 원인은 잘못된 견해(邪見)임을 발견했습니다. 잘못된 견해란, 영혼, 자아, 나, 너, 인격 또는 개체 등에 대한 잘못된 견해이며, 유신견(有身見) 또는 아견(我見)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신견 또는 아견이, 괴로움을 야기시키는 갈애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견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정신(名; naama)과 육체(色; ruupa)의 자연스런 흐름(과정)에 대한 무지(無知; moha)가 영혼이나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의 원인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과정을 그 진정한 본질의 측면에서 자각하거나 바르게 이해(正見)함으로써, 우리는 무지를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緣起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신 · 육체현상 바르게 이해하면
원인 · 결과의 법칙 쉽게 알게돼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몸의 두 가지 과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마음챙김(주시함 또는 알아차림; being mindful) 한다면 그것의 내재적인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 분석함 없이, 논리적으로 사고함 없이, 철학적으로 생각함 없이, 선입견 없이, 그것이 실제로 발생하는 그대로 관찰하고 지켜보고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우 주의 깊어야만 하고, 있는 그대로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 챙겨야 합니다.

몸에서 뜨거움을 느낄 때, 우리는 뜨거움을 뜨거운 느낌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통증을 느낄 때, 그것을 통증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행복을 느낄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분노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슬픔이나 실망을 느낄 때, 우리는 슬픔과 실망이라는 감정의 상태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모든 정신적 육체적인 과정들을 그것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그것들의 참된 본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바른 이해에 의해 무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무지가 제거되면, 우리는 마음-몸의 과정을 사람, 존재, 영혼 또는 자아라고 간주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마음-몸의 과정을 단순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어떠한 갈애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갈애가 깨져버릴 때, 우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며, 괴로움의 소멸(涅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참된 본질에서의 마음-몸에 대한 마음챙김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네 가지 마음챙김(四念處)'에 대해 설하신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신과 육체의 현상에 대해, 실제로 있는 그대로 마음 챙기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몸의 과정에 대해 마음챙겨야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체적



◇캐나다인 제자 우 왐사라키타(U Vamsarakhita · 右)스님과 함께 전법여행 중인 우자나카 스님.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 대 지 : 총 159평
● 건 물 : 1층 요사채 50평(실평수 60평)
2층 법당 25평(목조건물 단청 되있음)
창고 有, 산신각(목조건물), 용왕
물(지하 암반수), 수도물, 난방(심야전기),
부속건물 20평, 방6개, 화장실 3개
● 교통편리, 주차 20대이상 가능
● 가 액 : 7억(절충가능)

031)469-5476
011)9012-8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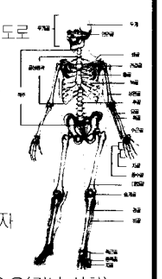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 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법 교육(저녁7시~9시)
숨차지 않고 헐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립고 다리,무릎,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흡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참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3년 5월 31일 토요일
조계사앞 (4시)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 문의 : 양 현 숙 011)222-3329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 중심 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월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하차 전화 요망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춘하모직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적삼 · 바지 : 100,000 ~ 130,000
동방 · 바지 : 130,000 ~ 160,000
두 루 막 : 100,000 ~ 130,000
2. 무 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동방 · 바지 : 220,000
두 루 막 : 180,000



3. 조각무늬 면 100% 한국산먹물, 손염색
광목 - 적삼 · 바지 : 110,000 ~ 130,000
동방 · 바지 : 140,000 ~ 160,000
두 루 막 : 110,000 ~ 130,000
4. 면 래푸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동방 · 바지 : 160,000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썸머쿨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망 · 손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마음챙김·집중' 지혜의 길 장엄

있는 그대로 마음 챙길때
어떠한 갈애도 생기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열반) 얻게 돼



우 자나카 스님은?

세계적으로 위빠사나 수행법을 대중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미얀마의 마하시 선사(Mahasi Sayada: 1904-1982)의 직제자인 미얀마의 우 자나카 비왐사 스님(Sayadaw U Janakabhivamsa: 1928~). 1979년부터 세계 30여국을 순방하며 법을 전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지난 92년부터 6차례 방문해 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있는 우 자나카 스님이 천안 호두마을에서 20일간의 집중수행(5월20일~6월8일)을 지도하기 위해 방한했다. 5월18일 인천의 미얀마 노동자를 위한 법회에 앞서 로버트호텔에서 친견한 스님은 "세계가 한 가족

세계 30개국 순방 위빠사나 대중화 기여
6번째 방한…20일부터 천안서 수행지도

인 과정에 대한 마음챙김, 느낌 또는 감각에 대한 마음챙김, 마음(의식)에 대한 마음챙김, 마음의 현상들에 대한 마음챙김 등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위빠사나(vipassanaa)는 두 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법(Dhamma)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위(vi)'라는 말은, 마음과 몸의 세 가지 특성인 무상, 불만족 또는 괴로움, 무영혼, 무아 또는 에고가 없음을 말합니다. '빠싸나(passanaa)'라는 말은, 바른 이해 또는 깊은 마음집중을 통한 깨달음, 또는 마음과 몸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뜻합니다. 위빠사나 수행 또는 마음챙김 수행을 할 때, 그 목적은 현상의 세 가지 특성인 무상, 고, 무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의 세 가지 특성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탐욕, 욕정, 욕망, 갈망, 분노, 악의, 질투, 아만, 혼침과 수면, 슬픔과 걱정, 들뜸과 회한 등과 같은 온갖 번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번뇌들을 없애버렸을 때, 우리는 해탈 또는 괴로움의 소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 처음 위빠사나 수행을 할 때 초심자는 무엇을 알아차려야 할지 혼동되기도 합니다. 수행자는 복부의 일어나고 꺼지는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배가 불러올 때는 '일어남', 배가 꺼질 때는 '사라짐' 하고 마음속으로 알아차리라고 마하시 선사는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대념처경>에서 네 요소(四大)에 대한 부분에 따른 수행법입니다. 복부의 움직임은 바람의 요소(風界)입니다. 각각의 요소는 개별적이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요소(地界)는,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그 고유한 특성입니다.

우 자나카 스님은 "납-북방 불교 수행자들은 상호간의 단점을 비방하지 말고 상대방의 수행 성과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최근 대만에서 빨리 삼장을 모두 번역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우 자나카 스님은 마하시 위빠사나의 장점을 <대념처경> 등 경전에 근거한 점이라고 설명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 매순간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된 오늘날 인터넷과 방송 등 각종 정보매체를 활용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전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의 근본불교에 대한 관심 고조와 관련, 우 자나카 스님은 "납-북방 불교 수행자들은 상호간의 단점을 비방하지 말고 상대방의 수행 성과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최근 대만에서 빨리 삼장을 모두 번역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우 자나카 스님은 마하시 위빠사나의 장점을 <대념처경> 등 경전에 근거한 점이라고 설명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 매순간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자나카 스님은 15세에 출가하여 사미가 되었고, 1947년에 비구계를 받았다.

1957년 스리랑카에서 6년 동안 영어, 싱할리어, 산스크리트어, 힌디어 등을 공부하고 1967년부터 마하시 수행센터의 지도법사(Nayaka Sayadaw)가 되어 수행을 지도했다. 신자들에 의해 1977년에 기증된 찬메수행센터(Chanmyay Yeitha Meditation Center)의 원장으로 위빠사나를 지도해오고 있으며, 그때부터 찬메 사야도로 불리운다.

물의 요소(水界)는, 유동성과 팽창성이 그 고유한 특성입니다. 불의 요소(火界)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그 고유한 특성입니다. 바람의 요소(風界)는, 움직임, 지탱해 주는 힘이 그 고유한 특성입니다.

만일 수행자가 복부의 움직임에 마음을 챙겨서 자각할 때, 그는 바람의 요소의 참된 본질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으며,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복부의 움직임을 느낄 수 없다면, 처음에는 손을 배 위에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빨리 하거나 심호흡을 하지 마십시오. 숨을 빠르게 하거나 심호흡을 하면, 지치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십시오. 복부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명확해지면, 알아차림의 횟수를 늘려야 합니다. '일어남, 일어남, 일어남', '사라짐, 사라짐, 사라짐' 하면서 움직임이 빨라지면, 보통 때처럼 알아차리면 됩니다. 수행자는, 처음에 복부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라고 지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애착해서는 안됩니다. 이 복부의 움직임은 유일한 대상이 아니라, 위빠사나 수행의 다양한 대상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소리가 들린다면, '들림'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충분히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난 후에라야, 수행자는 일차적인 수행의 대상 즉, '일어남-사라짐'으로 되돌아갑니다. 만일 일어남과 사라짐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를 '앉음' 또는 '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좌선을 하는 동안에는 눈을 뜨지 마세요. 눈을 뜨면, '마음집중이 깨집니다. 1시간 동안의 좌선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앉아 있도록 하십시오. 자세는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라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모든 먹는 행위와 동작에 대해서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목욕을 할 때, 옷을 입을 때, 물을 마실 때, 여러분은 모든 행위를 천천히 해야 하며 ' 그 움직임을 관찰해야 합니다. 앉을 때에도' 모든 앉는 움직임을 알아차리면서 아주 천천히 앉아야 합니다. 일어날 때에도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면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과정을 그 참된 본질에서 자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과정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생겨났다가는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과정들의 이러한 참된 본질을 자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念)과 마음집중(定)은 지혜(慧)가 펼쳐지기 위한 길을 장엄해 줍니다. 마음챙김이 이어질 때, 마음집중은 자연스럽게 더욱 심화됩니다. 마음집중이 더욱 심화될 때, 지혜는 저절로 펼쳐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어짐 없이 마음챙김을 지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심산스님의
스님이야기
도국 스님



출가 수행자에게 있어 자존심은 생명이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보편적인 탐욕으로부터의 탈출을 출가에 비유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보면 출가한 수행자들은 어디에서든 당당한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벌써 몇 년째 같이 살고 있는 도국스님은 그런 면에서는 남다른 자존심을 가진 스님이다. 훤칠한 체구와 하얀 피부는 보기만 해도 호감 가는 스님상이고, 매사를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보여주는 굿굿한 자존심은 도국스님만의 매력이다. 스님은 출가 수행자의 남다른 자부심이 삶 속에 그대로 배어있다. 가끔 언론에 스님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는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분개한다. 그것은 곧 출가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스님은 청소년 법회에 나오는 아이들, 특히 대학생을 포함한 종무소 직원들의 옷차림과 화장



그림 · 문병성

에까지 잔잔한 간섭을 마다하지 않는다. 옷이 단정치 못하다는 것에서부터 액세서리하나까지 은근히 지적하고 다독인다. 그때는 영락없는 노장이다. 요즘같이 자유분방한 세대에게는 숨 막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느 광고 카피처럼 '지킬 것은 지켜야 하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소신 앞에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본인이 아랫사람에게 반듯한 모습을 요구하는 만큼, 도국스님 또한 같이 사는 스님들에게 스스로 반듯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단순한 예절은 물론 인간관계의 위계질서에 있어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엄격하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해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다. 신도들은 그런 점을 높이 사는 것이다. 도국스님은 당연한 결과를 예측하는 일이긴 하지만 사소한 결정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물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때에도 먼저 의견을 내세워 고집하지 않고 언제나 윗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결코 짧지 않는 세월을 같이 하는 동안 따뜻했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나름의 소신으로 살던 도국스님이 어느 날 통도사 승가대학을 다시 입학했다. 강원을 졸업하고 말사에서 몇 년씩 기도정진 하다가 다시 발심해서 후배 스님들과 함께 학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의지가 분명하고 뚜렷한 소신을 가진 그에게는 강원생활이 즐겁기만 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스님의 모습이 좋아서 신도들이 기뻐했다.

그런 오랜 세월의 강원생활 덕분인지, 조석예불에 치는 사물 중에서 법고에 관한한 자부심을 가질 만큼 북의 대가이다. 박자 감각도 남다르고, 치는 모습도 가벼워서 너나할 것 없이 한마디로 신명이 난다. 포교원을 운영하던 어느 해는 개원 5주년 기념으로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문화예술제를 열었는데, 그때도 개막을 알리는 첫 순서는 도국스님의 법고였다. 장엄한 울림 속에 북의 테두리를 치는 딱딱한 고음은 내면을 휘돌아 내뱉는 법열 자체이다. 그 이후로는 행사 때 북을 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도국스님이다. 북을 한번 치고 나면 그 울림의 감동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간직되는 힘을 갖고 있었다.

강원을 두 번 졸업하는 열의를 보인 도국스님이 이번에는 선방을 간다고 갔다. 곡성 태안사에

남다른 자존심 · 스스로에 엄격
법고의 대가…장엄한 감동 자체

서 첫 안거를 지냈다. 강원과는 또 다른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환희에 차 있었다. 한 철을 끝내고 다시 돌아 왔을 때는 몸도 마음도 한결 성숙된 모습이었다. 동진출가라 항상 어리게만 느꼈었는데 이제는 세월의 무게가 제법 느껴지는 듯 했다. 그리고 평소에 보여주었던 출가자의 소신이 더욱 무르익어 감을 실감했다.

"불법이 쇠락하는 것을 정말로 염려한다면 자기부터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고 덕망 있는 이를 받들고 마음이 간사한 사람을 멀리해야한다."고 <선림보훈>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시대에 정말로 부처님의 법이 쇠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출가자가 자기부터 바르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어느새 함께 산지도 십년 세월을 헤아리고 있다. 처음에 보여주었던 앳된 모습을 벗고 갈수록 성숙되어가는 도국스님을 보면서 참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감투와 경력을 가졌다 해도 내면에 올바른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행이라는 자체가 사상누각에 불과한 일인데 의외로 보기 드문 수행자의 자존심과 소신을 확인할 때는 희망과 함께 고마움을 느낀다.

■ (사)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반야심경반지



반야심경 270자가 각인된 반지를 펼친 모습

국내 최초로 제작된 반야심경반지
18K Gold 폭 8mm 5.5g (수공이므로 ±5% 오차)
반지 내부에는 반야심경 전문 270자가 정밀하게 각인(양각)되어 있고
외부에는 연꽃을 형상화 한 문양이 새겨져 있음.

농 협 131-01-368761 예금주: (주) 엑스피아 금액: 198,000원

주식회사 엑스피아
문의및신청전화 031-382-3719, 080-382-3719
홈페이지 http://www.xpialand.com

공 고

본 종단은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에 등록되어 있으나 각 사암별 사찰 등록증이 일치 하지 않아 사찰 등록증을 재교부 코저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사찰등록증 및 승려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포교사증
2. 교부기간
   2003년 5월 26일부터 ~ 6월 30일까지
3. 구비서류
   구 승려증 및 사진 4장 (반명함판)

※ **전국 미등록 사찰 암자, 신규 등록도 받습니다.**

◎ **문의처**
총무원 **Tel : 055)883-7771, 7790**
Fax : 055)884-7791
011)368-2324

불기 2547(2003)년 5월 26일

주소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사)대한불교 무량종 총본산
총무원장 **혜 안** 합장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 / 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해독·항암 그리고 풍류…

세계인이 다함께 차차 茶



국내 차인 100만명, 효능에 관심 늘어
카페인 성분 함유, 빈속·소음인 피해야
'다례' 통해 현대인 정서 안정에 도움



오후에 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차는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빈 속에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한방에서 차는 찬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속이 냉한 소음인에게는 좋지 않다고 한다.

'다반사(茶飯事)'라는 말이 있다. 차 마시는 것이 밥 먹는 일 만큼이나 흔했을 만큼 우리 조상들은 늘 차를 가까이 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명맥이 끊어질 뻔 했던 우리 차문화가 지금은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며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차인(茶人)은 현재 약 100만명.

차(茶)를 마시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차가 비만 예방과 해독 작용, 항암 등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의 효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 차의 효능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효과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어 더욱 주목을 끈다. 그 일례로 지난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가 선정한 '몸에 좋은 식품' 중에는 '차'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양에 불고 있는 차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인 효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그렇다면 차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헌으로 보는 차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차는 소화를 도우며 머리와 눈을 맑게 할 뿐 아니라 독을 풀어주고 잠을 적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의방유취>에서도 "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음식의 독을 해독하는 최고의 명약"이라고 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차의 효능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이 혈당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 아니라 항균, 항산화, 혈압상승 억제, 입냄새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오동주 교수와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한영실 교수는 녹차의 항암 효과에 주목한다. 녹차의 주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이 여러 가지 물질과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발암물질의 작용 부위와 결합해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 레이먼드 스원스 박사는 녹차 잎에 뇌졸증에 의한 뇌손상을 감소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논문을 발표했고, 미국건강재단의 존 와이저버그 박사는 "40년 동안 암에 대해 연구한 결과 차를 마시면 방광암 유방암 결장암 췌장암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시즈오까현립대의 스기야마 박사팀은 차의 성분이 알레르기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차는 장에서 각종 식중독 세균을 죽이는 항균효과와 술과 담배의 독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체질에 따른 차 마시기

많은 효용에도 불구하고 차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차의 카페인 성분은 불면, 흥분, 두통, 귀울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에도 카페인 성분이 적지 않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면증 환자는

▷마음의 안정

차의 또 다른 효능은 바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각박한 현대의 도시생활에서 차를 마심으로써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를 다루는 사람의 정성과 차를 마시는 예의를 일컬어 '다례'라 하고 이러한 차 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깨달음을 '다도'라 한다. 이는 곧 찻물이 우러나는 동안 번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몸가짐을 바로 갖추는 행위에서 예가 묻어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은 "차 예절 교육을 통해 효(孝)와 예(禮), 지(智), 인(仁)의 정신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조주 스님이 말한 "차나 드시오"라는 뜻의 '끽다거(喫茶去)'로 상징되는 선차(禪茶)의 전통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차를 마시며 마음을 교감하는 참선구도의 자세와도 통하는 것이어서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사상을 낳았다. 이는 차 마시는 행위를 통해 깨달음의 깊은 뜻을 자연스레 헤아리게 된다는 뜻도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한 고리로써 차와 차문화를 꼽기도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차 이용 상품

식음료에서 생필품까지 녹차의 변신은 무궁무진

녹차가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아이스크림과 피자, 냉면 등의 식품을 비롯해 화장품, 구두 등의 제품까지 속속 선보이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건조시킨 차(茶) 형태로만 팔리던 녹차는 캔음료 제품이 출시되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초콜릿, 소주, 껌 등 녹차를 이용한 가공식품으로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같은 '녹차바람'이 생식품 시장을 파고들어 녹차국수, 녹차김치 등도 나오기에 이르렀다.

화장품과 생필품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화장품 업체들은 녹차 성분을 넣은 녹차 비누, 마사지용 녹차 팩, 세안용 티백, 향수, 샴푸, 린스 등을 이미 선보였다. 최근에는 녹차 성분을 첨가해 발 냄새를 억제해주는 '녹차구두'와 녹차와 쑥, 향나무, 전통한지 등을 혼합해 만든 벽지도 출시됐다.

이들 제품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국내 녹차 음료시장은 이미 200억원대를 훌쩍 넘겼고, 엘리자베스 아덴의 그린티 향수 스프레이는 10만개 이상 판매됐다.

태평양 설록차의 김영경 연구원은 "건강에 관심이 높은 현대인들이 녹차의 효능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차가 탄산음료와 달리 '순하고 자연스러운 맛'으로 다가가는 점도 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차와 건강

질병 극복에서 컴퓨터 증후군 완화까지

차를 음용함으로써 건강을 되찾았거나 녹차를 건강유지의 비결로 꼽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이 말하는 '차의 효능'은 무엇일까?

컴퓨터를 이용한 수술로 뇌종양과 파킨슨병을 치료하는데 국내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연세대 의대 신경외과 정상섭(62) 교수는 오전 6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녹차를 마시고, 하루 내내 보리차 마시듯 녹차를 즐긴다. 정 교수는 "차가 질병 예방 및 치료의 주된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건강에 이점이 많다"고 말한다.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김광수(57) 씨는 폐암 선고를 받은 후 차와 채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경우다. 의사에게서 길어야 6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를 마시게 됐다고 한다. 차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한을 넘긴 그는 이후 부산차인연합회 결성에 참여, 초대 감사로 차 알리기에 나섰다.

선경 정보시스템 김홍권(53) 씨는 2시간마다 휴식시간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차를 마시게 한다. 컴퓨터 등 전산기의 전자파로 인한 컴퓨터 증후군을 차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20년이 넘게 컴퓨터 관련 업종에 종사한 그는 컴퓨터를 오랫동안 마주하고 있으면 눈이 피로하고 머리가 아프며 집중력도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차가 컴퓨터 증후군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을 알게 돼 차를 즐겨 마시기 시작한 것이다.

차맥 지킴이

김의정(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명원문화재단 김의정(61, 서울시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 보유자) 이사장은 요즘 차의 날 기념행사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신의 농장을 오가며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차 문화 연구와 보급에 앞장서온 김 이사장을 만나 우리나라 차 문화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요즘 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차문화를 평가해 주신다면?

—"최근 몇 십년 사이에 우리 차 문화만의 전통을 되찾고 차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습니다. 차 문화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의 격조를 높이는 정신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차를 '건강음식'의 하나로만 여기는 경향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계 일부에서는 차의 대중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거나 혹은

몇 십년사이 눈부신 발전
문화형성, 유지에 노력해야

상업적 자본주의에 물들어 차문화의 정신이 퇴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양적 팽창과 더불어 차를 마시는 본래 의미도 함께 깨우쳐 갈 때 비로소 바람직한 차 문화가 형성되겠지요."

▲명원다법에서는 차를 마시는데 있어 예절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례는 일상 속의 예절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 줍니다. 문화적, 미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선차(禪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가에서 행하는 선(禪)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입니다. 하지만 선차는 이러한 정신세계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의선사로부터 내려오는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정신은 곧 선의 생활화, 평상심의 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로서의 '차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차 문화는 그 나라의 정신문화이자 자기 성찰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차 문화는 차 한 잔 놓고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평화로움으로 가는 또 하나의 디딤돌로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미암사 '쌀바위'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 바위의 영험이 자자하여
전국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소원성취를 기원하기 위한 발길이 연일 이어졌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는 쾌차하게 되었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었었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 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소원성취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소원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 지방문화재 자료 제371호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

통증없이 사는법

혜성지음 280면 값 6,000원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10년전 어느날 천주교 수녀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에게 권하셨고, 그 분들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수만명이 체험한 통증없이 사는 법! 지금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삼 성종합화학(주) 임직원들이 "기적의 건강법"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은 생활건강법.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通)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픈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양의학에서는 모든병은 氣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것이며 氣를 소통해주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몸속에서 氣와 血을 잘통하게 하면 어떠한 통증도 낫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스스로 막힌 경혈(통점)을 풀어서 통증을 치유시키는 자연 건강법이 소개되어 있다.

1000명중 999명이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통계가 나와있고, 중 고생중 5명에 1명꼴로 척추측만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외부로 부터 물리적 힘을 가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자기체중만으로 골반(척추)이 교정되어 요통, 디스크, 좌골신경통 등이 개선되는 발명특허 받은 건강법이 수록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골반을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모든 병의 근본 해결법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다.

「허리사랑」으로 부부사랑을…

발명특허(제0265474호) 받은 골반(척추) 교정기구

무료 체험교실 운영
독자들에게 "발건강법, 오장육부 氣치유법, 통증해소법, 1개월에 5kg이상 체중감량법 <굶지않고> 등을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1박 2일 코스 <책뒷면 참조>
회원증 우송함. www.chgg.co.kr
책구입 방법 : 책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대금은 책을 받고나서 입금시키면 됩니다.
■ 전화 : 1544-3246

부산 525-4849, 제주 712-9001, 청주 256-0257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춘추복 조끼·몸배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동방,바지 ₩160,000 ● 두루막 ₩140,000 ● ₩60,000

◆ 모직(울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하복 적삼·조끼·바지



●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 마 ₩160,000 ● 모직 ₩160,000

셔츠



라운드형 차이나형 칠부 ● ₩30,000 ~ 50,000원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문화재 보존 모사 복제 또다른 수단

용인대 개교50돌 특별전

문화재 보존처리는 지금까지 원 유물에서 훼손된 부분만을 수리 복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문화재의 복제와 모사(模寫)가 진품을 위작(僞作)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태승 교수가 감로탱화를 모사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금동선각열반변상판의 진품(왼쪽)과 합성수지 재질에 주석박을 입힌 모사본(오른쪽).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등 14점 전시

"예술의 한 장르로 정착위한 실험무대"

이런 가운데 위작이란 가능성 때문에 그동안 금기시돼왔던 문화재 복제와 모사가 예술의 한 장르로서 정착할 수 있는 실험적인 무대가 마련된다.

용인대학교가 용인대 박물관에서 내달 3~13일 여는 개교 50주년 기념 특별전 '문화재의 또다른 보존-복제와 모사'는 훼손상태가 심각해 전시가 불가능한 진품 유물을 복제와 모사를 거쳐 다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문화재 보존처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의 작품은 고려불화인 '수월관음도(보물 제 1286호)'를 비롯해 '감로탱화(보물 제 1239호)', 금동불상판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토제틀인 '토제주범', '금동선각열반변상판',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견된 '석조나한상', '황희 영정' 등이다. 여기에 일본 중요문화재인 '동대사 남대문 아형 인왕상'과 '승상사 지국천입상' 등을 합해 총 14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보통 5백년 이상된 진품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 X레이와 현미경을 사용해 고증을 거쳤다. 하지만 모사본이라고 해서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입적한 모습을 동판위에 표현한 통일신라시대 작품 '금동선각열반변상판'은 진품과 달리 합성수지에 주석박을 입혔다. 조선시대 나전칠기 유물인 문갑의 철제 문고리도 진품과 복제품을 보면 금방 새것이라는 표시가 난다.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녹과 흠집 만큼은 복제와 모사를 하지 않았다.

처음 시도되는 장르인 만큼 혹여나 위작에 대한 학계의 시비를 의식한 것이다. 이런 노파심 때문일까.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들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수월관음도'는 서화보존처리분야의 박지선 교수(용인대), '감로탱화'는 이태승 간송미술관 연구원 등이 작업했다.

특히 원 유물의 보존처리 과정이나 복제 및 모사과정도 함께 사진으로 소개되는 이번 전시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법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문화재보존학과 배진달 교수는 "회화 작품은 아무리 잘 보존해도 2백년 이상이 지나면 퇴색되기 때문에 원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며 "하지만 진품을 그대로 옮기는 복제와 모사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 진품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조기종영위기 면한 '오세암'

네티즌들 연장운동… 오월말까지 상영

뛰어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개봉관 축소로 조기종영 위기에 처했던 국산 애니메이션 '오세암'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확대 상영된다.

현재 서울 1개 극장(엠파크), 지방 8개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오세암'을 서울 스카라 극장이 25일까지 일주일간 연장 상영하겠다고 나선 것.

지방에서도 5개 극장이 추가로 이달말까지 상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2곳, 지방 13곳 등 총 15개 스크린에서 이 작품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전국 67개 스크린을 통해 관객에 선보인 '오세암'은 개봉 일주일 만에 할리우드 및 국내 대작 영화에 밀려 개봉관이 9개로 줄어들어 조기종영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국애니메이션 서포터즈 모임(http://zzaru.net/~kaf/)의 주도로 네티즌들이 9일부터 '오세암 조기종영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동참 네티즌이 2천명을 넘어섰다.

'오세암'은 11일까지 전국에서 8만 5천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엄마를 찾아 나서는 애틋한 마음과 해맑은 동심을 담은 애니메이션 '오세암'은 설악산 오세암의 꼬마보살 설화를 그린 故 정채봉씨의 동화 <오세암>을 각색했다.

원화만 6만여장이 들어갈 정도로 대작인 작품은 손으로 그린 평면기술(2D)임에도 컴퓨터그래픽을 덧입혀 시냇가에 반짝이는 돌의 빛과 질감, 눈덮인 산의 실감나는 장면과 휘몰아치는 눈바람 까지도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살려낸 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김주일기자



◇애니메이션 '오세암'의 포스터 사진.

큰스님 초청 명상등 특강

불교TV, 30일까지

불교TV문화원(원장 구본일)이 지난 4월에 연 개원 특강에 이어 '제2차 큰스님 초청 특별법문 및 명상 초청 특강'을 마련한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강은 오전 10시 30분에 큰스님 초청 법회가, 오후 2시에는 명사초청 특강이 진행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큰스님 초청 법회-28일 고산 스님(쌍계사 조실), 29일 정관 스님(사단법인 불국토 이사장), 30일 월주 스님(봉선사 조실)

△명사 초청 특강-28일 박광서(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불교가 21세기에 왜 필요한가', 29일 설용수(남북사회문제연구소 이사장) '불교와 통일,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을 중심으로', 30일 강부자(탤런트) '생활 속 행복 찾기' (02)3270-3399

여수령기자

내달 울산서 명무명인전

살풀이·승무·입춤등 다양

전통예술 공연무대인 '한국의 명무명인전 울산 공연'이 내달 21일 오후 5시 30분 울산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 및 춤 분야의 원로에서 신예에 이르는 예인들이 대거 무대에 선다.

특히 영원한 현역 국악인 김진홍 선생외에도 일초 스님(인천시 인간문화재)과 승무 이수자 양대승·박종필·노수은, 살풀이춤의 김지원, 태평무의 강화자, 소고춤의 김미자, 한량무의 정명자, 춘앵전의 김희경 등이 출연한다.

이외에도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 강승연과 양승희, 임이조 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산조 보유자 후보인 양승희씨의 연주모습.

시립국악단 예술감독 등이 출연해 진도북춤과 가야금 병창, 피리 독주, 춘앵전, 원향살풀이춤 등을 공연한다. (02)585-7318.

김주일기자



◇이만익 作, '진전사지 3층석탑 국보 122호'.

이만익씨 30번째 개인전

가족과 관련된 그림 많아

중견 서양화가 이만익씨는 한국인의 정서를 선명한 색채와 민화적 화풍, 단순한 구도로 친근감 있게 풀어낸다. 1973년 개인전을 연 이래 꾸준히 작업해 온 그의 30번째 개인전이 내달 1일까지 서울 청담동 송미령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에 선보이는 20여점의 출품작 가운데는 유독 가족과 관련된 그림이 많다. 일가족이 산에 올라 잔잔한 기쁨을 누리는 '가족산행', 일가족이 턱을 괴고 바깥 풍경을 조용히 감상하는 '가족도' 등이 가정의 달에 잘 어울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가족 소재 작품 외에 '봄밤', '꽃피는 계절' 등 풍경화와 기존 작품인 '진전사지 3층석탑 국보 122호', '월인천강' 등도 벽에 걸린다.(02)540-8404.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btn 불교텔레비전 <ch 32>

05:25 경전공부
08:30 라디오 열린마당
12:20 백팔가요
03:05 음악의 마을
16: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23:05 살며 생각하며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5월 29일 13:30 지운 스님의 원각경 강의
5월 30일 09:30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인
5월 31일 09: 30 설수진의 러빙유
6월 1일 21:00 다큐멘터리 삶과 예술
6월 2일 1:25 명상으로 하는 태교와 육아
6월 3일 09:30 무비 스님의 법화경 강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덕신 스님의 살며 생각하며(6월 3일 23:05~4일 1:00)-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과 문화부장을 역임한 덕신 스님이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하루를 정리하고 새날을 시작하는 시간, 청소년 청취자들의 속 깊은 사연들이 펼쳐진다. 화요일에는 현대 음악과 조화를 이룬 우리 음악을 감상해보는 '휘모리와 비바체'가 방송된다.

■**불교텔레비전**:△지운 스님의 원각경 강의(5월 29일 13:30~14:20)- '정제업장 보살장'에서는 '5계가 진성을 오염시키는 허물과 그 이유를 묻는 정제업장 보살의 질문에 여래께서는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허물의 발단이 된다고 하셨다'는 내용으로 강의한다.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의사) 박동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켐메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宗門第一書 碧巖錄 懸吐 法徹一愚 譯解
泰華淨圓 平心寺의 스님이 毛筆로 手書한
벽암록의 영인본



역해본 원본

碧巖錄
卅餘年前初學時 삼십여년전 처음 배울 때
黑底字兮白低紙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더니
譯解書刊將十載 역해(譯解)해 써서 간행한 지 거의 십년에
有求索人付意味 구색(求索)하는 사람이 있음에 의미를 부여할까나.
杲師燒却戒學語 고사(杲師)가 소각함은 말을 배움을 경계했음이니
至今流通一場愁 지금토록 유통(流通)하니 한바탕 근심일런가
抹低何啻限碧巖 지울 것이 어찌 벽암록에 한할 뿐이랴
看他本師涅槃時 저 본사(本師)의 열반하실 때를 보아라.
無所說已多語 설한 바가 없음이라 함도 이미 말이 많음이니
倚天太阿不容擬 하늘에 기댄 태아검이 헤아림을 용납하지 않느니라.
- 泰華淨圓 -

300질 한정판 / 정가 140,000원

도서출판 수미산 02)3672-4276

밝은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라 실버 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시설안내◀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 층수 :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주금 헌납입주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성라실버타운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행복한 삶을 위한 노니"

노니(noni)는 2000년 동안 폴리네시아인들이 민간 요법으로 애용되어온 열대과일 노니를 100% 원액으로 만들었습니다.

Bula Noni는 순수 100% 엑기스이기 때문에 질병에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Bula Noni는 건강하게 살려는 모든 현대인들이 일반 음식으로 부터 취하기 힘든 Xeronine이란 성분과 기타 인체의 면역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각종영양 성분의 섭취에 필요한 건강 보조식품 입니다.

노니는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관절염
◇ 아토피성피부염
◇ 당뇨
◇ 위장질환
◇ 고혈압 두통 및 통증
◇ 암
◇ 알레르기성 비염
◇ 불면증
◇ 간질환 신장병
◇ 갱년기 장애

※궁금 하신 분 자님들은 문 의해 주 시면 정성껏 상담해드 립니다.

총판, 대리점, 주부사원 모집

상담 : 02)534-9264
러브인노니 코리아 www.loveinnoni.com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12화 빔비사라왕

다음날 싯다르타를 감시하던 신하는 싯다르타가 라즈기르의 동쪽 바이바라(Vaibhara)산과 중간에 위치한 제티안(Jethian)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해 왔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다. 그곳은 높은 언덕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므로 만약의 경우 싯다르타를 아무도 모르게 체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빔비사라왕이 산정에 올라 바라보니 과연 그곳의 큰 나무를 등지고 매우 엄숙한 자세로 깊은 선정(禪定)에 들어있는 싯다르타가 있었다. 그런 모습이 하도 거룩해 감히 접근할 마음을 잃고 멀리서 걸음을 멈춰선 채 겸손한 자세로 조용히 싯다르타가 선정에서 빠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아침에 성문을 나설 때는 나라와 백성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작은 의심하나만 발견되어도 이 힘없는 이방인 고행자를 체포해 끌고 오겠다고 의기양양 했었는데, 싯다르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감히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기품을 느끼며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것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동안 왕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앉아있던 싯다르타의 눈이 서서히 열렸다.

"위대한 마가다의 대왕께서 어찌해 이곳까지 행차하셨나이까? 나는 설산의 중턱에 있는 코살라의 제후국인 카필라바스투의 왕자 싯다르타라 하옵니다. 성(姓)은 태양의 후예, 그리고 종족은 샤카족이옵니다. 뜻하는 바가 있어서 출가했고 지금은 그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해 고행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내 일찍이 들으니 샤카족은 위대한 천손(天孫)족이라 들었소. 그런 샤카족의 왕자를 만나게 되어 기쁘기 한이 없소. 샤카족은 해의 따님 타파티(Tapati)의 아들로서 이 세상 최초의 대왕이신 마하삼마다(Maha-Samvarana)대왕의 혈통을 이은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들었소. 그런 샤카족의 존귀한 태자가 무엇이 부족해 온갖 재물(bhoga)과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출가해 더러운 카샤를 입고 바루(鉢)를 손에 들어 걸식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오? 또 일국의 왕자가 내 나라에 왔으면 마땅히 궁전으로 나를 찾아와 궁전에서 기거할 일이지 이런 야산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지내는게 옳다고 생각하오?"

"내 지금 처음으로 그대를 만났으나 첫눈에 따뜻한 정을 느끼며 마음이 서로 통함을 알 수가 있소. 도대체 무슨 말 못할 곡절이 있어 나라를 버리고 출가까지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혹시 예언가의 말처럼 전륜성왕의 위업을 이루는 길이 험난하다고 생각했다면 이 마가다국의 반을 쪼개서 그대에게 줄 것이니 나와 힘을 합하면 진정한 전륜성왕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현명한 사람은 때를 알아 취하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트리바르가(Trivarga, 法 · 財 · 愛)를 모두 갖추면 그를 일러 세상의 대장부라 하는 것 아니오? 싯다르타 왕자여, 이제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 코끼리의 등에 타고 나의 궁전으로 돌아가 앞날의 원대한 꿈을 서로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위대한 마가다의 라자시여 지금까지 위로해 주시는 말씀 매우 뜨겁게 받았나이다. 내 이미 라자의 은근한 마음 알았으니 구태여 거슬리는 말은 아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나의 솔직한 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생노병사(生老病死)의 두려움으로부터 참다운 해탈(解脫)을 구하기 위해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마저 버리고 떠났는데 이제와서 어찌 오욕(五慾)을 찾아 되돌아 갈 것입니까. 사나운 맹수나 독사 따위도 두려워 하지 않으나 오직 오욕의 구렁텅이에 다시 굴러 떨어져 헤어 나오지 못할까 심히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욕망(Kama)은 다름아닌 큰 도적으로 사람들이 지닌 모든 좋은 점을 다 겁탈해 빼앗고 간사하여 사람을 악의 함정으로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오욕(五慾)을 일으켜 그 만족함에는 끝이 없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 오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라자께서는 사해(四海) 안을 다 호령하면서도 다시 바깥 영토를 구하니 그 욕심, 큰 바다 같아서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만다트리 전륜성왕은 온 하늘에 황금비를 내리고 사천하(四天下)를 호령하였지만 다시 트라야스트림사(刀利天)를 욕심내고 샤크라(帝釋, Sakrodevendra)의 반을 얻고도 다시 나머지마저 얻으려고 도모(圖謨)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욕의 경계(境界)는 도(道)를 행하는 사람의 원수로서 비록 일천개의 팔을 가진 역왕(力王)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라마(Rama)선인도, 나후사(Nahusa,農沙)왕도 다 오욕 앞에 무너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전륜성왕이 되신 분들도 그처럼 갈구했다 무너지는 오욕(五慾)이니 하물며 우리 크샤트리아(Ksatriya, 왕과 무사계급)들이 눈 앞에 있는 오욕의 유혹을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다(Sunda, 孫陶)와 우파순다(Udasunda, 鉢孫陶)의 두 아수라(阿修羅)형제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같이 나서 사랑했으나 욕심으로 인하여 서로를 죽이고 그 이름마저 더럽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은 맛있어 보이지만 결국 탐하는자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맙니다.

결국 까마(Kama, 慾望)는 비록 얻었다 할지라도 더 큰 까마로 인하여 파멸되고 마는 것이니 무엇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자신을 파멸시킬 것입니까?

내가 오욕(五慾)의 유혹을 뿌리치고 약속된 왕관도 버리며 출가를 단행하니 내 마음 맑고 시원하기가 마치 독사의 아가리를 벗어난 듯 하더이다.

나는 오욕(五慾)의 까마를 버렸기에 출가한 것이고 지금은 인간 최고의 이상을 바라보고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필코 깨달음에 도달하여 붓다(Buddha)가 될 것입니다."

빔비사라 왕은 싯다르타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다.

"샤카의 왕자시여, 그대가 결국 붓다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연히 왕자의 진심을 의심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용서 하십시오.

지금 두손모아 합장하고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하노니 훗날 그대가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되시거든 꼭 한번 더 나를 찾아 가르침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싯다르타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빔비사라왕은 흡족한 얼굴로 싯다르타를 뒤로한 채 작별을 하고 떠나갔다. 이 두사람의 운명적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모든 작용 놓고 간다면 둘 아니게 참자기 발견

한마음으로 찰나생활을 자유스럽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길


그림 · 최주현

마음은 고정돼 있지 않아 어느것 하나도 묶여진 것 없으니 나쁘고 좋은 것 모두 놓고 가야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 한 것이 오랜만인 듯 합니다. 다녀온 일을 상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한마음 내주셔서 잘 다녀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라 하니 갔고 그 곳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왔겠습니까? 일체 만물 만생이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늘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풀 한 포기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한마음이란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해탈이며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이건 물질세계로만 치닫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정신세계가 앞장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한국에도 심성개발을 위해 열심히 수행 정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미국에 계시는 많은 불자들도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번에 가서 더 절실히 느낀 것은 지금 시대에는 기복이나 이론만으로는 도저히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천수행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앞장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사대에 대해 너무나 잘 아시죠? 색은 물질계이고 수상행식은 정신계라고 합니다. 정신계와 물질계인 사대가 합쳐지니까 몸과 마음이 형성됩니다. 몸과 마음에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라는 육근이 대두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육진인 색성향미촉법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이론적으로만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두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갯수 아닌 갯수, 숫자 아닌 숫자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면 그 하나에 육근을 더하면 둘이 됩니다. 그런데 둘이 되면서 하나라는 것은 벌써 과거로 돌아가서 절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할 때 벌써 아까 하나는 둘이라는 것에 포함되니 하나는 없어지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상대성이 절대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육진으로 다시 들면 셋이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아셔야 결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식으로 다시금 혼합을 한다면 십팔계가 되면서 이것 또한 하나입니다.

그런데 십팔계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십'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들이 응용하는 중용은 바로 '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냥 내 의견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벗어난다면 벗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 없는 하나가 그냥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하나라는 것도 세울 게 없기 때문에 한마음입니다.

대강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비유하건대 만약에 몸과 마음이 솥이라면 쌀을 씻어 놓고 물을 부어서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쌀이 다 익은 후에 우리는 밥을 먹게 됩니다. 솥, 쌀, 물, 불이 합쳐져서 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까지, 깊은 속에까지 들어가서 굴러 나와야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론으로 그 과정을 설명한다 해도 스위치를 꽂아서 밥을 익히지 않는다면 밥은 결코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육조 선이니 간화선이니 하는 것도 둘이 아닙니다. 밥 짓는 이론상의 그 과정과 실제로 불을 붙여서 익혀 먹는 것이 혼합되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으로 따지거나 말로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밥을 해서 먹는 걸 배우는 것이니 그 과정이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자,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몸을 가지고 살아 있을 때 이 뜻을 모른다면 천년 만년 가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수가 없다면 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에다 하나를 넣어도 하나요, 또 하나를 넣어도 하나요, 그래서 밥을 한 솥 해놓고 먹어도 그 하나마저도 없더라, 모두 나누어서 먹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재료들을 사용해서 밥을 했는데 쌀이 했다, 불이 했다, 물이 했다고 꼬집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쌀이 될 때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물이 될 때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불이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 그게 바로 한마음이며, 그 한마음마저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음으로 찰나 생활을 자유스럽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또 계(戒), 정(靜), 혜(慧), 해탈(解脫), 해탈지견(解脫知見)이라 하였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계, 정 할 때에 벌써 앞의 하나는 없어집니다. 절대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상대성 원리가 원형으로 모이면서 하나가 일어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탈까지 가서 해탈지견, 다시 말하자면 소견으로 쓰지 않고 지혜로서의 지견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굴러 나와서 하나로 뭉쳐 돌아가니까 '해탈지견'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율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이 포함된 능력의 중용이기 때문에 지킨다 안 지킨다 할 것 없이 질서 정연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유위법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위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위법에서나 유위법에서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 등을 다 포함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나로 될 수 있고 상대로도 될 수 있어서 그대로 자유자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아홉이 되고 아홉이 셋이 되듯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번 당겨서 절대성으로 놔두었다가 상대성으로 옮겨 놓고 다시 절대성으로 오게 하는 자유권을 지니고 자유자재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 속에 수많은 중생들이 들어 있는데 이 중생들은 다름 아닌 자기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중생들은 숫자가 많으면서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마저도 없다고 하는 도리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 도리를 모른다면 중심이 없고, 내 주인을 모른다면 껍데기만 있는 빈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에게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서 있지 않다면 네 주장자를 뺏어 올 것이니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뺏는다는 문제를 덧붙인 게 아니라 가르치시느라고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인이 없다면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이 드나들면서 뒤집어 놓습니다.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성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모든 일을 그르치게도 하는데 과거로부터 자기가 짊어지고 나온 것이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속명통이라는 건 입력된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팔자니 운명이니 하고 울고불고 야단들인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까닭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력되어 나오는 데에다 다시 입력시키면, 즉 놓으면 앞의 것은 지워져서 무너질 텐데도 말겨 놓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살던 의식까지도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뭉쳐 놓으면 자동적으로 과거의 것은 없어집니다. 넣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릇이 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순간마다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알고 나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느니라.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너 하나마저도 없을 때 비로소 네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천백억화신으로 화하느니라"하셨던 겁니다.

마음이 그렇다면 속의 모든 중생들이 전부 알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좋게 쓴다면 그들 역시 그대로 따라 주게 됩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남한테 부드럽게 대하면서 편안하게 해주게 되는데 내 마음이 언짢으면 남에게 괜히 신경질을 내게 되며 말도 짜증 섞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로부터 내 주처를 완성해야만 집이 튼튼하고 빛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상이 구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와 같이 구족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중용으로 평등하고 부드럽고 모든 걸 포용해서 응해줄 수 있는 자비와 지혜, 즉 해탈지견으로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경계를 들여보낼 사이도 없이 그냥 모두 내놓는다면 그게 마(魔)가 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새끼 꼬이듯 뒤틀리고 맙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나오니까 보이는 데에도 전부 걸리는 겁니다. 안으로 놓으라고 했는데 자꾸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살고 있으니,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주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는 전부 가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도 하나요, 아래에 가설이 되어 있는 것도 근본은 하나이며 중도입니다. 중심은 우리가 보통 말하지만 '중도' 하면 포함된 걸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비면 지구의 집도 빈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지금 지구라는 한 버스를 타고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속에 있는 중생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다니는지 모르고 우리들은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집에 주인이 없으면 지구의 집에도 주인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이 된다면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나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마음에서 두뇌로 올라가서 다시 대뇌로 전달됩니다. 대뇌라는 건 누진통이라고 그럽니다. 또 누진통을 레이더망으로 표현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점검을 해서 좋은 데로 방향을 돌려줍니다. 모든 것이 들고나면서 우주로도 통하고 세간으로도 통하니 삼라만상입니다.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을 한 주먹에 쥐고 자유스럽게 자재하게 되니 이것을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몸을 지탱하려면 내 집의 주인이 레이더망을 통해서 영계성 · 윤회성 · 업보성 · 유전성 등 인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부딪쳐 오는 모든 문제들을 막아 줍니다. 들일 건 들이고 버릴 건 버립니다. 우리들이 먹을 건 먹고 쓰레기는 버리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작용이 여러 분한테 본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며 수 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진화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지금도 쫓기고 쫓는 형국입니다. 현상계에서 무기를 사용해서 싸움을 해야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싸움을 하니 보이는 데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이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은 빈 껍데기로 화면 속의 배우마냥 주어진 배역에 따라 연기하다가 극이 끝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극을 만드는 연출자가 되어야만이 진실되고 참되며, 방편으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만능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들이 껍질로만 남게 되면 우주계에서나 다른 혹성계에서 의식들이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문제들을 앉아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일체제불이 한 찰나에 들어서 주장자를 주시고 비밀스런 법문을 설하시곤 금방 나투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로 쓸 일이면 하나로 쓰고, 뭉쳐서 쓸 일이라면 뭉쳐서 쓰고, 둘로 쓰려면 둘로 쓰고, 셋으로 쓰려면 셋으로 쓰기도 하는 그 무기가 무엇인가? 다름 아닌 한마음입니다.

이 소리를 말로만 듣지 마시고 잘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110V의 전력에 220V의 전력을 접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겠죠. 한 치의 인정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안이하게만 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땅바닥을 딛고 다닐 수 있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자력이나 광력, 통신력, 전력이 여러분에게 재료로 주어져 있는 건 지수화풍 사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도 자력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붙는 겁니다.

공기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체가 없다면 공기도 없을 겁니다. 이 우주에 혹성들이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있습니다만,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뭉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 모두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체 버려야 전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스스로 항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체 얻을 수 있어야 마음대로 하나로도 쓰고 둘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지구를 집어먹는다 해도, 의식 자체가 전부 내가 된다면 통신도 잘해 줄 것이고, 부패되는 것도 막을 것이고, 줄어드는 것도 막을 것이고 서로 상응해서 그대로 생존할 게 아닙니까? 핼리혜성이 와서 지구를 친다 할 때 핼리혜성이 내가 된다면 부딪치지 않게 다른 곳에다 끌어다 놓고 올 거 아닙니까?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 형상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불상을 조성해서 모셨을까? 부처님은 통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 분 모습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에 집착한다면 그건 부처님 공부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는 공부도 아닙니다.

예전에 타종교에서 말하기를 불로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 어려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지 달리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남의 말만 듣고 무슨 종말이 온 것마냥 생각하여 '머지않아 죽는다는데 인생살이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이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은 빈 껍데기로 화면 속의 배우마냥 주어진 배역에 따라 연기하다가 극이 끝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극을 만드는 연출자가 되어야만이 진실되고 참되며, 방편으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만능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들이 껍질로만 남게 되면 우주계에서나 다른 혹성계에서 의식들이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문제들을 앉아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일체제불이 한 찰나에 들어서 주장자를 주시고 비밀스런 법문을 설하시곤 금방 나투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로 쓸 일이면 하나로 쓰고, 뭉쳐서 쓸 일이라면 뭉쳐서 쓰고, 둘로 쓰려면 둘로 쓰고, 셋으로 쓰려면 셋으로 쓰기도 하는 그 무기가 무엇인가? 다름 아닌 한마음입니다.

이 소리를 말로만 듣지 마시고 잘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110V의 전력에 220V의 전력을 접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겠죠. 한 치의 인정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안이하게만 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땅바닥을 딛고 다닐 수 있는 건가 생각해 보세요. 자력이나 광력, 통신력, 전력이 여러분에게 재료로 주어져 있는 건 지수화풍 사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도 자력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붙는 겁니다.

공기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체가 없다면 공기도 없을 겁니다. 이 우주에 혹성들이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있습니다만,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뭉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 모두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체 버려야 전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스스로 항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체 얻을 수 있어야 마음대로 하나로도 쓰고 둘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지구를 집어먹는다 해도, 의식 자체가 전부 내가 된다면 통신도 잘해 줄 것이고, 부패되는 것도 막을 것이고, 줄어드는 것도 막을 것이고 서로 상응해서 그대로 생존할 게 아닙니까? 핼리혜성이 와서 지구를 친다 할 때 핼리혜성이 내가 된다면 부딪치지 않게 다른 곳에다 끌어다 놓고 올 거 아닙니까?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 형상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불상을 조성해서 모셨을까? 부처님은 통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 분 모습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에 집착한다면 그건 부처님 공부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는 공부도 아닙니다.

예전에 타종교에서 말하기를 불로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 어려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지 달리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남의 말만 듣고 무슨 종말이 온 것마냥 생각하여 '머지않아 죽는다는데 인생살이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이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은 빈 껍데기로 화면 속의 배우마냥 주어진 배역에 따라 연기하다가 극이 끝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뿌리조차도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낙엽이 떨어졌을 뿐 봄이 오면 잎은 다시 필 텐데요.

또 한 가지, 수박을 놓고 보세요. 수박씨는 바로 수박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의 수박 속에 들어있는 수박씨는 미래에 또 먹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밥 한 그릇으로 유의 생명들과 무의 생명들을 다 먹이고도 되남느니라 하셨듯이, 봄이 오면 수박씨를 심어서 내내 먹고 내년에 또 심어서 먹고 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도 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대로 수박이 되었으니 수박 안에 들어 있는 수박씨를 믿어야 공덕이 되지, 만약에 수박씨를 찾는다고 바깥으로 헤맨다면 아무런 공덕도 이익도 없을 겁니다.

우주 천지의 근본은 인간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어 있고 세상사는 인간의 마음에 가설되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도 있고, 종교도 있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는데 무엇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신부터 믿고 일체를 맡겨 놓고 연구하고 실험을 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제자나 유발 제자들을 똑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진실이자 방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부처님과 유마힐 거사가 몸과 이름은 각각이지만 오고 가는 사이 없이 마음은 한마음, 바로 한 주장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발병하게 해서 보살들을 보내려 했던 것도 공부를 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유마힐 거사의 병문안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사리불은 유마힐 거사의 병문안을 가는 데 자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를 "제가 숲 속 나무 밑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유마힐이 찾아와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좌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계에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멸진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도 온갖 행동을 하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안에도 바깥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합니다. 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좌선이라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좌선하는 이라야만이 부처님께서 인가하실 겁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는 것, 듣는

☞30면으로 계속

☞29면에서 계속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등 사는 것이 고정되지 않으니 안에도 바깥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경에 나온 말을 그대로 읽어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아마 뜻으로는 알아듣기 더 쉬울 거예요. 망상을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좌선이라 했는데, 가만히 보면 번뇌 망상을 끊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끄달려 돌아가니, 망상을 끊겠다고 애를 쓰는 자체가 또한 망상이니 그게 어디 끊어지겠습니까.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놓고 가는 겁니다. 마음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묶여진 게 없습니다. 나쁘고 좋은 것 모두를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한 고로 끊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만이 오직 좌선하는 겁니다. 곧 해탈 길로 들어가며 열반에 드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좌선하는 이라야만이 부처님이 인가하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면서 병문안 가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내가 차근차근 조리 있게 말씀드리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이 잘 새겨서 듣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계율을 지킨다 범한다는 말 없이도 한 발짝도 헛되게 떼 놓지 말고, 말 한 마디 헛되게 떨어뜨리지 않고, 한 생각도 평등한 마음 아닐 없는 그러한 행을 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도리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으니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세요. 어떠한 거든지 느끼시고 궁금하신 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불성은 주인공이자 참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부들은 왜 불성을 볼 수 없는지요? 참나를 찾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참나를 어떻게 해야 만이 찾을 수 있습니까?

▲스님: 늘 말씀드리지만 이끌어 드리는 대로 행하시면서 지켜보신다면 그대로 체험이 되실 겁니다. 본래 여러분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수화풍으로 인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재료로 있고, 오신통 중의 숙명통은 과거로부터 짊어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거기에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과거의 지은 바는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나가야지 조급한 마음으로 찾으려고 한다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본래 주어져 있는데 뭘 찾습니까? 그러니 꾸준히 정진하셔서 본래 있는 참나를 발견하세요.

▲질문자2: 스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설법하신 약 마흔 개의 테이프를 오늘 총괄해서 제가 가져온 하나의 공 테이프에 복습하는 그런 시간이 된 듯합니다. 미국에 다녀오셔서 서양 사람들의 물질문명이 우리 동양의 정신문명을 알고 싶어하고 정신문명의 필요성을 찾아서 갈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염려하셨듯이 법에 귀의하되 사람에 귀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법등명, 자등명인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물질문명보다는 정신문명이 앞서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동양권에서 반드시 정신문명으로 앞서서 서양의 물질문명을 지배하리라고 미천한 중생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문명을 정신문명이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불자들이 많이 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를테면 자기 정신 순화와 그 순한 마음의 기지를 우리 부처님 법에 의지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제 생각으로는 기복으로 믿지 말라는, 여타의 종교에서는 교주에 의지해서 밖으로 찾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정진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다도로써 정신을 찾는다든지, 부모님들을 한 가정에서 모시면서 잃어가는 옛 정신문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스님께서 저희 미천한 중생들에게 깊이 있는 법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세계에서 우리 국민성이 앞장설 수 있는 말씀을 앞으로 많이 들려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말씀 올립니다.

▲스님: 예.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지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깥 경계들을 안으로 들여서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생길 겁니다. 한편 자기도 빨리 발견할 겁니다.

그러나 소견으로만 사람을 믿지 말랬는데 생각하고는 딱 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착을 두지 말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정신계로 발전이 된다면, 과거에는 몸을 도구로 사용해서 모든 것을 해결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지휘하는 그런 한 주먹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뛰어다녀서 될 일이 아니고 곳곳마다 나 없는 데가 없어야 되겠죠. 세상천지 어느 곳이든 내가 없는 데 없이 있어야만이 리드해 나갈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삼천년 전 한생각이 지금 한생각
지금의 한생각이 미래의 한생각

▲질문자3: 저는 오늘 스님을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는데도 오래 전부터 뵈온 것처럼 친근감을 느끼고, 여쭈어 볼 것은 스님께서는 참자기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참자기는 거짓자기를 죽이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데서 발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아(無我)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 자기가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참자기도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둘 다 없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고 참자기는 무엇이며 결국 무아는 뭘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없다는 건 공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처사님은 모든 것을 고정되게 한 소리만 듣고 사십니까? 생활하시는 데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쉴 사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세울 게 있겠습니까. 세울 게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없는 겁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던 장본인 바로 그겁니다.

물론 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예전 스님네들은 판치생모(板齒生毛)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일 때를 가려서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없는 거죠. 그러나 자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중생이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으로 나쁘다 좋다 분별할 뿐, 본래 구분 지어진 것 없이 자기가 할 따름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쪽 팔을 들어 보십시오.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부터 알아야 들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고, 들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둘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불은 어디 있다는 건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대요. "불(佛)은 어떤 겁니까?" 하니까, 해골을 던지면서 "이놈아, 이거다!"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몇 해를 생각하다 보니 하루는 해골이 말을 하더랍니다. "야, 이놈아! 너도 나처럼 눈도 빼버리고 귀도 빼버리고 코도 빼버리고 혀도 빼버리고 몸뚱이도 없어야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골을 붙잡고 싸우다가 홀연히 알게 되었더래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의식만 빼면 송장인데 해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육근 · 육진 · 육식이니 하는 모든 작용을 놓고 간다면 들이 아니게 참자기를 발견할 겁니다.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가 상봉할 겁니다.

자신부터 믿고 일체를 맡겨놓아
연구하고 실험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질문자3: 제가 스님 법문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긴다면 그것은 제 수준과 이해도 또는 능력에 맞추어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불교의 전반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석존 입멸 이후에 곧 바로 불교경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경전으로 엮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과연 석존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어느 정도 진실되게 내려오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교에서 큰 문제로 여기는 것은 여성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견해를 내세우면서 그것의 정당한 근거로 불경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여성 차별시하는 내용들을, 불교가 왜곡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것을 빨리 바로 잡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학문적으로만 치우친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여전히 캄캄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과정은 명명백백히 밝혀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은 스님 같은 분들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책을 읽노라면 높은 경지를 이룬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불교가 왜곡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바로 잡는 적극적인 역할을 스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스님: 부처님 법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것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듯이, 부처님 법은 삼천 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하나 둘 할 때 둘로 합쳐진다고 했죠. 그것도 하나라구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는 삼천 년 전이라 할지라도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라 할지라도 미래는 없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원한 겁니다. 설사 역대 편집된 모든 것이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탓하기 이전에 나부터 알아야 그것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게 편집이 되었다 할지라도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경전의 내용을 고쳐도 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지를 모르고는 글을 쓸 수도 없고 고칠 수는 더욱 없습니다. 글씨를 쓰려면 종이가 없이는 불가능하듯이 먼저 나를 알아야 남도 알 수 있고 남을 알아야 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남은 둘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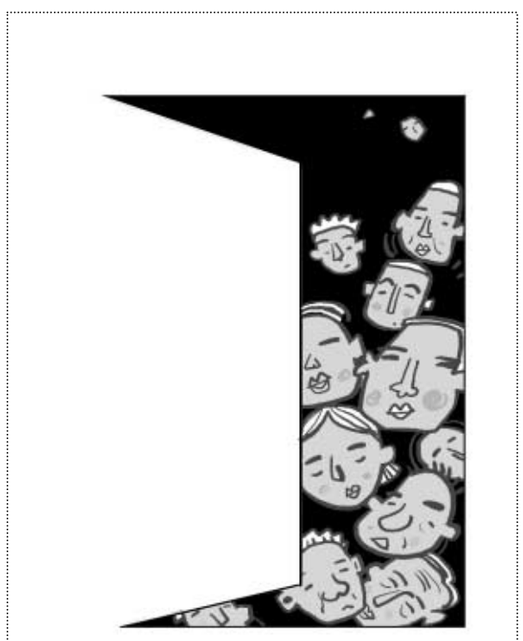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스님: 법우가 백지만 얻어요. 그러면 연필은 내가 줄 테니까. 어때요? 정말 장한 질문이었어. 그렇지!

▲질문자4: 저는 나름대로 단학 같은 것에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던 중에 제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알고자 했던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 분들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미심쩍은 점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오늘로 스님을 두 번째 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나 비디오를 통해서 스님을 친견하는 동안은 제 자신이 아주 왜소하게 느껴지고 그 순간은 정말로 부모님 이상으로 뜨거운 눈물도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 나름대로 느끼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볼 때 옳고 그름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자신이 중심이 서있지 않습니다.

스님의 법문이 이해는 되나 제 자신이 정착되지 못한 것은, 제 것이 되어야만이 제 스스로 일어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제가 중심이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나름대로 말을 배우고 있고 생각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주인공한테 맡기면서 공부해 봤을 때, 과연 진짜 주인공이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불경은 잘은 모릅니다만 불경도 하나의 끄달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스님: 불교가 국한된 종교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는 교훈이 되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한된 개별적인 용어가 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연이라 하면 간단히 말해서, 눈으로 본다면 귀로 듣는데, 그럴 때 눈과 귀가 한 인연이 되는 겁니다. 한 버스 안에 나고 있는 것도 인연이구요.

내가 가끔 비행기 프로펠러로 표현을 합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붙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잎 떨어지는 거와 같다고 그럽니다. 가을 잎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뿌리가 죽고 나무가 죽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무뿌리를 볼 수 있지만 나무는 자기 뿌리를 볼 수 없듯이,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마음내는 게 없다면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 · 법 · 승 삼보가 자기한테 있는 것이니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용돌이 속에서 돌아가는데 이것 보고 저것 끄달리고 하면 순응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매사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걸리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북하면 내가 그럽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눈도 깜짝하지 말아라, 네가 공해서 없는데 무엇이 개입될 게 있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안다면 그대로 자유스러운데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모두 법신이자 보신, 화신이지 않습니까. 달리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생각에 문수도 있고 보현도 있는 겁니다. 한생각에 관음도 있고 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 년 전의 한생각이 지금의 한생각이고, 지금의 한생각이 미래의 한생각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자기가 산 대로 짊어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다시 입력을 한다면 과거에 지은 것은 다 지워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모르는 컴퓨터까지 대동했겠습니까. 나는 이 날까지 내가 잘한다는 생각과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못한다는 걱정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누가 좋다 나쁘다 하든 간에 상관 않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살아갑니다. 진실되게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느낀 대로, 실험하고 체험한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부처님 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백지 속에 있으니 연필을 드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쓸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34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쁘고 언덕을 넘듯 그닐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교 이래서 좋다

이효정

숙명여대 서양학과 3년

생각과 행동의 나침반

나는 불교에 몸과 마음을 적시고 나서 자연을 알았다. 흙에서 싹이 나고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처럼 자연 그 자체가 불교라고 나는 배웠다.

연기법은 나에게 무엇보다 더 큰 가르침이다. 나를 원인으로 다른 생명이 태어나며 내 생명은 다른 생명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열정도 어느 다른 생명체에서 받은 것일지 모른다. 연기법은 인간끼리의 우월감이 절대 아니며 모든 살아 있는 것과 살게 하는 것들이 모두 연기법 안에 있다. 지금 내가 무심코 내쉰 한숨이 멀리 소말리아 아이에게 웃음의 에너지로 전달될 수 있다니 참 신비로운 일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불교를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 내가 안고 사는 불교를 자연에 빗대자면 '흙'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태어난 흙, 우리가 돌아가야 할 흙이다. 잡초 하나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고, 흙과 나와 바람이 다르지 않다. 인간에겐 편리를 위해서 산을 깎아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를 해칠 자격이 없다. 지난 여름 대불련 자비보살단에 참여하여 북한산에 가보고서, 자연보다 돈을 생각하는 인간들이 파헤쳐 놓은 소름끼치는 대지의 붉은 살을 보고 인간들의 살기 어린 무지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다.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온 불교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늘 뜨거운 영향을 준다. 그리고 어느새 내 삶의 가치관이 되었고 나의 꿈이 되었다.

나는 내 가치관을 손으로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는 미대생이다. 우리가 바로 자연이고 서로를 해칠 수 없음을, 세상 모든 이가 품어내는 맑은 향기가 이 우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따뜻하게 전하는 화가가 되고 싶다. '나'라는 어린 영혼에게 세상을 껴안을 수 있는 깊이를 안겨준 불교를 너무나 사랑한다.

2003 '세계 물의 해'

절수기를 사용합시다

포말식 꼭지·2단 양변기 등 다양

급증하고 있는 물 수요로 인해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도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면 물 절약이 습관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1인당 물 사용량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과다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최근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절수기 사용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가정 생활용수의 경우 화장실과 목욕탕의 절수기 설치로 약 50%의 물 절약 효과를 볼 수 있고 대중목욕탕, 여관 등에서도 엄청난 물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수기에는 기존 수도꼭지에 절수형 디스크 및 페킹을 내장한 절수형 수도꼭지, 일반수도꼭지에 포말전을 부착하여 공기와 물방울이 함께 나오게 하는 포말식 수도꼭지, 누름 장치를 누르는 동안만 물이 나오는 샤워헤드, 대소변을 구분하여 2개의 레버로 배출량을 조절하는 2단 양변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집 주변의 철물점이나 타일가게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남북 화해·평화 염원 축제 한마당

대불청, 6월 14~15일 속리산서 불교청년대회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촉구 3보1배

찬불가 합창·풍물공연·평화의 탑 쌓기



◇2001년 열린 제20차 불교청년대회 모습.

청년 불자들이 남북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한마당 축제를 연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옥·이하 대불청)는 6월 14, 15일 속리산 잔디광장에서 민족 통일과 화합을 기원하는 제22차 불교청년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대불청 평화문화제'를 함께 개최해,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맞는 청년 불자들의 평화 염원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4일 오후 2시 잔디공원 중앙무대로 1천여 청년 불자들이 모이면서 시작된다. 청년 불자들은 신임 대불청 총재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추대하고 사부대중이 하나 되기 위한 불교청년대회를 엄숙히 진행한다.

본 대회에 이어 열리는 대한불청 평화문화제는 1,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대구 지하철 사고 등으로 고통 받는 가족과 영령은 물론 북한산, 금정산, 천성산, 새만금 등에서 자연 파괴로 생명을 잃은 중생들을 애도하기 위해 전국 불자들이 보내온 발원문이 봉독된다.

1부 순서에 앞서 조계사 청년회, 대불청 광주·경기·충북지부 회원들은 찬불가 합창, 풍물, 국악, 살풀이 등 다채로운 공연도 선보이며 2부에서는 청년 불자들의 참회와 결의를 담은 촛불의식과 평화 기원탑 쌓기 등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청년 불자들은 평화기원 삼보일배 정진도 한다. 15일 잔디광장으로 다시 모인 불자들은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정진을 속리산 법주사 앞까지 펼친다. 불교청년대회는 낮 12시 법주사 통일미륵부처님 동상 앞에서 회향식을 갖고 막을 내린다.

대불청은 14일 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 전래동화 인형극도 공연한다. 인형극단 친구들은 '바우와 아기도깨비 까우까우'라는 인형극을 50분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불청대회와 관련, 정상옥 회장은 "이 땅 청년 불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전국불청대회를 열어 포교는 물론 민족 통일과 민족화합에도 기여하는 대불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18일 해운대 연꽃문화제에 참석한 청소년들. 가운데는 부불어 회장 지현 스님.

동시 쓰고…그림 그리고…

19회 연꽃문화제 해운대서

18일 제19회 연꽃문화제가 열린 해운대. 18개 사찰에서 참석한 250여명의 어린 불자들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백사장을 동심으로 수놓았다.

만 5세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참여한 이날 연꽃문화제는 산문, 운문, 그림 그리기, 모래 조형의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문화제가 끝난 후 놀이 마당이 펼쳐졌다.

'부처님 오신날' '바다' '하늘'이라는 시제로 열린 이날 백일장은 학년별로 나눠 부산시교육감상, 포교원장상, 부불어회장상을 각각 시상했으며, 부산시교육감상에는 김문현(11) 어린이가, 부산불교연합회장상 산문 부문에는 박종수(8) 어린이 등이 각선 선정됐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교특강 한국어·영어로 진행

클럽 25, 격주 토요일 연등국제불교회관

"What is the buddhism?"

불교에 관한 기본적인 의문을 영어로 해결하는 '청소년 불교특강'이 마련된다.

'클럽25(회장 문상현)'는 24일부터 2째, 4째 토요일마다 연등국제불교회관(서울 소격동)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관심 많은 청소년 불자나 외국인들은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한국 불교를 배울 수 있다.

WFBY(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부회장이면서 국제포교사회 지도위원인 선업 스님이 강의를 진행하며, 교재는 <Buddhism>(Clive errick 저)이다. '불교는 무엇인가', '사성제', '삼법인' 등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다뤄진다. 또한 선업 스님은 강의 중간 마다 참선과 호흡법 등 불교 수행 방법도 지도할 계획이다. 선업 스님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외국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럽25'는 WFBY(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산하 조직으로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 13차 총회에서 구성이 합의됐고 올 3월 22일 한국지부가 발족했다. (011)9070-2548

강유신 기자

명작 비디오 파일

달마야 놀자

스님과 조폭들이 벌이는 한판 도력(?) 싸움. 박철관 감독의 2001년 작품이다.

조폭들이 폭력사건에 휘말리자 사찰로 피신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당연히 젊은 스님들은 신성한 사찰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조폭들은 오히려 스님들을 내쫓겠다며 소동을 피운다. 여기에서 중재안을 낸 것은 가장 웃어른인 노스님. 스님은 젊은 스님과 조폭들에게 깨진 독을 물로 가득 채우라는 문제를 낸다. 양쪽은 온갖 지혜를 동원해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 결과 조폭들이 승리한다.



이 승리는 노스님이 세상의 '깨진 독'인 폭력배들에게 한없는 사랑의 물을 퍼부었기 때문이란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다. 노스님에게 세상 모든 인간은 불쌍한 중생일 뿐인 것이다. "나는 네 놈들을 내 마음의 연못에 그냥 던졌다"는 스님의 말씀은 모든 사물에 불성이 있다는 뜻인가? 스님의 자비심을 받아들인 조폭들은 새사람으로 태어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 HP 016) 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okbat@kornet.net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내 한생 성불을 늦추더라도 이 생애는 포교하리라!"

제35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행 사 개 요

1. 일 시 :
■ 기본·심화과정
불기 2547년 6월 7일(토)~ 6월 8일(일) 1박 2일
■ 불교상담
불기 2547년 6월 6일(금)~ 6월 8일(일) 2박 3일
2. 장 소 : 속리산유스타운
3. 예상인원 : 600여명
4. 연수 대상 및 참가비 :

구 분	기본과정	심화과정	불교상담과정
대 상	어린이법회 지도경력 3년 미만	어린이법회 지도자 경력 3년 이상	상담원, 상담에 관심 있는 일반인, 어린이 지도법사
미리 접수	45,000원	45,000원	150,000원
당일 접수	50,000원	50,000원	150,000원
제주도, 울릉도, 군종병	30,000원	30,000원	150,000원
비 고	해외거주자는 무료	해외거주자는 무료	선착순 20명

5. 지급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
6. 준비물 : 필기구, 간편한복장, 세면도구 등
7. 접수 방법
가. 접수
(1) 홈페이지 - www.dongja.org에서 연수회 참가 신청서 클릭하여 접수
(2) FAX : 신청서 작성 후 FAX로 접수 (051)864-4665
(3) 연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서를 미리 받고자 합니다.
▶본회 사무국 (051)864-4569, 4570
(4)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신청서 작성시 주민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나. 참가비 납부
(1) 접수 후 입금
(2)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연락바랍니다.
(3) 송금계좌 : 우체국 601310-01-002215 [예금주 : 대불어]
다. 접수마감 : 5월 31일 까지

일 정 표

기본과정 일정표

왜 불교를 믿는가?	정병조 동국대학교 교수
어린이법회운영 (어린이문화의 이해, 지도자의 자세, 교육기법, 운영상의 문제 등)	적인스님 불교문화원장
여름불교학교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최미선 아해누리한가람원장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절 이야기(1), (2)	김광호 대불청 교사대학 총무실장 금사사어린이집 교학교장
지도자가 꼭 알아야할 교리이야기	법명스님 향림사 주지
찬불가와 율동	정유탁 풍경소리

심화과정 일정표

왜 불교를 믿는가?	정병조 동국대학교 교수
사성제를 활용한 상담기법	인경스님 보조사상연구소 실장 겸 상담연구원장
분임토의 (테마가 있는 여름불교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도: 법명스님 향림사 주지
수계식	정관스님 본회 총재 영축총림
선실수	정여스님 본회 회장 여여선원장
어린이에게 경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 (2)	지현스님 본회 부회장, 송광사 율원장
찬불가와 율동	정유탁 풍경소리

불 교 상 담

<사성제를 활용한 상담기법>
※상담 지도 : 인경스님 (철학박사, 겸 상담연구원장)

(Ⅰ)접수 및 자기소개
(Ⅱ)苦, 괴로운 경험 조사하기
(Ⅲ)集, 원인탐색하기
(Ⅳ)滅, 소멸의 길: 수용과 통찰
(Ⅴ)고집멸도의 이해
(Ⅵ)道, 실천계획수립과 평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www.dongja.org TEL.(051)864-4569, 4570 FAX.(051)864-4665

인도그림기행

경건한 삶보다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까?

6 그림·글 이호신



◇새날의 여정(79×141cm).

다시 새날의 여정 속으로

일출 속 아잔타 가는 길

모든 역사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행된다. 하루해가 저물어 하루가 적멸(寂滅)로 돌아가고, 해돋이로 다시 새날이 열린다. 어제의 참회가 적멸로 구원받고 일출의 풍경속에 삶의 서원이 다시 일어난다.

'우~우~우~.'

대초원에 불어드는 바람소리에 깨어보니 광활한 초원의 대지에서 밝은 해가 막 솟아오르고 있다. 이 순간 모든 초목과 동물은 생기를 발하며 생명의 축복을 얻으리라. 그것은 마치 한 절대자의 지휘에 의해 자연 속 오케스트라가 일시에 연주를 시작하는 대합주, 대자연의 환상곡으로 깨어 나는 것 같았다.('동물의 왕국 세렝게티'에서)

3년 전 아프리카 여행 중 대초원에서 맞은 해돋이의 감회는 풍광이 빚어낸 천지의 장엄, 그 극치에 다름 아니었다.

풍경이란 나의 세계(지각)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이다. 산다는 것은 풍경을 가진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바로 풍경을 잃어버리는 공포다. 풍경은 인간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는 드라마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허만하, <낙타는 십리밖 물냄새를 맡는다>)

본다는 것은 지각(知覺)의 인식을 넘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반추하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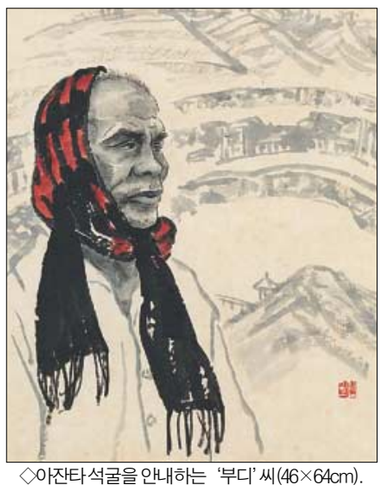
숙소에서 새벽4시에 기상해 어둠길을 내달리니 일행은 잠을 털지 못하고 모두 침선(?)에 잠겨 있다. 다만 옆자리의 스님은 잠을 깨 차창을 보라고 연거푸 녹차를 권해 주신다.

"화가는 깨어나 있어야 한다. 이 어둠과 새벽의 여정을 당신은 누구보다 살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하고 말씀하시는 눈빛이다.

어제 엘로라석굴에 이어 오늘은 아잔타 석굴 가는 길. 데칸고원을 가로지르는 새벽길은 내 삶의 테이프 눈금 위에서 우주와 통신하고 있다. 어둠속 회청색 하늘이 마침내 보라빛으로 물드니 어느새 여명이 밝아 오고 붉디붉은 해가 대지 위로 솟아오른다. 어제의 적멸에서 오늘의 생명으로 살아 오르는 새 역사의 웅비, 거룩한 장엄, 오 진리의 빛이여!

결국 건너편 좌석의 동행을 깨워 저 장엄을 함께 나누자고 채근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얼굴이 환희에 차 오르니 비로소 풍경은 내것이 되었다. 새날을 일깨우는 여정, 어제의 회한을 접고 다시 일구는 마음밭이다. 즉 밤은 사색을 가져오지만 아침은 실천의 장(場)으로 현실의 지평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대평원엔 열을 잇는 해바라기, 드문드문 볏가리들이 지나가고



◇아잔타 석굴을 안내하는 '부디' 씨(46×64cm).

초목과 바위산, 가옥구조가 모두 다른 초가와 판자집들이 드러난다. 황량한 초원 우물에서 도르레로 물을 길어 올리는 여인들과 물동이를 이고 가는 모습, 원색의 사리를 입은 젊은 아낙이 새날을 여는 주인공이다. 이 순간, 이 경건한 삶의 모습보다 아름다운 풍경은 없다. 새로운 기도는 없다. 누군가 "저들은 오직 초목생활로 최소한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 조용히 왔다 간다."고 했을 때 내 막힌 가슴에도 바람 소리가 들려왔음을…

한때 이곳 데칸고원은 무갈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아우랑제브(Auraangzeb)에 의해 아우랑가바드(Aurangabad)라는 지명을 얻게 된 곳이다. 그 곳에 산재한 아잔타 석굴사원은 인디야뜨리 구릉의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었다. 익히 많은 사진자료에 밝혀져 있는 바 아잔타는 말굽모양으로 구부러진 와골라천(川) 뒤로 성벽같은 지형에 30개 석굴이 조성된 사원이다.

물길는 아낙네 손길에 여명은 걷히고

성벽같은 석굴사원, 억겁 인연 고스란히

먼저 전경을 살피기 위해 전망대에 이르니 잡상인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화첩을 펼치기조차 난감하다. 또 바람 때문에 먹물에 모래가 끼얹어 붓질을 더해 가기가 난감하다. 더디게 머물 내 처지를 간파한 일행들은 벌써 석굴 아래로 내려갔고 홀로 남은 나는 말이 통하지 않은 꼬마 잡상인들과 실랑이를 벌려야만 했다.

내 급박한 상황은 기념품이나 사진 자료가 아니라 저 웅자(雄姿)한 석굴의 풍경을 담을 수 있게 석굴 주변을 안내해 줄 이가 필요한 경우였다. 이에 손짓 발짓하는 내 뜻을 살핀 한 노인이 아이들을 물리고 앞서서 인도하니 '부디'라는 60대 노인이다. 내리막길에서 마주친 인도 청년, 처녀들의 눈부신 사리옷이 발목을 잡아 노인에게 눈짓하자 그들을 세워 모델로 스케치와 기념사진까지 찍게 배려해 주는게 아닌가.

작은 키에 깡마른 얼굴, 그러나 웃음을 잃지 않은 채 알아듣지도 못하는 힌두어로 열심히 설명해 주는 부디씨는 오늘 내게 하늘이 내려준 대보살이다. 억겁의 인연이다.

그는 마치 내 생각을 꿰뚫고 있는 듯 원했던 장소로 나를 이끄는데 사진으로서는 한눈에 밝혀질 수 없는 좌측 마지막 석굴의 벼랑, 즉 물굽이가 시작되는 폭포수 위로 안내하니 지형의 근원, 산세, 석굴의 이미지가 한 눈에 펼쳐진다.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런 행운이 아닌가. 때마침 그의 손녀들이 나타나 친구들과 맨발로 벼랑위를 뛰고 날아다니니 요정들이 더불어 아잔타를 그리기 위한 내게 기운을 북돋아 주는 듯 착각에 빠진다.

위에서 보면 어느 항성의 표면 같고, 다가서 보면 수 억 년 용암이 녹아 수직 터널로 빚어진 기암 계곡은 스스로 수많은 소(沼)를 이루고 또 폭포가 되어서 아잔타의 위용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봉 불기2547년 부처님오신날 축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금강염주를 구입하시면 5월 31일까지 장수호두 약돌 1set를 드립니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악귀와잡귀들이보기만해도도망치는염험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금강의 강한氣를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기도정진 하시는 스님께는 철심을 사용한 단주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금강염주사문의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치료 예방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어들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잠잔 것과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제 고향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가격은35.000원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 명화

건강정보 장수 호두약돌 생명의氣

황토생명공학 센타에서 황토와 , 음이온, 원적외선, 氣(기)를 이온 결합시킨 장수 호두약돌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는 오랜 옛날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절친한 손놀이 지압용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손운동, 지압을 많이 하면 대뇌를 활성화 시켜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손 예술을 창조한다. 장수호두 약돌은 자연산 호두와 모양이 같으며 常溫(상온)에서 강력한 氣를 발산하고 건강증진과 활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은 초당 2100까지 발산되며 원적외선은 0.93% 발산되며 해독성이 강한 황토가 다량 들어있는 신기한 호두석으로 손에서 놀이삼아 돌리면 손이 따뜻해지며 온몸에 생명의氣를 체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분,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 분, 수술을 받으신 분, 연세가 많으신분 등은 휴대가 간편하므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 운동을 하면 좋다.

가격:(소) 33.000원 (대) 38.000

문의전화: (02)3210-3179 ※목걸이와 팔찌도 판매예정임